

THE SOKCHO CULTURE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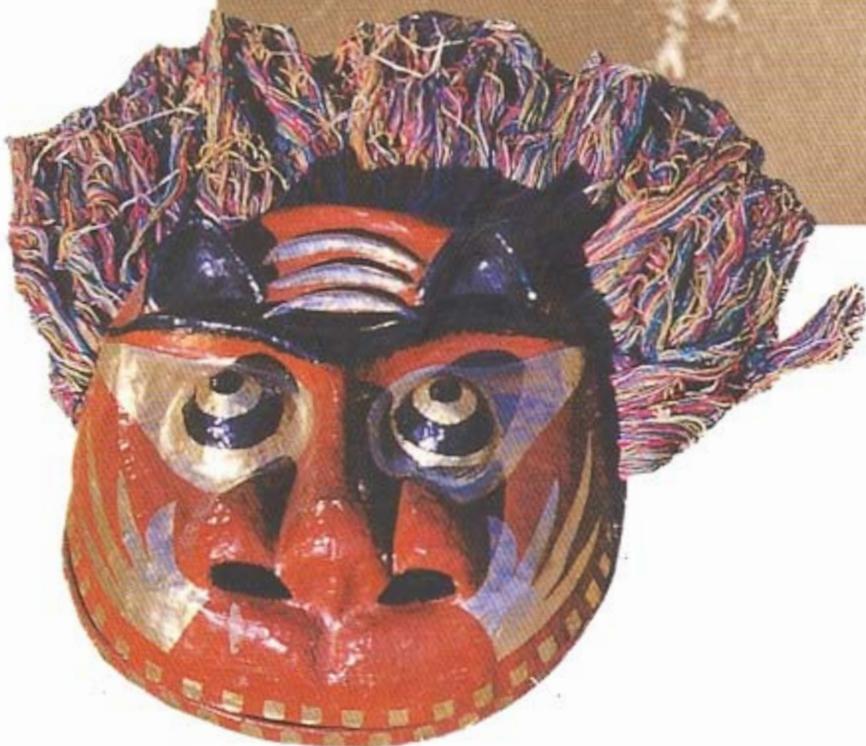
속초문화

2000 · 제16호

북청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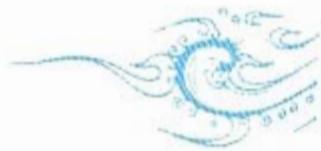


북청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표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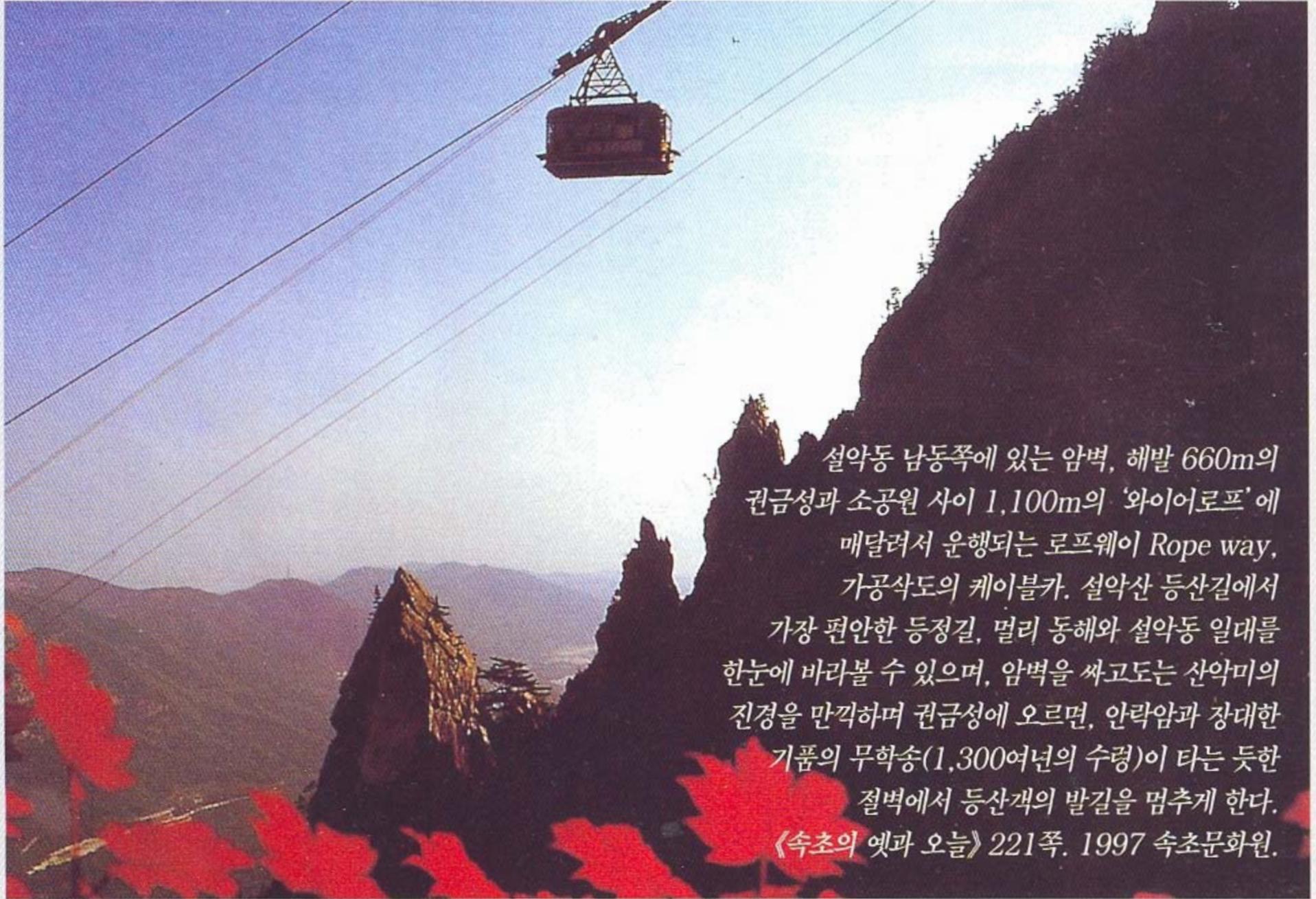


북청사자北靑獅子 놀음

1967년 3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 일대에서 정월 보름경에 행해지던 민속놀이로 사자로 가장한 행렬과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며 잡귀를 쫓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당놀이 - 사당寺堂춤, 무동舞童춤, 곱새춤 등 - 을 차례로 놀고나면, 사자가 등장하여 한바탕 춤을 추다 기진하여 쓰러지게 된다. 대사大師를 불러 독경을 시키나 별 효험이 없고, 의사를 시켜 침을 놓게 되면 사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순간 놀이에 참여했던 전원이 다시 등장하여 함께 춤을 추며 끝을 맺게 된다. 북한 문화 유입의 좋은 예로 볼 수 있으며 기능 보유자로는 김수석(金壽石·인간문화재 제84호·1997년 작고), 변영호邊永鎬, 동성영董誠英, 여재성呂在成, 이근화선李根花善, 전중식全仲植, 김하륜金河倫, 전광석田光石씨 등이 있다.

신뢰와 정성으로
SORAK FOCUS TRAVEL이
열어갑니다.

설악관광(주) 케이블-카



설악동 남동쪽에 있는 암벽, 해발 660m의 권금성과 소공원 사이 1,100m의 '와이어로프'에 매달려서 운행되는 로프웨이 Rope way, 가공삭도의 케이블카. 설악산 등산길에서 가장 편안한 등정길, 멀리 동해와 설악동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암벽을 싸고도는 산악미의 진경을 만끽하며 권금성에 오르면, 안락암과 장대한 기품의 무학송(1,300여년의 수령)이 타는 듯한 절벽에서 등산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속초의 옛과 오늘》 221쪽. 1997 속초문화원.



회장 韓丙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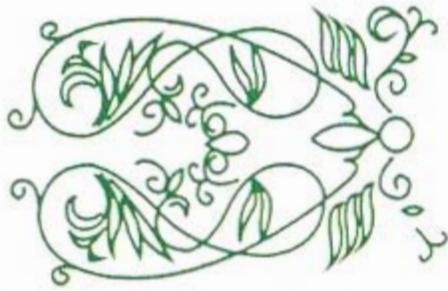
대표이사 慎容文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033)636-7362

여행부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82-5번지
(033)636-1011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8-13번지
(02)545-9726

◆ 해외여행 ◆ 신혼여행 ◆ 여권 비자 수속대행 ◆ 각종 항공권 판매



속초문화

Annual

2000 • 제16호

THE SOKCHO CULTURE JOURNAL

■ 발행인/ 최용문 ■ 편집위원/ 이인철 노광복 이기을 오윤근 김광수 윤의구 주상훈 최현식

차
례

■ 권두회호 /	김숙자 · 5
■ 권두시 / 속초에서	최영미 · 6
■ 발간사 / 우리 문화의 터를 살리자	최용문 · 7
■ 속초시가	· 8
■ 문예중흥선언문	· 9
■ 설악문화제	· 10
■ 옛 문헌에서 찾은 속초 지명	· 12
■ 영랑호와 옛 정자터	· 14
■ 여기 속초가 보인다	· 16
■ 문화원 동정	· 17
■ 기획특집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손기웅 · 34
속초시 축제의 발전방향	장정룡 · 40
강원 관광 발전에 따른 속초의 대응	장세호 · 46
북한의 언어 교육	김종상 · 48
아동문학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성교 · 56
■ 문화의 길	
문화 민족으로의 길	윤홍렬 · 62
21세기의 꽃피는 우리문화	한정규 · 64
로마자 표기법 16년 만에 개정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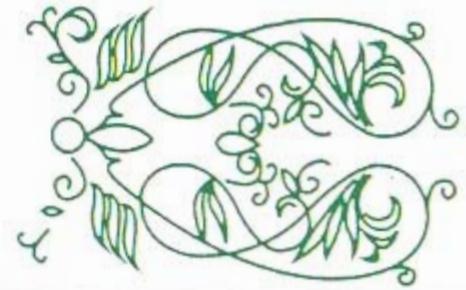
인쇄일/ 2000년 12월 15일

《속초문화》 제작비 일부는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음.

속초문화원

주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 217-010

전화/ (033)632-1231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E-mail : sc1241@kornet.net

■ 편집인/ 박영도

■ 발행일/ 2000년 12월 20일

■ 비매품

국립공원 설악산(16)	박영도 · 68
■ 역사의 향기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최현식 · 78
세계최대 백옥와불, 영랑호 보광사에 안치 연	석문 · 89 · 91
■ 그리운 고향	
속초에 가도 속초가 그림다	박혜숙 · 102
고향, 금강산을 찾아	정래섭 · 104
■ 광장 2000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112
북한 실향민의 애달픈 정착사	오윤근 · 115
설악권 문화재단 탐방	· 117
후배이쌍 초청 방중 기행	최용문 · 136
요나고시 가이아나 축제 참관기	정종천 · 139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 141
묵향 / 서예작품	· 146
2000 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 150
2000년 속초 민예총의 활동상	· 156
2000 속초문화원 에필로그	· 159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160

CONTENTS

인쇄처/ 강원일보사 출판국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음.

셔틀버스 운행으로 통학 편리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 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 및 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TEL. 633-3333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TEL. 635-3366, 3377, 3388, 3399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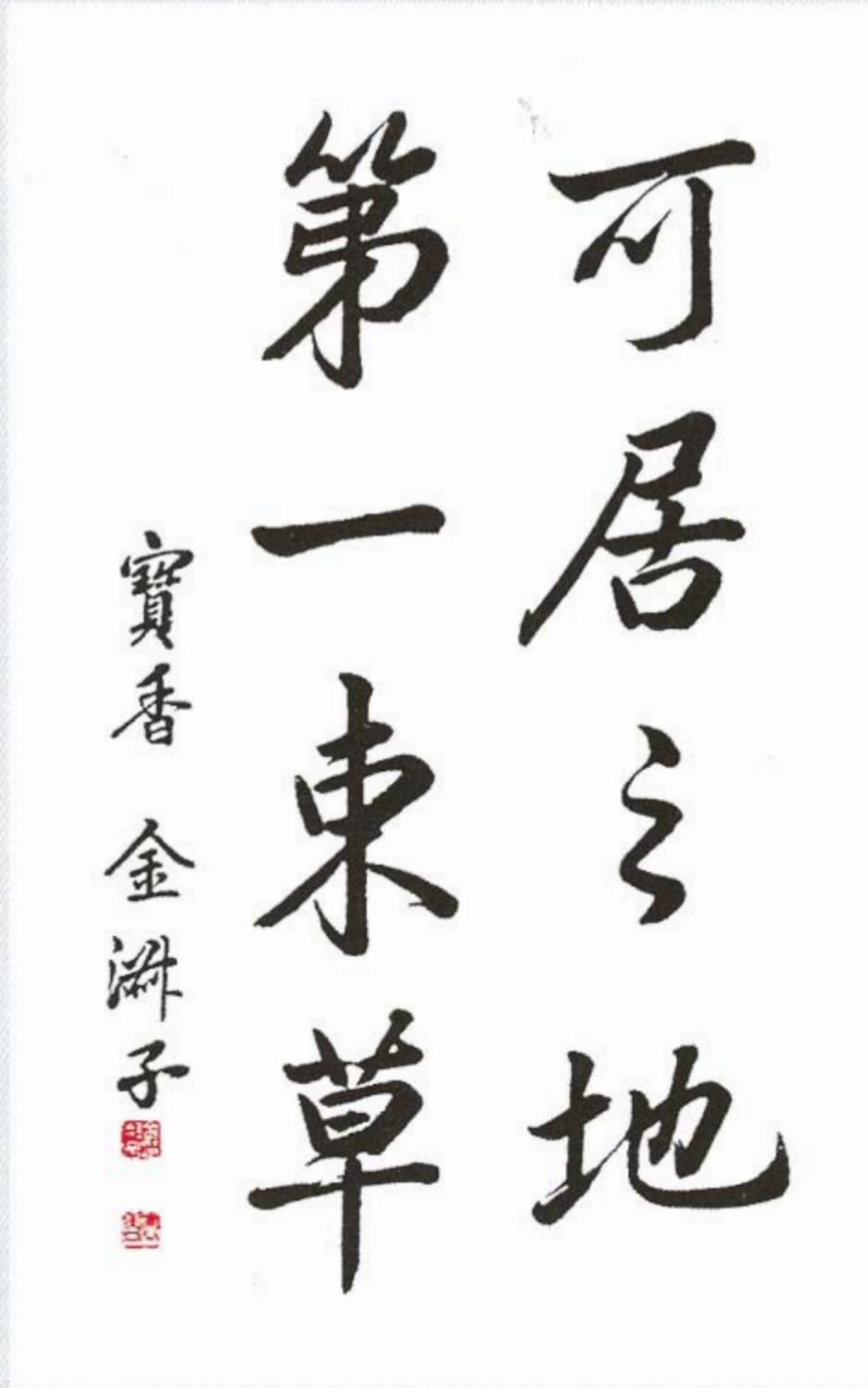


학원장 金光洙

강원도 경찰청 지정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매주 기능검정, 도로주행 검정시험 실시



플어주는 이야기

기꺼이 머물러 살 만한 곳이라면
속초를 비롯해 경북 경주, 김천이라 했다.
'가거지지可居之地 제일속초第一束草' 는
'살기좋은 곳으로 으뜸가는 속초' 라는 뜻이다.



김숙자

-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서예교실 회장.
- 1997. 10. 4 전국 서예백일장 장려상 수상.
- 1999. 1. 5 제8회 '홍제미술대전' 입선.
- 2000. 6. 16 제22회 양양 '현산문화제' 기념.
영북지구 휘호대회 차하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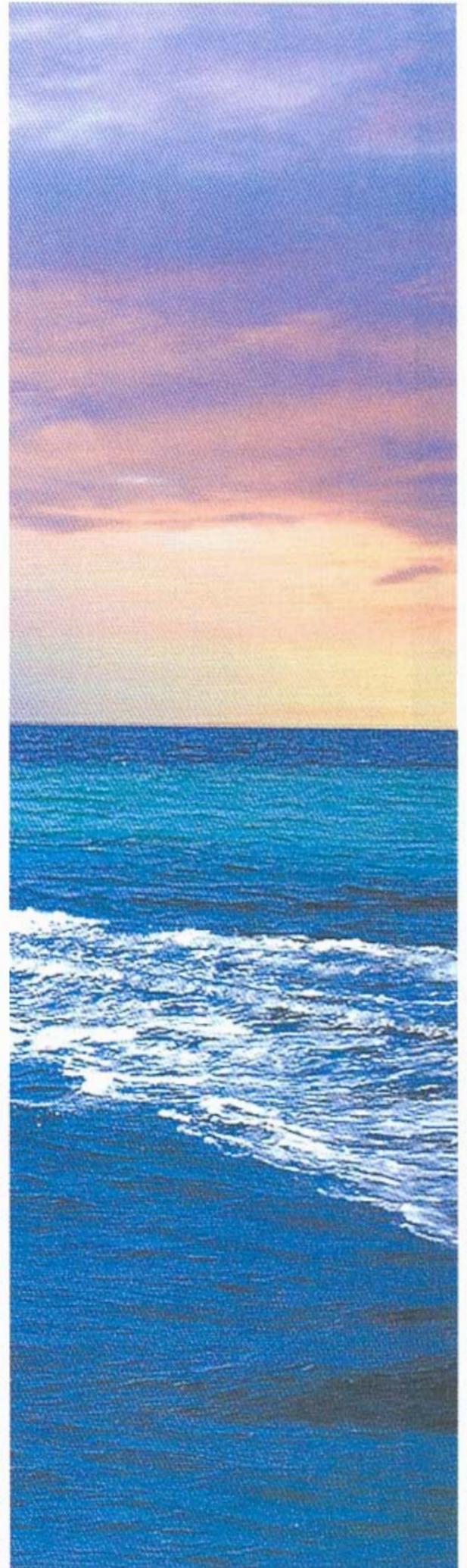
최영미

바다, 일렁거림이 파도라고 배운 일곱 살이 있었다.

과거의 풍경들이 솟아올라 하나 둘 섬을 만든다. 드문 드문 건져올린 기억으로 가까운 모래밭을 두어번 공격하다 보면 어느새 날 저물어, 소문대로 갈매기는 철없이 어깨춤을 추었다. 지루한 飛行 끝에 젖은 자리가 마를 만하면 다시 일어나 하얀 거품 쏟으며 그는 떠났다. 기다릴 듯 그 밑에 몸져누운 이마여 - 자고 나면 한 부대씩 구름 몰려오고 귀밑털에 걸린 마지막 파도소리는 꼭 폭탄 터지는 듯 크게 울렸다.

바다, 밀면서 밀리는 게 파도라고 배운 서른두살이 있었다.

더이상 무너질 것도 없는데 비가 내리고, 어디 누우나 비 오는 밤이면 커튼처럼 끌리는 비린내, 비릿한 한숨 콧조각 쫓아내지 못한 세월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밤이 깊어가고 처벅처벅 해안선 따라 낮익은 이름들이 빠진다. 빨랫줄에 널린 오징어처럼 축 늘어진 치욕, 아무리 곱씹어도 이제는 고스란히 떠오르지도 못하는 세월인데, 산 오징어의 단추 같은 눈으로 횃집 수족관을 보면 아, 어느새 환하게 불켜고 꼬리 흔들며 달려드는 죽음 이어 - 네가 내게 기울기 전에 내가 먼저 네게로 기울어가리.



崔泳美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수료. 1992년 계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속초에서」의 7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 시작. 시 행간에서도 그가 속초에서 유년을 보낸 밑그림이 보이지만 '99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속초 모 아파트에서 머물다 경기 일산으로 다시 등지를 옮겼다. 위의 시는 시인의 첫 시집인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서 뽑았다.

우리 문화의 터를 살리자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지난날의 우리 고유전통문화가 외래문화에 짓눌려 가치관의 혼탁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 속초는 동해의 푸른 바다를 앞으로 하여, 뒤로는 명산 설악을 배경으로 호수와 온천을 안은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청파의 고기잡이, 신선한 횡거리, 훈훈한 인정 - 이 모두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보고라면, 그 누구에 앞서 우리 시민들은 내 고장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키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터를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는 피난민들의 정착지 “청호동” 일명 “아바이 마을”이 있어 6·25 상흔이 가득한 지역으로, 이제 그 피난민 1세는 가고 2세, 3세대들이 그들 선인들의 맥을 유지, 한의 세월을 달래고 또한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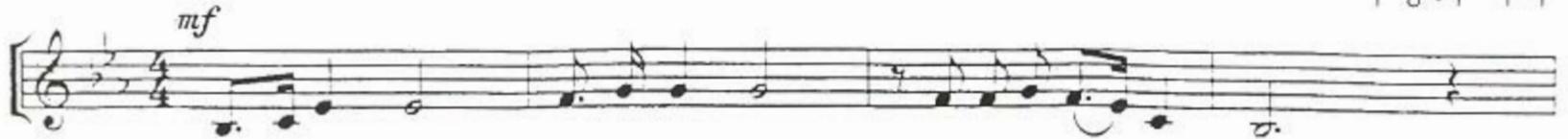
본원은 이러한 그들의 ‘한의 문화’를 ‘속초시 거주민 정착사’에 담아서 기록하여 역사의 교훈과 통일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부연하여 말씀 드립니다.

21세기의 시작으로 “속초문화” 제16호를 펴내면서 보다 훌륭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뜻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앞으로 더욱 지방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발간사로 갈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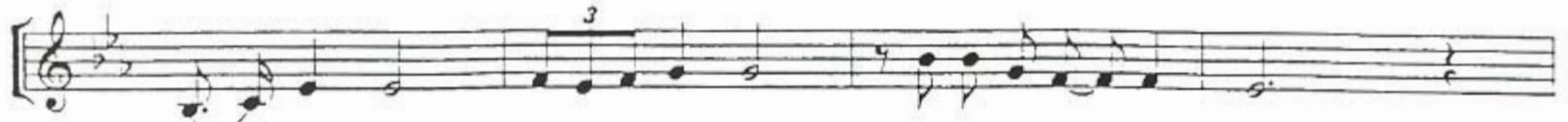
속 초 시 가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 = 92 - 96



1. 설 - 악 산 큰 뜻 반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침해 떠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벽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동 골 - 짜 기 에 흰 구름 몸을 물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닷가 거닐 어 라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라 보 니
갈 매 기 눈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녀 이 그 - 음 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묶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가 자 배 를 젖 - 자 산으로 바다 향 - 해



우 리 얼 깃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的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的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的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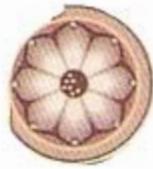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제35회 설악문화제

Sorak cultural Festival
2000. 9. 30~10. 2

설악산·'99관광EXPO장에서
펼친 이 고장의 축제



설악제례



산신제 설악산 소공원에서 산악인의 무사고와 속초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행사로 설악문화제의 근원입니다.

올해로 서른다섯 번째를 맞은 이 고장 문화축제인 '설악문화제'가 '99강원관광박람회장' 청초호 유원지를 중심으로 주변 행사장과 설악산 등지에서 9월 30일 전야제로 막이 올랐다. 이 고장 문화의 특성, 산악·해양·북한 문화를 골격으로 설악제례·통일염원제전·설악제전·놀이문화축전 등으로 펼쳐졌다. 그러나 설악문화제는 섬섬하지만 아직 선진문화제 축에는 멀리 있다. 반찬의 가짓수만 많았지 집어먹을 게 없다는 지적을 묵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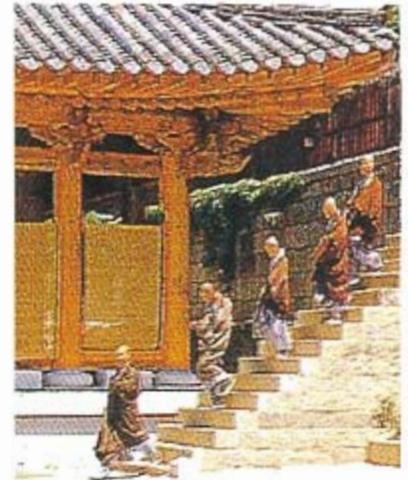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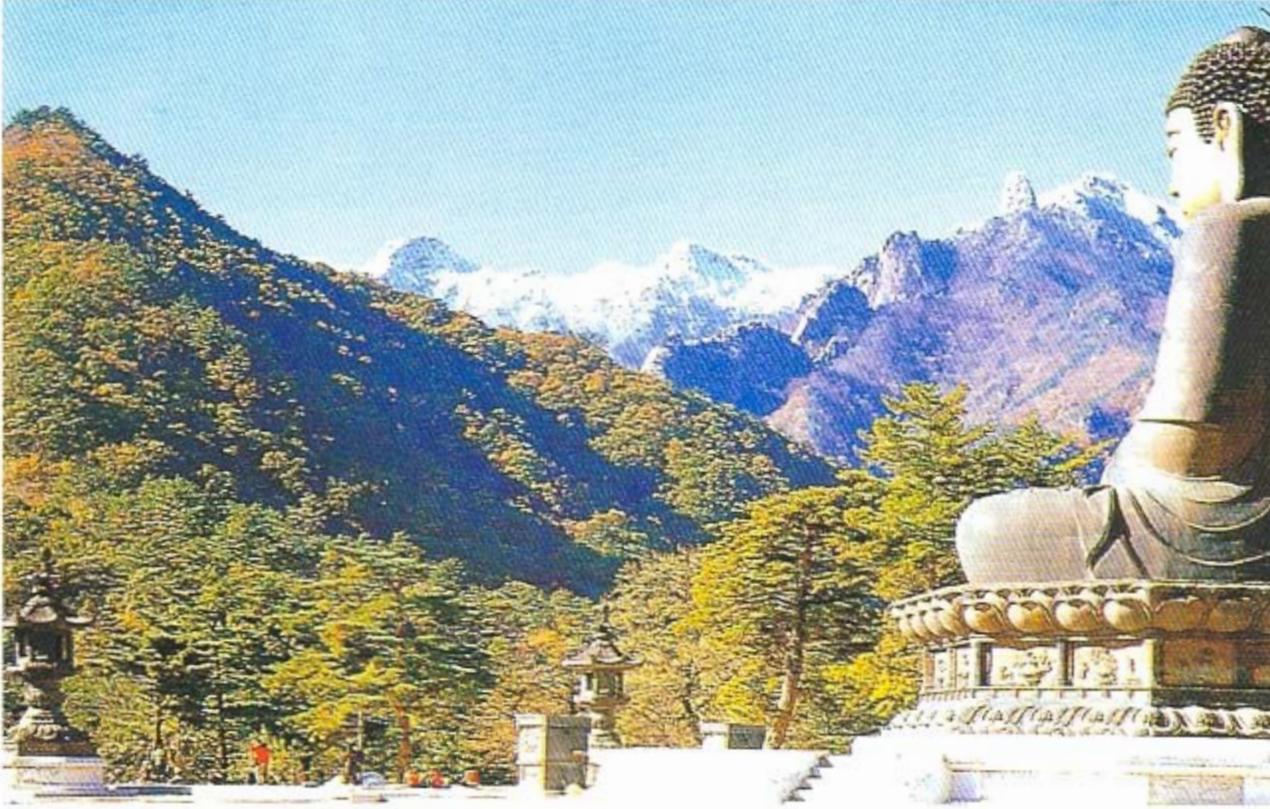
이 고장만의 특성에 약한 체질성은 문화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약체임을 말하는 것이리라. 이제 고장마다 축제가 펼쳐지는 관계로 특성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아가는 지향 없이는 그 고을 축제나 이 고을 축제나 '그게 그거다'라는 몰개성화의 다름아니다. 물론 서른다섯 번째를 오는 과정에서의 노력의 흔적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설악문화제라면 바로 그거야"가 없다는 것으로 그게 그거가 아니라 "그것뿐이야"가 없다는 말이다. 지속성이 없이 신상품 개발 전시회처럼 그때그때로 즉흥적인 즉 쇼맨적인 행사로 진열되는 나열성은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더 많이 변할수록 더 똑같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른 변화의 행사를 펼치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그게 그거로 똑같으냐는 것이다. '얇은 행사'가 아니라 두꺼운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전시민적인 고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35회 설악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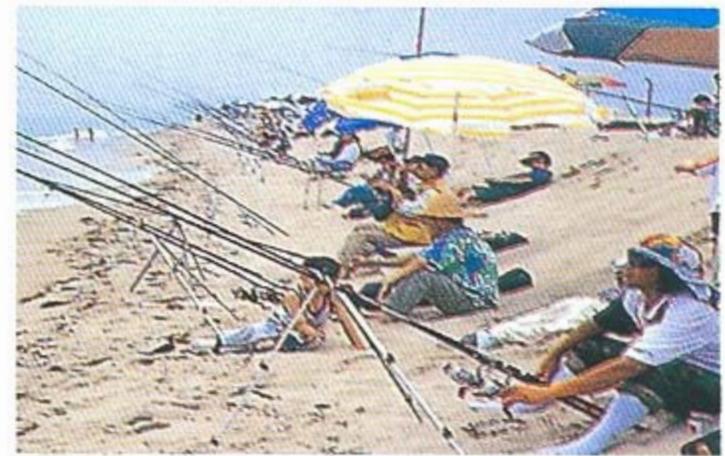


설악문화제



통일염원법회 설악산 국립공원안에 위치한 신흥사의 청동좌불상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청동좌불상 앞에서 통일을 기원하며 신흥사 신도와 관광객이 함께하는 통일염원법회는 한민족이면 누구나 하나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백두대간 종주산행 설악산 일원에서 치뤄지는 산행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안고 조침령, 북암령, 단목령 등을 거쳐 오색초등학교에 도착하는 산행입니다.





옛/문헌에서/찾은/속초/지명地名

"...수군 만호 수어처가 6곳이니...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으며, 배 3척에 군사가 210명이다."

* 《세종실록》 - 지리지 · 강원도 편.

지금까지 속초 지명이 기록된 문헌으로 가장 오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중에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 地理志〉

단종 2년(1454)에 정인지 등이 편찬한 사본 8책으로 각 도의 연혁 · 고적 · 물산物産 · 지세地勢 등을 각 방면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성종成宗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바탕이 된 문헌이다.

자세한 내용은 〈속초문화〉 제14호(1998) 51쪽 참고.

子仁川椒枳殼牡丹皮地骨皮桑白皮藥皮茯神安息香白膠香松脂之乾漆白
 從苓杏仁木通赤茯苓栝葉栝胎木方已楮葉桑寄生郁李仁桃仁人參苦參蒼朮
 前胡半夏黃耆括萎續斷澤蘭當歸蛇床子秦艽葛根天麻細辛牛膝藍藤薇
 靈仙苦楝地榆酸醬獨活升麻旱烏頭徐長卿白芍藥赤芍藥海藻山藥蓮子防風
 紫荷蘗白芨白欬白鮮皮白芷白朮白合鷲粟殼虎杖根金銀花旋覆花漏蘆商陸
 慈子茅香石菖蒲茵陳蒿本馬兜鈴大戟忍冬草京三稜紫胡昆布玄參赤箭
 何首烏苦蕒木賊天南星莒菘牽牛子覆盆子決明子車前子藜蘆石膏水沱石磁
 石赤石種養藥材惡實生地黃麻子黃葵子紫蘇黃芩白篇豆大黃黑豆粟欬荆芥

世宗實錄卷第二百五十三

二

薄荷鎮二三陟杆城 太祖六年丁丑始置鎮二鎮無 兵馬都節制使置司江陵府

都觀察使兼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在平海東 軍一 東草浦在襄陽北

江浦口在高城南 軍一 三陟浦在府東 軍二 守山浦在蔚珍

連谷浦在縣東 軍一 驛丞三人保安道丞所管驛二十 軍一

大昌道丞所管驛二十八 軍一

平陵道丞所管驛九



영랑호永郎湖와 옛 정자터亭子址

“영랑호는 고을 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30여 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간 작은 봉우리에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간성군조杆城郡條.

문헌상의 기록으로나마 아련하게 그려지는 상상의 세계,
 오늘에 되살리고 싶은 정자라고나 할까 - 사이버 공간에서나
 만나려는가 - 어느 세월에 세우고 어느 세월에 터만을 남겼는가.
 후세 알 길 없노라지만, 관광 속초를 생각하는 마음들이라면
 시민, 시 당국은 물론 오늘날 이 고장에 현양顯揚하는 이들,
 ‘온고지정溫故之情’으로 문헌상의 그 천년 세월을 뛰어 넘어
 우리의 유형문화유산으로 남겨 줄 문화적인 심상心相은 없겠는가
 물어야 한다.

* 중종中宗 5년(1530)에 이행李荇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增補한 것이며
 모두 55권 25책으로 되어 있다.

并通靈源湯泉温温似春鬼神呵樹無埃氣開說
勺沉刺夜輪以兩腋骨亦仙我今詩酒成膏育欲
江快雪仍痛游新增成倪詩玉寶陰火如款焚九龍
護開靈源漾烟霧漲巖曲一派齋佛蒼山根融
以暖氣如醉酒不勞驚金煉新煎深
以浴德有奇功不獨湯盤脫塵垢

杆城郡 東至海岸七里南至襄陽府界五十
六里西至麟蹄縣界八十里北至高

城郡界六十七里距
京都五百二十七里

豐沿革 本高句麗遼城郡一云加新羅

改守城郡高麗改今名降為縣置令後

陞為郡兼任高城恭讓王元年遷析為

二本朝因之**官負**郡守 訓導各一人

名 遼城 加羅忽 守城 水城

民 本郡 宋柳李張文 金李 咸 楊

尹春南英陰全旌張丹安堤孫海朴盈鄭

來烈山崔麻皇甫 金全 孫平 朴甫

林 蔚 珍

勝 西連鐵嶺 蔡建詩西連鐵嶺南至箕城

川 麻耆羅山 在郡西三十里 南山 在郡南五里 金剛

山 在郡西二十里 天吼山 在郡南七十里 五音山 在郡南十五里

山頂有池 古城山 在烈山縣北一里即縣於丘

山 在烈山縣西四里 所坡嶺 在郡西五十九里

克已詩雄奇少似石破嶺空峭巉岩橫紫翠鸞客

路幾紆直一帶蛇奔三百里屢看樹抄掛猿狖過認

林間藏虎兇何須更說蜀 彌時坡嶺 在郡西南八

道險校量未省誰難易 舊廢不行 咸宗二十四年以襄海 在郡東七里 仙遊

潭 郡南十一里許山麓周遭成谷谷中有潭曰仙遊

廢春則躡蹻挾巖亂發夏則專萊滿潭○安軸詩潭

上風煙盡淡濃依然似與故人逢也應嘆我恁恁過

却恐重來 永郎湖 在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

不見容 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安軸

詩平湖鏡面澄蒼波凝不流蘭舟縱所如泛泛隨輕

洲浩然發清興泝洄入深幽丹崖抱蒼石玉洞藏瓊

柔向晚欲回棹風煙千古愁古仙若可作於此從之

遊○暮雲半捲山如畫秋雨新晴水自波此地重來

難可必更聞船上一聲歌○李毅詩安相情懷黃鶴

月李生行止白鷗波重來此地藏難必空聽關東一

廣湖 在郡南四十五里永郎湖北十里許有烈

山 在烈山縣東二里有大湖周數十包跨陵

跡移搆山麓而舊縣沉在水底 竹島 在郡南二十

天晴波靜則牆屋依然可見

여기/속초가/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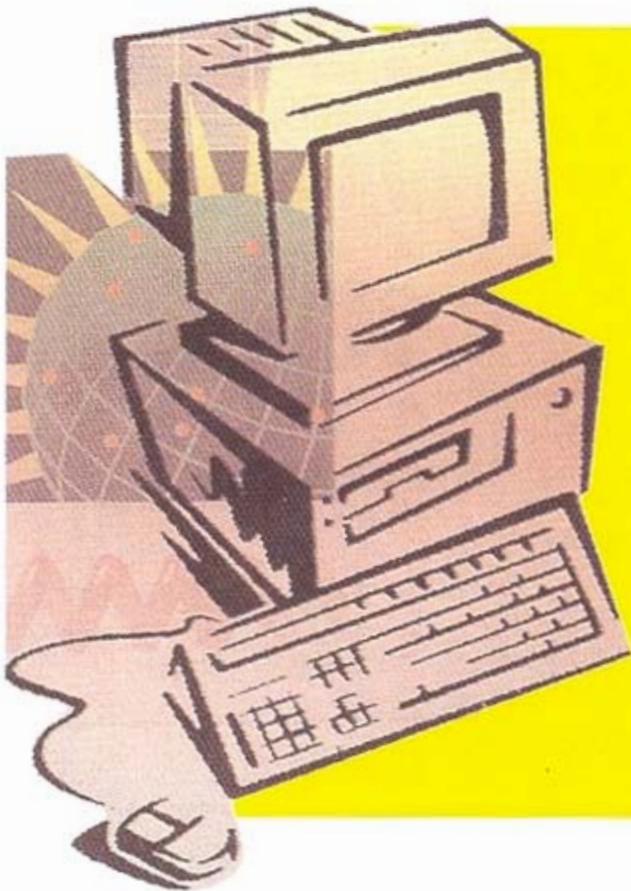


홈페이지 개설
속초문화원 sokcho-culture.com

방문하기

2000년 7월 1일, 정보도로망 개통

www.sokcho-culture.com



한눈에 보는 속초 문화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개설 sokcho-culture.com
세계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인터넷 세상에 접속하면
속초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확 차있는 컨텐츠 - 자연환경, 지리, 역사, 수산,
관광, 문화, 문화재, 동영상 등

속초문화원 홈페이지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정보의 바다에서 지역홍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2000

문화원 / 동서청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속초문화원 문화학교는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강좌명	요일 / 시간	사군자교실	금 / 11:30~13:30
장구교실(초급)	월·목 / 10:00~12:00	노래교실	화·금 / 14:00~16:00
장구교실(고급)	목 / 13:00~15:00	꽃꽂이교실	수 / 10:30~12:30
서예교실	화·금 / 09:30~11:30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무
료
수
강

접수기간 / 3. 11 ~ 3. 20
 접수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수강기간 / 3. 22 ~ 12. 24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문화원 전화 632-1231



△ 문방사우, 나와 일생을 같이 하란다. - 서예교실



△ 궁편에 궁체요, 열편에 열채라. - 장구교실

우리 속초문화원에서는 시민의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문화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문화학교를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 정다운 노래, 그리운 노래 보고 싶은 그 얼굴들 - 노래교실



△ 꽃의 조화, 그것은 새로운 미의 제2의 창조 - 꽃꽂이교실



△ 인생은 멋있게, 음식은 맛있게 - 요리교실



사진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효행 청소년 시상

14명(관내 초·중학교 각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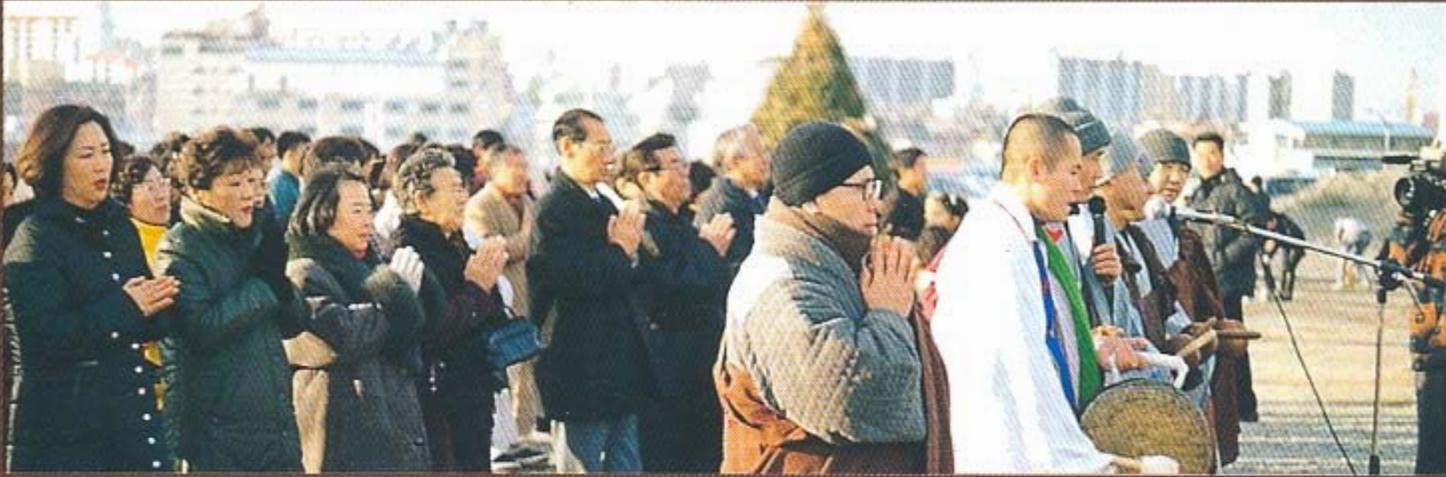
본원이 관내 초·중교생을 대상으로 효행 청소년에게 연례적으로 시상하고 있는 관례적인 행사의 하나로 올해도 효행에 모범이 되는 대상과 선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식장에서 재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랑 초교 이희은 어린이를 비롯한 14명에게 최용문 속초문화원장의 이름으로 상장과 상품이 전달되었다.

학 교 명	수 상 자	시상일
영랑초등학교	이 희 은	2월 16일
중앙초등학교	임 태 환	2월 17일
속초초등학교	장 하 린	2월 15일
교동초등학교	노 승 은	2월 17일
온정초등학교	유 소 라	2월 15일
청대초등학교	홍 화 용	2월 16일
조양초등학교	현 지 혜	2월 11일
청호초등학교	박 소 영	2월 18일
대포초등학교	김 유 리	2월 16일
설악초등학교	이 철 기	2월 18일
속초중학교	박 회 준	2월 15일
속초여자중학교	양 지 연	"
설악중학교	임 창 은	"
설악여자중학교	최 윤 화	"

하늘 아래 제일 귀한 것을 무엇이라 하였느냐.

제20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2000. 2. 19 14:00~18:00
속초시 엑스포장 북문주차장 부지



연날리기 <방패연 날리기(일반),
가오리연날리기(학생),
제작부문> : 수협
제기차기 <농고차기, 들고차기
- 일반부, 학생> : 새마을금고 연합회
널뛰기 <일반부, 학생부> : 농협
윷놀이 <단체전(3인1조)> : 신협(속초)
투호 <단체전(3인1조)> : 축협
인간장기(人間將棋)대회 : 속초문화원
용왕제/액집태우기 : 보광사
지신밟기 : 풍물패 갯마을
주최 : 속초문화원
주관 : 농협, 새마을금고 연합회,
수협, 신협(속초), 축협, 보광사,
풍물패 갯마당
후원 : 속초시, 속초교육청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하성호

제3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기념

2000 푸른음악회



테너/ 김창환 소프라노/ 오경선
 가수/ 주현미
 국악/ 이두영 전자바이올린/ 유진 박
 (각설이타령)

일시 : 2000년 6월 8일 20:30
 장소 : 엑스포행사장(청초호변 옆)
 주최 : 문화관광부 · 농협중앙회
 주관 : 속초시 · 속초문화원

PROGRAM

- 각설이타령
- Overture to Carmen (칼멘 서곡)
- Exodus Song (영광의 탈출)
- Moon Flower

2000년 푸른음악회

- 만남 Violin Concerto
- 무곡
- 내 마음의 강물
- 꽃구름 속에(입맞춤)

2000년 푸른음악회



경사로다 경사로다 우리 주부님네들 경사로다



강원도의 으뜸이라

속초문화원 주부풍물패 최우수상 수상

2000년 6월 21일 · 양구종합운동장

속초문화원 부설, '주부풍물패(대표/ 한명옥)'가 제5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문화원 연합회 강원도지회/ 주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6월 21일, 양구종합운동장에서 13개 팀이 출연하여 벌인 경연에서 그 기예는 단연 으뜸이었다. 이번 수상의 영예는 속초 주부들의 몫이다. 이 고장 주부들을 대표해서 한껏 예술품의 기량을 펼쳤다는 점에서 그렇다.

- 구성을 볼라치면 팽과리 하나에 징 하나, 장구 넷에 북 다섯 개로, 인적 구성이 주부들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풍물패 성장 가능성을 점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속성을 지향함에 있다. 심난한 각고 면려는 말할 것도 없으며 또한 뒤에서 받쳐 주는 일이 필수 관건이다. 언필칭 문화와 예술이란 얼핏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불꽃과 기름의 관계로 비유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지원에 따라 문화 예술이 타오르기도 하고 사그러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 결코 야생화는 아니다. 가꾸어야 곱게 자라는 난蘭과 같다고나 할까.

설악해맞이공원 야외 공연장

한여름 밤의 작은

Concert

7월 15일~10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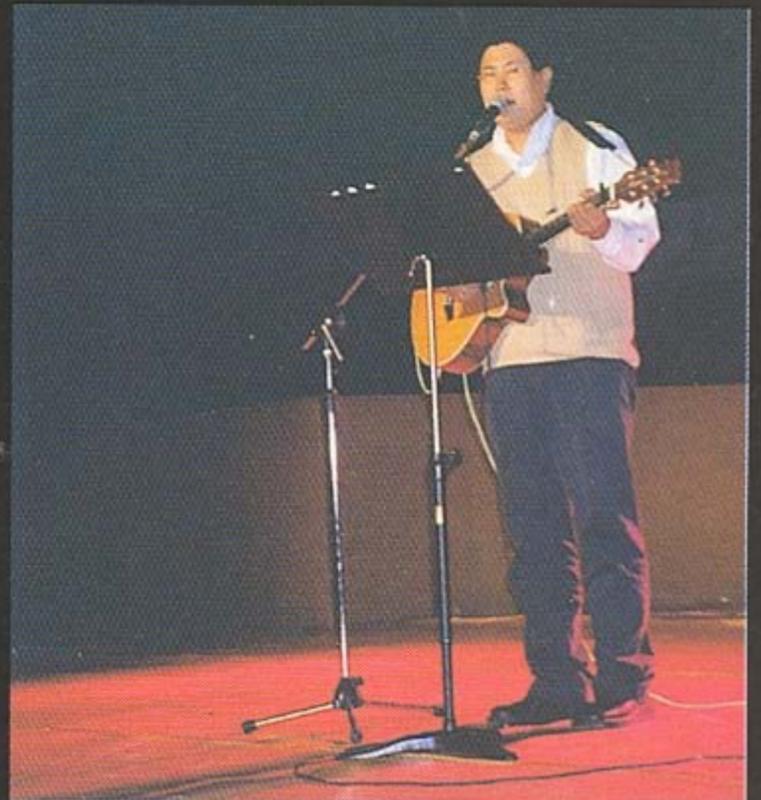
속초시 주최

속초문화원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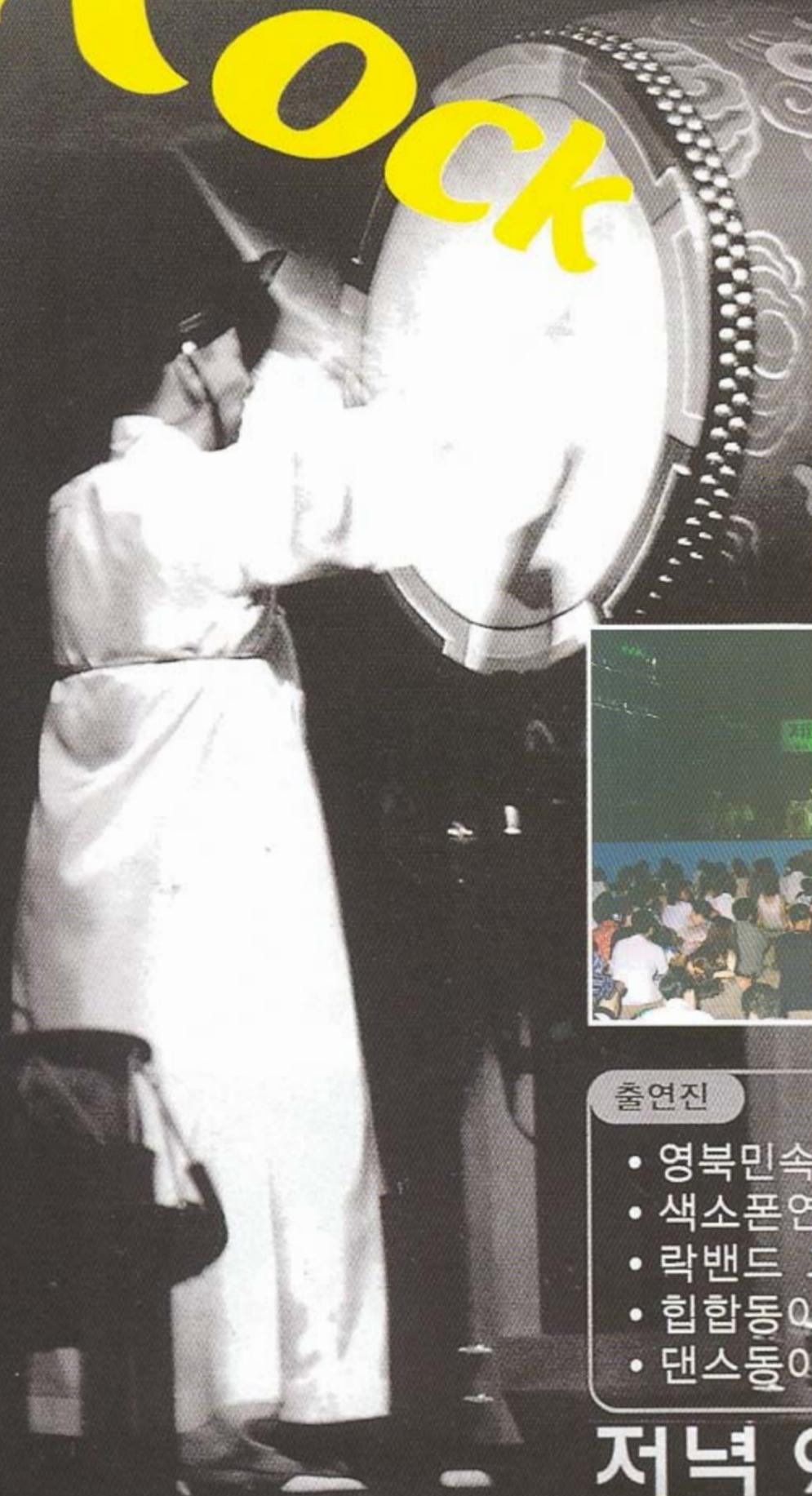
동문성 속초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콘서트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본원이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작은 콘서트' 7월 15일부터 설악산의 들머리이며 '속초 팔경' 중 하나인 '설악해맞이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가운데 열렸다. 매일 두 시간 동안 힙합댄스, 사물놀이, 통기타 연주, 색소폰 독주, 품바, 락 그룹 공연 등으로 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줌과 동시에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던 이번 콘서트는, 2001년을 기약하며 지난 10월 7일, 아쉬움 속에 그 끝을 맺었다.



제5회
시민큰잔치

Rock 樂



출연진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색소폰연주자 최승규
- 락밴드 고구려
- 힙합동아리 D·O·S
- 댄스동아리 P·O·S

저녁 9시~11시

2000년 7월 28일

• 주관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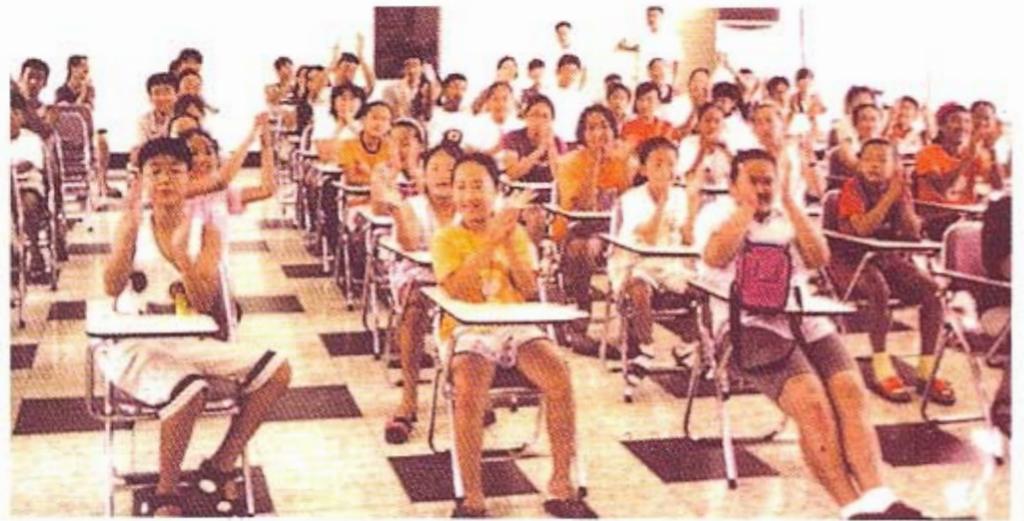
• 주최 : 속초문화원 후원 : 속초시, 강원문화재단 장소 : 속초해수욕장

2000



우리 소리, 우리의 가락을 익혀

7월 29일~8월 3일



속초문화원 주최/ 갯마당 주관/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 전통민속놀이 • 멀티비전 시청 • 향토자료관 관람(전통민속놀이감상) • 풍물놀이마당 • 풍물장단 배우기



청소년 한아름 교육



우리 문화와 함께하는 2000



청소년 한아름 교육

09:30~10:30

10:30~11:30

11:00~11:30

11:30~12:30

12:3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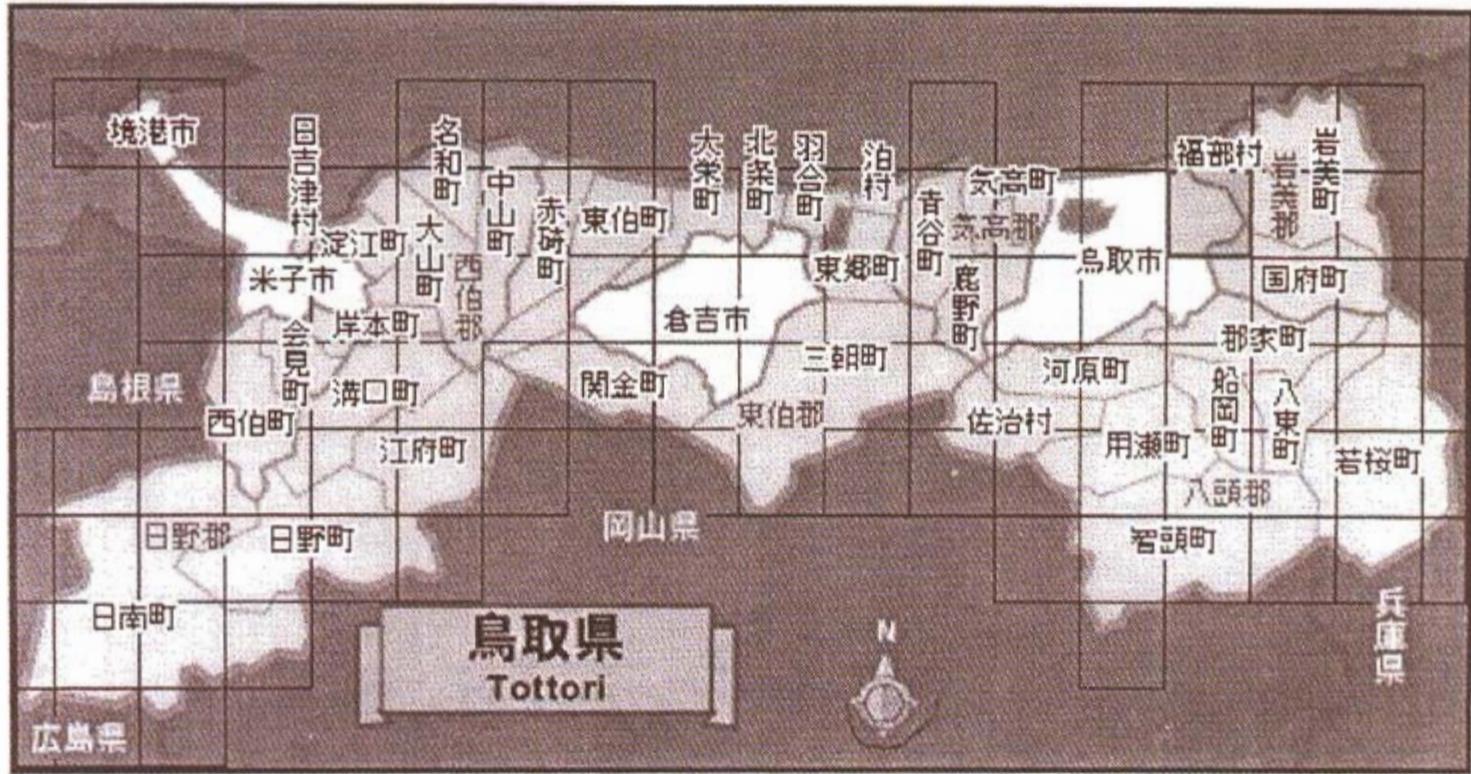
주최 : 속초문화원
후원 : 문화관광부



□ 교육실시 내용 : 관내 4개 중교 · 10개 초교 총 6,234명 교육(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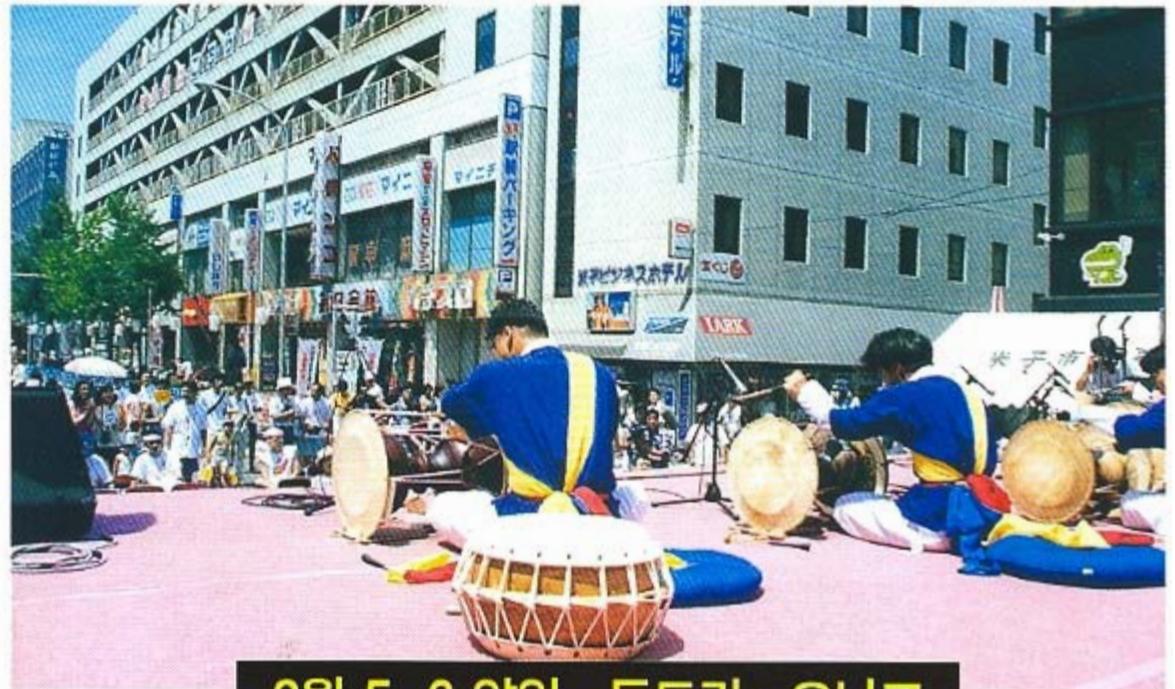
순번	교육일시	교육내용
1	2000. 5. 3 (10:00~12:30)	민속놀이, 전통놀이 감상 및 배우기 - 민속놀이 : 제기차기, 굴렁쇠, 투호, 줄넘기, 널뛰기 - 전통음악 감상 및 배우기 풍물놀이시연 : 사물놀이, 상모판굿 - 소고춤 시연 및 배우기
2	2000. 5. 11 (09:00~12:00)	"
3	2000. 5. 13 (10:00~13:00)	"
4	2000. 5. 16 (09:00~12:00)	"
5	2000. 5. 17 (09:00~12:00)	"
6	2000. 5. 31 (09:00~13:00)	"
월계	6회	
총누계	13회	





한국의 소리, 일본에 전한 '갯마당'

'갯마당' 이 거리를 가득 메운
'요나고' 시민들 앞에서
열연하고 있다.
- 돛토리현 요나고시에서



8월 5, 6 양일 = 돛토리 · 요나고

'갯마당' 공연 후에 '요나고'
시장市長이 "세상 처음 듣는
멋진 가락이다" 라며 자신의
소감을 말하고 있다.
- 돛토리현 요나고시에서



사진제공 = 속초시문화공보실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품

2000. 9. 29~30/ 횡성군 종합운동장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출연부문 : 놀이
작 품 명 :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출연인원 : 55명(남20, 여35)
소요시간 : 30분
고 증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지 도 자 : 빈순애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인간문화재)

연 출 : 주동진(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장려상 수상



출 품 작 내 용

작품유래

물치는 행정구역상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마을로서 예전에는 속초의 중심지역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어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았으며, 이곳 물치에서 행해지는 풍어제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풍어제는 3년에 한번씩 올려지며, 3일동안 12마당 굿을 펼치며 벌어진다. 용떡놀이는 용왕굿의 한 과정으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각기 젓상을 하나씩 용신에게 바친다. 이 젓상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용떡과 오방기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무녀들과 주민들은 이를 중심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서해안바다 용왕님네

당신은 무엇을 불귀졌나
동해안 바다고기 불러줬지
울고간다 우래고기 불귀주고
해망화 소망화 불귀졌지

명태 소명태 불귀졌지
이리가도 미나파
저리가도 미나파
밤밤 대추야



2000년 10월 1일 11:00~16:00



제35회 설악문화제 기념 · EXPO 행사장내 설악문화제 보조무대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 17개 학교 참가

초 등 부	중 · 고등부
용대 초등학교 (인제)	설악중학교(속초)
교동 초등학교 (속초)	속초상업고등학교(속초)
온정 초등학교 (속초)	대진초등학교(고성)
영랑 초등학교 (속초)	속초여자고등학교(속초)
회룡 초등학교 (양양)	속초고등학교(속초)
청대 초등학교 (속초)	동해중학교(동해)
천곡 초등학교 (동해)	속초여자중학교(속초)
교동 초등학교 (원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춘천)
	목호중학교(동해)

- 대상(강원도지사상)
- 금상(강원도교육감상)
- 은상(속초시장상)
- 동상(강원도속초교육장상)
- 장려상(속초문화원장상)
- 특별상(설악문화제위원장상)
- 지도자상(강원도교육감상)

- 원주 교동초등학교
- 회룡초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 용대초등학교, 목호초등학교
- 교동초등학교, 속초여자중학교
- 온정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동해중학교
- 천곡초등학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 교동초등학교 김말순

문화 유적을 찾아서

정약용 선생의 고향 마을 마현/ 국치의 현장 남한산성/ 한반도의 습통 강화도
10월 24일~25일/ 문화가족 90여 명



남한산성/ 수어장대(경기도 지방유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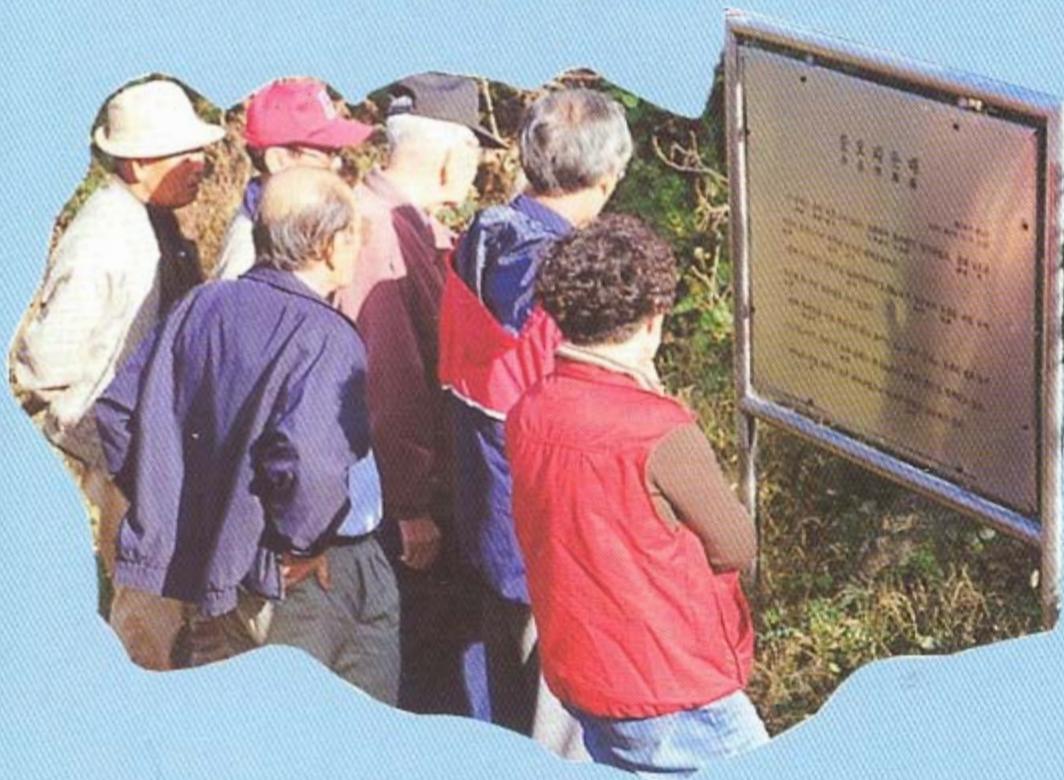
해마다 정례적으로 떠나는 문화가족의 문화유산 답사는
가슴 설레임이 있기 마련이다.
명암이 엇갈리는 - 그곳으로
실학의 대가 정약용 丁若鏞(영조38 · 1762~현종2년 · 1836)
선생의 생가 마현馬峴.

3대 대첩의 하나 권을 장군의 대승 행주산성幸州山城,
치욕의 삼전도비三田渡碑, 남한산성南漢山城,
술한 외세의 침략을 온몸으로 부딪친 강화도江華島로
답사 가닥이 잡혔지만 시간과 곳은 날씨 탓으로
'삼전도비'와 '행주산성'은 아쉽게 놓쳤다.
부득이 강화도 일원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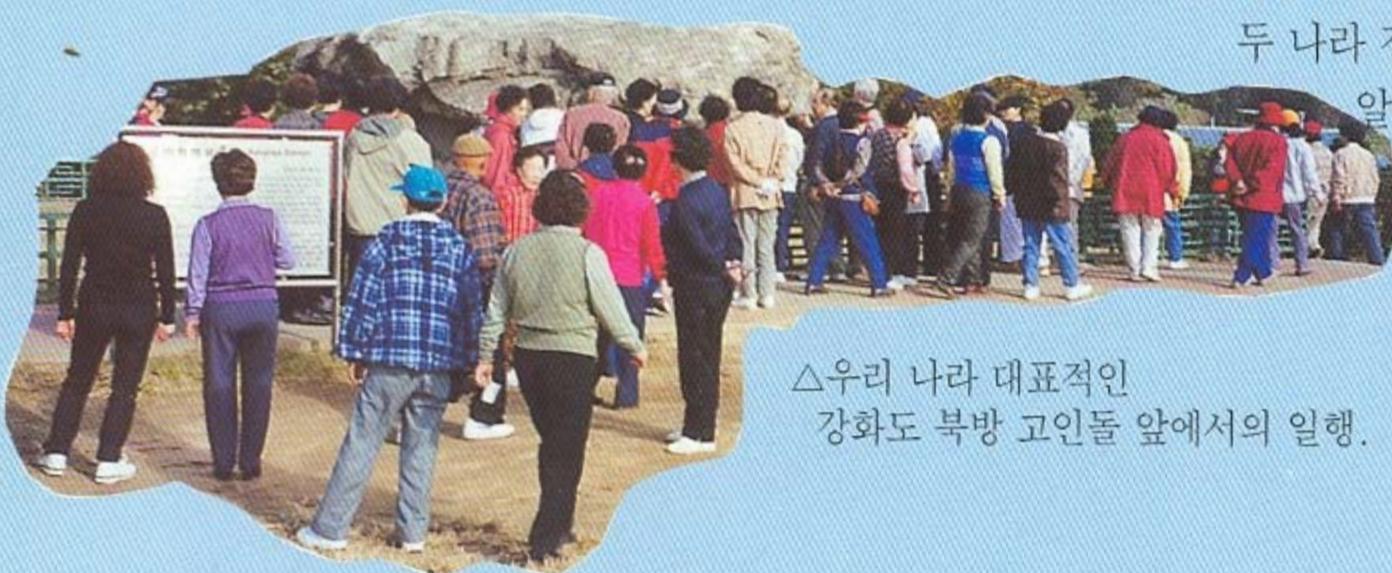
1박 2일의 일정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빠듯한 것이었다.



△남양주 마재 다산문화관에서 원로 일행.



△강화도 분오리돈대 안내판 앞에서 일행.



△우리 나라 대표적인
강화도 북방 고인돌 앞에서의 일행.

최용문 원장의 인솔 아래
뉴통일관광버스 두 대에 분승한
문화 대가족은 강화도 가는 길에 들르는
답사 1번지로 남양주 마재, 다산의 고향 마을로
18년의 강진 유배 끝에 고향에 돌아와
유유자적하게 남은 삶을 즐기다가
이곳에서 생을 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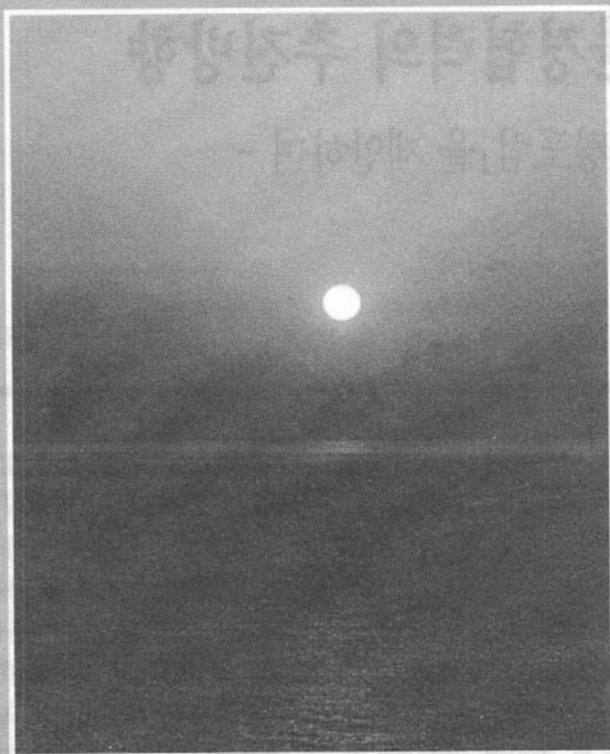
'90년도에 새로 조성한 유적지로
지금은 젊은이들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는 풍광이 또한 일품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수습水머리로
여름철이면 수상스키가 성행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두번째로 들르는 곳이

남한산성, 병자호란의 치욕이
'삼전도비'와 함께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성곽 곳곳에 남겨진
오욕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땅에 사는 뜻을 되새겨 주고
있음직하다. 세번째로 강화도,
이 나라에서 다섯번째 크기의 섬,

병인양요(고종3년 · 1866
신미양요 고종8년 · 1871) 등
외세의 침략을 온몸으로 부딪친
치열한 역사가 숨쉬고 있는 섬이다.

더욱 새로운 것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약탈한 규장각 도서를
두 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에야 넘겨 줄
뜻을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 대회에서 2001년까지 반환키로
두 나라 정상끼리 합의를 보았다.

알고 떠나는 문화유산답사
- 그곳에 역사가 있다.



기획특집

-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 「남북환경포럼」을 제안하며
- 속초시 축제의 발전방향
- 강원관광 발전에 따른 속초의 대응
- 북한의 언어교육
- 아동문학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 「남북환경포럼」을 제안하며 -



손기웅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15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환경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표명함에 따라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환경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향후 남북환경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북환경협력의 의의

금년 6월에 개최되었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 정부 이전의 남북관계는 남북이 이념,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상호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적대적 대결”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적대적인 대결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교류·협력이 형성되는 “적대적 협력의 초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국가적 과제는 막 움트기 시작한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과 규모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도 남북이 교류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평화적 공존”으로 진입하는 일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소망스런 남북관계의 진전구도를 일거에 앞당겨 남북이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는 물론 정치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단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정책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남북 평화적 공존관계가 반석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환경분야는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주민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와 한반도 생태계에도 이익이 되는,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내용을 넓히고 질을 높이는 실천적인 무대가 될 수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사회적 혼

란은 오늘날 전 지구적 문제이며, 남북한도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다.

극심한 산림파괴, 두만강 및 압록강의 오염 등으로 환경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북한에서 경제가 회생되어 산업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에는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우리에게 있어서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물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개선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이념·체제간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통의 삶의 터전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분야이다. 동일한 생태공간, 생태축으로 연결된 한반도에 있어서 환경문제 해결의 노력이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될 경우 그 환경적 효과는 크게 증진될 수 있다. 결국 환경분야는 상호이익의 바탕위에 남북한이 교류·협력의 접촉점·접촉선·접촉면·접촉공간을 확대하여 평화적 공존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2.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향

가. 「남북환경포럼」의 구성

남북환경교류·협력은 단계적으로, 단·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성있는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교류·협력에 대한 남북의 상호관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수준, 남북한 정치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교류·협력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환경교류·협력을 준비하며,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환경교류·협력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남북환경포럼」(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환경포럼」의 구체적

인 구성 및 기구안은 <별첨1>, <별첨2>와 같다. 「남북환경포럼」이 출범하면 여기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여 명실공히 남북한이 참여하는 「남북환경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남북환경포럼」을 중심으로 혹은 별개로 민간차원, 정부차원, 반민·반관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추진하되, 이러한 환경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자문·홍보하며, 활성화하기 위한 대화의 무대로 「남북환경포럼」을 활용한다. 나아가 「남북환경포럼」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분단된 한반도 환경을 하나로 회복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한반도환경공동체선언」(가칭)의 채택을 논의한다. 「한반도환경공동체선언」에는 향후 남북환경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남북환경의제21」(가칭)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환경부장관과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상간에 정례적인 「남북환경장관회의」(가칭)의 개최를 성사시켜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제도화·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때 「남북환경포럼」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 교류·협력의 분야선정

남북 환경교류·협력은 현실적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이 좀 더 실현성이 있고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분야에서 선별되어야 한다. 「남북환경포럼」을 중심으로 혹은 별개로 추진될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분야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호·개선 효과이다. 교류·협력 사업은 무엇보다 단·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환경보호·개선의 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의 기여이다. 환

경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맞물려 있는 남북한의 현실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이 양자를 동시에 수용할수록 더욱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단계에서는 환경보호·개선만을 위한 남북 환경교류·협력 보다는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과 에너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환경보호·개선도 도모할 수 있는 교류·협력방향이 더 큰 실천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지식의 파급효과, 환경기술의 확산효과가 경제개발에 기여할수록, 환경관리능력의 향상이 경제관리능력의 향상에 연결될수록 더욱 바람직하다. 물론 남북 경제교류·협력에서는 경제지식의 파급효과, 과학·기술의 확산효과가 환경보호·개선에 기여하며, 경제관리능력의 향상이 환경관리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효율성이다. 교류·협력사업에 투하된 비용, 시간, 정치적 의지에 비례하여 환경보호·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순효과가 “비용-목표”(Cost - Goal)란 측면에서, “비용-효과”(Cost - Benefit)란 측면에서 클수록 교류·협력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협력사업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사업보다 비용이 절감되며 목표의 달성도도 높아질 것이다. 협력사업이 문서화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수록, 현재 남북한이 각자 관련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노력을 최대한 결집하고 통합시킬 수 있을수록 효율성은 증가할 것이다.

넷째, 실행가능성이다. 교류·협력사업은 재정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으로 실행가능하여야 한다. 아무리 교류·협력사업이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면 실행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교류·협력사업이 국가의 정치적 영역을 침범할 경우, 문화적 상이성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제도 및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할 경

우에도 실행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 관련 남북 교류·협력의 경우에는 협력사업이 남북이, 특히 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포괄성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추진될수록, 교류·협력의 결과 발생하는 혜택이 상호간에 조화롭게 배분될수록 사업의 실행가능성은 커진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능한 자료·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그 가운데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하고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에서 설령 우리보다 북한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류·협력은 상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산림조성을 통해 홍수방지, 생태계 복구, 공업·발전·관개용수 확보 등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는 필요 용재 및 대기오염(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북한의 대기오염 저감, 에너지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는 관련 기업을 진출시키고 대기오염 감소분 만큼의 대기오염(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증가성이다. 교류·협력사업이 단계적으로 협력을 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능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협력의 초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식·기술의 습득과 신뢰구축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교류·협력에 필요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첨가·수정되고, 관심이 부가되어 쌍방간의 이해가 더욱 커질수록 교류·협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일곱째, 재정조달가능성이다.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이 기존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재정지원기관의 요강에 부합할수록, 사업을 통한 효과가 매우 커서 제3국의 국제기구·단체가 기꺼이 재정부담을 할 수 있을수록 실현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이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 환경교류·협력에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자원재활용, 폐기물처리, 산림녹화, 생물다양성 공동보전(특히 설악산-금강산지역), 임진강 공동치수, 환경정보·자료·기술교환, 환경전문가 교류 등이 우선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 교류·협력의 내용

이상과 같은 고려에 의해 선정되어질 남북 환경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인적 교류이다.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인적 접촉을 통해 환경보호·개선관련 상호의 성과와 한계,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분야 및 내용, 서로가 가능한 분야 및 내용에 관한 의견 교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 교류의 경우에는 환경전문가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자료·정보 교환이다. 환경정책, 환경실태, 환경기술, 환경인력 등과 관련한 상호의 자료·정보를 교환한다. 현재 국내·외 최신의 환경관련 자료·정보가 북한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북한에 제공한다.

셋째, 기술 교류·지원이다.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환경기술을 교류한다. 필요할 경우 북한에 환경관련 기술을 제공하며, 이 경우에는 가능한 인적 교류가 병행 추진되어 방문이나 체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한다. 기술교류에 앞서 상호 환경기술분야 관심과 수준에 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기술교류에 앞서 상호 환경기술분야 관심과 수준에 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경우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여러 논문집들에 실린 환경 관련 논문들을 국내의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한다. 이를 개선·발전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신기술과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그 내용을 서면화해서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들간 협의체를 구성(인력 풀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환경포럼」의 발족시 이를 활용한다.

넷째, 장비 지원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사업에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다섯째, 재정 지원이다. 남북 환경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재정은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의 경제여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부담분 가운데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내·외적 차원에서 조달한다.

여섯째, 환경실태 공동조사이다. 민간 환경교류·협력의 추진과정에서 전문가·학자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남북환경실태에 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에는 관련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파견원도 포함될 수 있다. 공동조사는 남북한대표가 각각 따로 포함되는 두개의 조사단이 남북 각각의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과 남북대표가 함께 포함되는 하나의 조사단이 남북한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남북환경협력의 분위기 전개에 따라 전자의 방법에서 후자의 방법으로 성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환경포럼」이 출범할 경우 공동조사를 총괄한다.

이상의 내용을 가진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제도화·체계화·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환경통합을 준비하도록 한다.

〈별첨1〉 「남북환경포럼」 구성(안)

〈필요성〉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구성〉

○ 민간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구성

- 민간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간 협의통로 확보
- 북한의 참여 유도

〈기능〉

- 민간 사회단체간 협의·정보교류
- 민간 사회단체 - 정부부처·산하기관간 협의
- 환경교류·협력사업 추진
- 국제적 연대활동 추진

〈조직〉

○ 「남북환경포럼」은 총회, 이사회, 임원, 분과위원회, 환경자료정보센터, 사무국으로 구성

- 총회 : 남북 환경교류·협력 관련 민간 사회단체, 전문가를 회원으로 구성
 - 관심있는 정부부처·산하기관도 참여
- 이사회 : 다수의 사회지도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임원 :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환경자료정보센터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 총회 산하에 기능별로 교류·협력, 연구·자문, 후원·홍보 등 3개분과 설치
- 환경자료정보센터 : 남북의 환경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배포
- 사무국 : 총회·이사회·분과위원회 결정사항 실행

〈재정〉

○ 참여 회원의 회비, 기부금, 정부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남북환경포럼」 출범시의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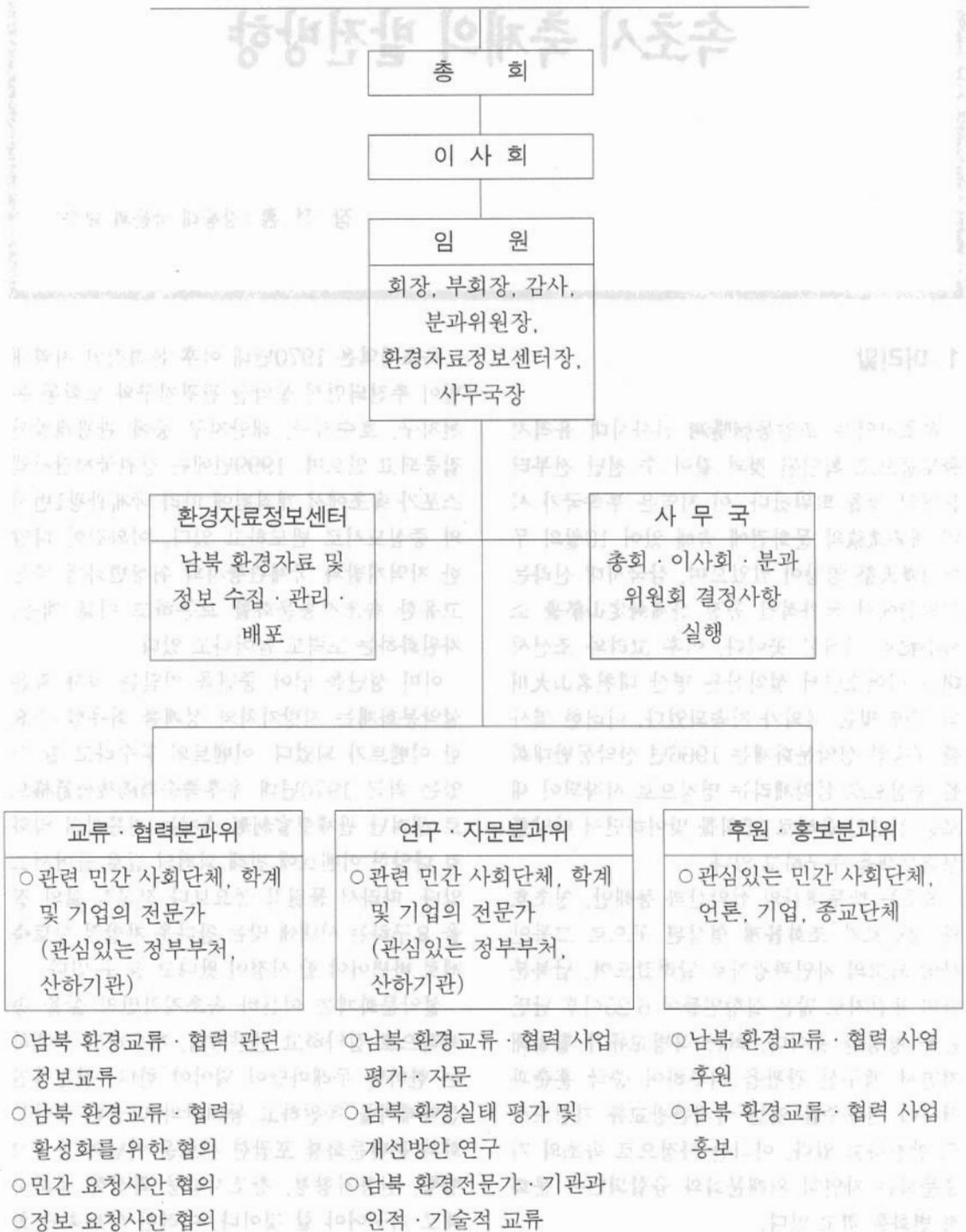
○ 남북 환경교류·협력 관련 토론회 개최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 시의성 강조
- 「남북환경포럼」 조직 분위기 조성
- 「남북환경포럼」의 운영방안 논의
 - 관심있는 정부부처·산하기관도 참여

○ 남북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 모색

○ 적절한 시기에 「남북환경포럼」 명의로 북한에 남북 환경교류·협력 제의

〈별첨2〉 「남북환경포럼」 기구(안)



속초시 축제의 발전방향

장 정 룡 (강릉대 국문과 교수)

1. 머리말

속초지역은 조양동朝陽洞 선사시대 유적지 출토품으로 확인된 것과 같이 수 천년 전부터 문명의 싹을 틔워왔다. 이 지역은 부족국가 시대 예족濊族의 문화권에 속해 있어 10월의 무천제舞天祭 영향이 있었으며, 삼국시대 신라는 설악산에서 국가적인 봉정 산제封定山祭를 소사小祀로 치제한 곳이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이어오면서 설악산은 명산 대천名山大川의 격에 맞는 제의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계승한 설악문화제는 1966년 산악등반대회를 중심으로 설악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새로운 천년인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성격모색을 추구하고 있다.

속초는 백두대간의 설악산과 동해안, 청초호와 영랑호가 조화롭게 형성된 곳으로 그동안 한국 최고의 자연관광지로 알려졌으며, 남북분단의 체감지로 많은 실향민들이 6.25이후 난민촌을 형성한 곳이다. 최근 북방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백두산 관광을 비롯하여 중국 훈춘과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국제관광교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속초의 기층문화는 자연히 외래문화와 융합되면서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속초지역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역개발이 추진되면서 설악산 관광지구와 노학동 온천지구, 호수지구, 해안지구 등에 관광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며, 1999년에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속초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관광1번지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지역개발과 국제관광지의 위상변화에 따른 고유한 속초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계승, 자원화하는 노력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성년을 넘어 중년을 치닫는 역사 깊은 설악문화제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다. 이벤트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최근 1970년대 우후죽순격雨後竹筍格으로 생겨난 관제형官制形 축제는 전통성의 약화로 다양한 이벤트에 반해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삶의 질을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참다운 자발적 향토축제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다.

설악문화제는 이른바 속초지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선양하며, 계승하고 창조하는 한마당 두레마당이 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산악제의를 복원하고 동해안의 다양한 해양문화와 분단문화를 포괄한 새로운 이념의 통일지향형, 전통지향형, 창조지향형 특성화 문화축제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향토축제 활

성화와 발전은 속초지역 문화운동의 핵심으로 '속초지역만들기'의 본보기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설악문화제의 특성화 전략은 산신제의 복원과 계승을 통해 제의적 원초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지역성을 반영한 해양과 호수문화를 수용하고, 지정학적 위치에 맞는 환동해권 문화교류 센터로서 국제축제로 확대해야 하며, 남북통일지향 축제로서 실향민의 아픔을 다독거리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속초의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층문화를 재발견하고 발굴 평가하고 정착 계승시키는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속초의 설악문화제는 과거 산악인의 축제 성격에서 1996년부터 이른바 속초문화를 한데 모은 종합문화제로 확대되면서 지역문화의 토착화에 속초문화의 재창조를 추구하고 있으며, 역사성과 향토색이 짙은 축제문화를 통해 주민 자긍심 제고와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계승, 관광자원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서 환동해권해양축제, 실향민문화엑스포 등 국제적인 시야와 한민족통합의 회원을 성취하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공여부가 주목된다.

2. 속초시 축제 및 이벤트 개관

향토축제는 오랫동안 지역에 전승되어 주민들에게 계승되고 지속적으로 창안된 전통축제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어 계승된 문화행위이다. 그러므로 대중적 가치관, 민주적 가치관, 생산적 가치관, 공생적 가치관, 공감적 가치관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한 행사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획되는 이벤트 행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요즘에는 향토축제를 이벤트의 특별행사로 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향토축제는 전통성과 제의성, 신성성, 교훈성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축제는 비종교적 제의성과 예술유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과 놀이, 생산과 유희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상호보완하며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일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으로 고리로서 상호보완하며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일하는 인간에게 놀이하는 인간으로 환치하며 즐거운 흥분과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신나는 마당이기에 자발성과 목적성, 규칙성, 비밀상성의 성격을 내포한다.

향토축제는 지역성을 근간으로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과 노동에서 일정기간동안 벗어나 풍요를 기원하며 춤과 노래, 놀이, 일탈을 통해 자연스런 감정을 발산하며 잠시라도 성스러운 세계에 들어가는 원초로의 회귀를 추구하게 된다. 아울러 이원적 가치를 융합시켜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풀고 '우리'라는 공동의 유대로 결집시킨다.

속초시에는 2건의 축제와 3건의 관광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언급될 설악문화제와 설악눈꽃축제 그리고 설악우리꽃전시회, 설악트라이에슬론대회, 설악국제챌린지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속초시에서는 기존의 전시성, 형식적 이벤트를 정비하여 문화예술의 발전, 관광산업활성화, 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계절별 대표축제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봄철 축제로 5월 해양의 날을 기해 환동해권 국제해양관광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여름철에는 여름레저대축제, 가을철에는 설악문화제와 연계한 실향민문화엑스포, 겨울철에는 설악눈꽃축제를 참여형 이벤트로 프로그램화하여 국내관광객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고로 2001년 이벤트로 검토되는 행사는 2월 신년해맞이축제, 4월 온천과 벚꽃축제, 5월 ~10월 설악작은콘서트, 7월 영랑축전, 8월 오징어맨손잡기축제 등이 있다.

새천년 제35회 설악문화제는 산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장과 국립공원 설악산, 문화회관 등에서 펼쳐졌다. 10만 속초시민의 화합의 장이 된 설악문화제는 산악과 해양, 실향민문화를 부각시켜 거리문화축전, 놀이문화축전을 대폭 확대했고 볼거리를 다양화하였다. 권금성 봉화대에서 칠선녀들에 의해 성화를 채화하여 산악인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산악인 한마음 잔치, 산악장비전시회, 설악산소공원 산신제와 설악대제, 실향민을 위한 통일염원제가 열렸다. 예술부문은 설악예술축전이 열렸고, 해양문화축전, 향토민속축전, 거리문화축전, 놀이문화축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으로 택견, 남사당 풍물, 줄타기 등 모두 55개 행사가 개최되었다.

3. 속초 향토축제 특성화 발전방안

속초지역 축제 및 이벤트에 관한 관심은 속초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맞물려 최근들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20일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지역축제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장세호), 관광객의 식성향과 행락행태(강환영), 국제화시대의 지역축제 발전전략(사득환), 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오갑진)이 발표되었다. 이후 21세기를 지향한 속초시 관광이벤트 전략(함석중), 속초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계획(책임연구원 : 장정룡, 연구원 : 함석중, 양연석, 허중욱) 등이 성과물로 나왔다.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계획은 속초시를 국제관광교역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관광화, 관광의 문화화, 교류의 세계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세기 대응, 문화관광 다양화, 자연관광 보완, 향토문화 선양, 지역정체성 확립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속초 초이스 에이스 전략이 중심이다.

여기에는 속초팔경 상품화, 실향민문화 창조화, 축제자원 활성화, 전통문화 산업화, 향토예술 가치화를 목표로 호수유람권역, 해양체험권역, 산악휴양권역, 불교탐방권역, 관광타운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예시하였다.

그동안 논의된 결과로 속초지역 축제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시민과 관광객 참여의 부족, 축제장소 선정과 마케팅부족, 운영기구의 전문성 취약, 재원부족 및 홍보의 한계, 질서대책 및 안전사고 대응미흡 등이며, 단기적 대책으로 프로그램의 개선과 보완, 기구의 민간전문화, 철저한 준비, 지역경제 효과제고, 관광벨트화 구축, 참여형 축제개발, 외국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적극적 마케팅과 효율적인 사이버 마케팅, 민관공동추진 방식적용, CI수립, 관광공연단지개발, 인근축제와 연계 투어 페스티벌 추진, 엔터테인먼트요소 개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캘린더 및 가이드북제작, 브레인스토밍그룹 조직 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문기구의 상설화, 상설 이벤트장 확보, 지역 관광상품화 추진, 사계절 관광지화 등의 제안과 대책이 나왔다.

속초시의 대표축제인 설악문화제를 시기별로 나누면 ① 산악제 중심시기(1회~15회) ② 종합축제화시기(16회~19회) ③ 민간주도정착기(20회~29회) ④ 특성화모색기(30회~34회) ⑤ 세계화 전략추기기(35회)로 나눌 수 있다. 설악문화제는 처음 개최된 1966년에는 산악제 중심으로 지속되었고, 16회부터 이른바 종합형 축제로 바뀌었으며, 18회부터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되었으나 선명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가을철 산악축제나 시민위안 축제, 형식적 동네잔치에 머물렀다. 그동안 35회를 진행하면서 행사의 중심종목부재, 축제성격의 미흡, 행사 주도세력부재, 향토특성약화, 이론적 근거미흡, 행사장소 분산 등이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설악문화제의 특성화 전략은 신라 이래 전통적으로 행해진 산악제와의 복원과 계승을 통해 제의적 원초성을 확보하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지역성을 반영한 남북한 통일이념으로 축제를 승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정학적 위치에서 환동해권 시대의 문화교류 센터로 축제를 중요한 유인요건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악문화제의 특성화 방안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산신제의 복원과 계승

설악문화제는 일찍이 신라 때부터 행해진 국가적 제의로서 강원도내에는 태백산 천제에서 중사中祀를 지내고 설악산에서 소사를 지낸 것으로 기록상 나타난다. 고려 인종때 김부식(1075~1151)이 쓴 《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권1, 제사조에 의하면 삼산 오악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대사, 중사, 소사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당시 고성군 상악霜岳(금강)과 수성군 설악雪岳이 소사로 포함되었다. 이것으로 보면 봉정산제封定山祭인 소사小祀로서 설악산에서는 정기적인 국가제의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봉정산제는 관에서 제향을 주관함은 물론 나라에서 향축香祝을 내리는 제향이다.

설악산신제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되는데 첫째는 강원도내에서는 태백의 중사와 더불어 현존 문헌상 신라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제의라는 점이고, 둘째는 국가에서 제례를 거행한 봉정제향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영동의

진산鎭山인 설악산악제를 통해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진산은 한국인의 숭산의식崇山意識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주산主山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의지'와 '안정'의 뜻을 담고 있어서 지역의 무사안녕과 생활의 안정, 정성의 결집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는 삼국 통일 기원의 의지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남북통일의 화해기운이 퍼지고 있는 이때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산악제로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61, 예고8, 제단1, 악해독산천조岳海瀆山川條에 의하면 봉정의 산천제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중소사의 등제等第를 매겨 국가에서 향사享祀하였으며, 그 역사가 삼국이전부터 나타난다. 신라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는 동안 설악산신을 비롯한 동해신 등 명산대천의 제사는 지속되었으나 중사나 소사의 예식은 다소 흐트러졌다.

설악산은 옛 기록 설산 또는 설화산에서 비롯되어 진산 또는 신산神山으로 신성시되었다. 물론 바위의 색이 회고, 눈이 오랫동안 녹지않아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나, 그것보다는 심성적 자연신앙으로 산악신앙의 뿌리 깊은 근원에서 연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은 그 위치가 태백산맥 북쪽에 있어 북쪽은 금강, 남쪽은 오대산을 거쳐 차령과 소백산으로 통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토의 중간지점이며 백두대간의 중심이다. 고려 충렬왕 때 사람 안축安軸(1287~1348)의 <관동별곡>에도 설악의 절경과 영랑호에 대한 글이 들었으며, 노사신盧思愼(1417~1489)이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간성조 영랑호에 화랑들이 오유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권금성의 축성설화를 적고 있다. 또한 송강 정철鄭澈(1563~1593)의 <관동별곡>과 이증환李重煥(1670~1752)의 <택리지擇里誌>에도 설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설악산이 소사로 치제된 것을 보면 《5예의五禮儀》의 절차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사는 중추와 중추에 지냈고, 헌관은 지방수령이 행하는 제의와 같은 격이라 하겠다. 설악산신제의 치제 장소를 확인할 수 없으나 권금성과 연관을 맺는다면 산성을 쌓아 지역수호와 주민보호, 나아가 통일대업의 기치를 올린 곳으로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낙산사기洛山寺記》에 의하면 고려 현종 2년(1011)에 거란병이 침입하므로 설악산 동쪽東麓에 성을 쌓고 수호했다는 기록으로 축성이 확인되고 축성형태나 방법, 봉화대, 제단 등의 흔적이 현재 발견된다.

설악산신제는 신라때 복색과 제물 진설을 복원하여 제의적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신라의 삼국통일 대업을 기원했던 것과 같이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제의로 발전승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산신제의 전통을 잇는 것은 설악제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역사민속학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며 국가적 봉정산제를 계승하여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남북통일 이념의 승화

권금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토수호의 현장이다. 이곳에서 설악산신 영신제와 함께 남북통일기원제를 지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속초가 분단의 현장이며 많은 실향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설악문화제가 마련된다는 것은 시대적 의미가 담긴다. 통일기원제와 함께 성화를 채화하여 설악동 광장 산악인의 문앞 광장에 점화하여 행사기간 동안 밝힘으로써 설악을 찾는 관광객의 무사행로를 기원하며, 수복탑 앞에는 통일기원 돌탑을 환동해권 국가와 전국의 돌을 가지고 와서 통일기원 돌탑쌓기 행사를 개최하여 통일이념으로 승화한다. 아울러

북한예술단 초청공연과 분단주제 연극공연, 통일기원 산상무용제 등을 개최한다.

3) 환동해문화교류장 활용

설악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기간 중 속초시의 자매도시의 관광객을 초청하고 동해권 인접국가 단체장, 관광종사자를 불러들여 환동해문화교류장으로 향토축제를 활용한다.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북한 등 환동해권 토산품 전시회, 환동해권 지방장관 및 문화단체 초청공연, 환동해문화영화상영과 민속공연, 환동해교류민속촌 조성 등으로 환동해권의 대표축제를 추구하고.

4) 실향민 문화의 결집과 재창조

통일부, 이북 5도청과 속초지역 이북지역 군민회 후원과 협조를 얻어 이북5도민 민속놀이 잔치를 개최한다. 북청사자놀이, 황해도 도당굿 등 여러 북한민속을 통해 실향민의 고통을 위무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진다. 북한민속놀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청호동 실향민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북한지역 민속을 총체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교육자료화, 특성화 자원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북한말 사투리대회, 북한 음식전, 수복탑 실향민 만남의 광장조성, 실향민 위안의 전통가요제를 개최한다.

5) 기층문화의 재현과 정착

다양한 놀이문화의 개발을 위해 속초의 특징인 호수를 이용한 영랑호 화랑이벤트, 청초호 띄배 불꽃놀이, 논피호 불꽃놀이, 청룡과 황룡의 나룻배싸움놀이 등을 재현하고, 도천메나리 경창과 뱃소리 경창대회를 개최하며, 동해안 별신굿도 축제이벤트로 개최하여 불거리를 재현한다. 아울러 전야제나 거리축전시에 각 마을의 전통을 특징화한 가장행렬을 권장하여 참

여토록 한다. 아울러 서민 생활문화를 결집시켜 현대적인 재창조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바다와 설악산 소재 그림대회, 전국바다시낭송대회, 설악산상국악제, 재즈페스티벌 등을 개최한다.

6) 축제 요건 변화 및 창안

축제일자는 축제의 성격규정과 긴밀하다. 10월의 문화의 달이라는 이유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달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능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일자를 정해야 마땅하다.

이미 설악제는 신라때부터 중춘과 중추에 지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때를 택하거나 중추절이 지난 바로 다음 주말로 택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주말로 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마당의 변화는 축제 성공에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마당의 집약화와 집중화가 가능한 지역, 열린공간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도산품과 기념품, 먹거리의 창안이 필요하다. 에델바이스 액자, 영랑화랑인형, 청호동 갯배모형, 금강산으로 걸어가는 울산바위인형, 저절로 흔들리는 설악산 흔들바위, 반달곰 조각품, 청초호 청룡황룡인형, 조양동 선사유적 모조품 술잔과 도끼목걸이, 권장사와 김장사 목각인형, 신흥사 불교경판 등의 전통공예품과 오징어빵, 오징어과자, 설악심메 마니산삼주, 설악생수, 설악침음료, 삼지구엽초술, 에델바이스향수, 함경도 왕순대, 대청봉 청정산소, 마른오징어, 젓갈 등 향토특산품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속초의 축제에 대하여 전통축제인

설악문화제를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전국적으로 이벤트성 축제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것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속초시의 대표축제인 설악문화제는 전국에서도 30년이 넘는 몇 안되는 축제로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변의 고성 수성문화제나 양양 현산문화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각 시군에서는 향토축제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행사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반짝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음이 최근의 추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 이벤트가 단순한 관광소득의 창출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성을 견지한 제대로 된 향토축제의 계승과 재창조는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지역문화가꾸기'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설악문화제는 강한 지역문화 특성화를 추구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탈바꿈해야 생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악산악제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제전의 신성성을 확보하고 축제의 구심점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남북통일 이념을 중심으로 속초의 지역성을 강조하며, 실향민문화를 재창조하고, 환동해교류 중심의 국제축제로 시각을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도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성공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속초시가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며 동시에 북방개척의 환동해시대와 남북통일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관광

발전에 따른

속초의 대응



강원도 동해안을 통하여 드디어 금강산관광의 뱃길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리던 북녘의 산하를 우리 국민들이 밟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통일 및 환동해권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 세 호/ 속초시 세무과장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분단도인 강원도가 뜨고 있다. 지난 6·15 김대중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회담성과에 따라 강원도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프로젝트의 조기실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안을 통하여 드디어 금강산관광의 뱃길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리던 북녘의 산하를 우리 국민들이 밟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통일 및 환동해권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설악지역은 특히 현대사의 어려운 때,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분단 이후 다른 어떤 접경지역보다도 지정학적 이유로 갖은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최일선에서 오늘의 조국을 지켜왔습니다. 이와같이 조국안보를 위하여 기꺼이 생업의 터전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석탄, 시멘트 등의 기초자원을 국민경제발전에 밑거름으로 공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민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경제의 오늘의 모습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또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수산업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기반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바다를 통한 진취적인 기상을 여타 모든

분야에 파급시켰고, 동시에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화에 힘들어하는 도시근로자들을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사시사철 포근하게 감싸준 곳도 이곳 설악이었습니다.

특별히 속초시는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안고, 통일을 기다리며 한발치라도 더 고향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하는 실향민과 함께 경향 각지의 개척자들이 모여서 이룬 특별한 지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설악지역은 민족을 번영케 하는 첨병의 역할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보다는 지정학적 이유로 국토의 변방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더이상 변방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냉전의 현상이었으며, 긴장의 바다였던 동해가 이제는 넘실거리는 생동감 넘치는 바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가 우리의 앞바다인 동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 새로운 환동해권시대가 열릴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개발상의 중요한 사고의 전환과 함께 그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지역

의 환경친화적 개발 없이는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말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마지막 남은 설악권지역을 포함한 강원도에 대한 합리적인 국토계획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국토계획은 성공적일 수 없다는 정책적 의지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담겨진 정부의 모든 새로운 계획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갈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국토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될 국토발전방향은 강원도 설악금강지역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짚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협력의 좋은 한 모델이 될 설악·금강연계개발계획은 관광자유지역이란 이름으로 곧 실현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또 항만의 확장계획으로 아시아의 나폴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들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악권지역의 정부개발방향에 대하여 특별히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악·금강연계개발계획이 반드시 남북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좀더 나은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설악산과 금강산은 통일을 앞당기는 산일 뿐 아니라 남북의 호혜적 공동의 번영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초, 러시아(자루비노), 중국(훈춘) 백두산 항로가 이어졌고 또 나진 선봉자유지대의 개발도 속초시를 통하여 그 첫 인적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곧 가시화 될 정부의 접경지역개발 계획도 모두 강원도 동해안의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모든 개발계획은 결국 도로, 철도, 항만 등을 포

함하는 SOC의 확충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강산 및 두만강 뱃길을 원활히 열어줄 속초항의 관광항만으로의 획기적 신항만건설, 서울~설악간 고속도로 및 동해안고속도로의 조기건설, 강릉~원산간 철도의 부설, 그리고 남북 교류 전초기지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의 완벽한 정비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또, 북한 및 동북아지역을 겨냥한 신산업단지 건설을 위해서도 민간기업과 각별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현재 국제공항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설악·금강의 장래를 위하여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후 설악권과 세계를 연결하게 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속초항은 2톤만급 여객선 3척을 접안할 수 있는 국제관광항으로 건설되고, 올 하반기쯤 1선식에 대한 축조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북관광교류 또한 점차 개방의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속초의 최대 현안사업인 미시령터널 개설을 위한 민자유치가 결정되어 올 10월부터 착공계획이며 모든 현안사업들의 가시화되고 있는 입체적인 육·해·공 교통망을 바탕으로 속초시는 이북·일본·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이 열렸으며, 국가간 지역간의 냉혹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며,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인프라의 확충, 관광패턴의 다변화를 통해 속초시는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동적인 관광지, 명실상부한 "세계관광1번지"로서의 확고한 기틀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속초시의 새 세기는 지역주민 모두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순회

문화 강연회 북한의 언어 교육

김종삼/ 유석초교 교장 · 아동문학가

본원이 주관한 강원도 순회 문학강연회가 지난 10월 28일, 오전 11시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있었다. 이번 강연회는 강원일보사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주최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원도문인협회 후원으로 '북한의 언어교육'과 '아동문학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강연 연제로 김종삼 유석초교 교장(아동문학가), 이성교 성신여대 명예교수(시인)의 이날 강연을 옮긴다.

- 주 사무국

(1) 언어교육의 일반적 성격

언어교육은 일반적으로 그 성격을 「① 지식생산 경험을 확대시킨다. ②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③ 학습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문명국일수록 자국 언어보호와 창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언어오염이 심각한데다가 영어공용어 문제까지 논의되면서 유식하게 보려면 대화 속에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섞어 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어떤 교수님들은 왜 그렇게도 외국어를 많이 섞어 강의를 하며 심지어는 영어로는 이런 말인데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된다는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놀라지만 하다. 이것은 우리말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자기말을 업신여김은 곧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므로 뜻있는 분들은 우리의 언어교육을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이 반세기 동안 문을 닫고 등을 돌렸던 벽을 넘어 순간에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자 남북간의 언어문

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도 남북한의 언어비교, 북한 바로알기 등 긴급처방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며 주마간산격으로나마 북한의 언어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조선족의 언어생활

나는 '93년 『한중어린이문화의 현황과 교류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한국측 주제발표의 한 사람으로 중국엘 갔다. 주정부에서는 관리를 내보내 우리와 동행시키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줘서 고맙다. 안내자도 길림조선중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친다는 지미란이란 조선족 여선생인데 우리말의 표준발음을 비교적 정확히 했다.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나는 중국 조선족이나 북한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래동화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옛날에 한 악질 지주놈이 있었는데 샷군을 부리고는 샷을 주지 않으려고 꼴을 굴린 끝에..." 하며 북한 방송에서나 듣는 새된 음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표

현도 도전적인데다가 억양이 너무 강했다. 나는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옛날에 한 부자 노인이 계셨는데 머슴에게는 일을 시키고는 품삯을 주지 않아서 궁리를 한 끝에…”로 점잖게 말하면 더 듣기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면 재미가 없다고 했다. 반세기 동안 체제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과 정서면에서 너무 높은 벽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후 중국 동북3성 조선족자치주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펴낸 『꿈나라 아이들』이란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언어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

(3) 조선족 문학작품 속의 언어

『꿈나라 아이들』은 중국 조선족 작가들의 대표 동화집인데, 생소한 말들을 대충 뽑아 보아도 다음과 같았다.

「풍풍 성수나게, 떼징떡이었던지 아니면 코밀 치성이 효험을 보았던지, 아니면 보수통이라던, 어망결에 나무를 톱으로 이발을 사려 물고, 몸뚱이가 땀벌창이 되도록」(김문세의 ‘담장에 오르려던 고양이’에서), 「요만한 일을 가지고 옴니옴니 하지 않는 겸손하고 성근했어요」(김학의 ‘겸손한 동고비 의사’에서), 그밖에도 「나무에 바라오르도록 채우셨습니다. 엄엄할 정도로, 속이 앵돌아져 구새먹은 나무 뒤에서 까꾼이 뜯어보는 것이었어요. 잘코사니를 부르며 오구작작 뛰어다녔어요. 쪽잠을 자다가 당금 새되고 왕청같은 소리에, 앙바툼한 몸집에 도고한 눈길로 함실함실한 어린 것들을, 참대곰의 발쭉한 두 귀」

연변은 중국에서도 동북쪽 변방인 소위 간도라고 부르던 두만강 건너 옛 만주 땅이다. 조선족 대부분이 북한 함경도 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예들이라 그들 선조가 쓰던 함경도 옛 말을 물려받는데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망명

을 한 사람들, 만주 개척단으로 끌려간 사람들, 일제의 수탈에 입살기가 어려워 옮겨간 우리나라 각 지방 사람들의 사투리가 끼어들고, 거기에 중국 한어의 소리빛깔이 젖어들어 조선족 특유의 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북한말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근간에 와서 북한의 문학작품을 읽어보니, 글로 표현된 말에는 그렇게 도전적인 표현이 별로 없었다. 김정숙, 김일성, 김정일 등 북한 최고위층이 인민학교 아이들에게 해줬다는 이야기도 칼라판 그림동화책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입말(구어체 언어)로 이야기해 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문장표현은 우리나라 동화책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194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고 있다는 『아동문학』에 실린 문학작품이나 학생들의 글에는 중국 조선족의 언어와는 또 다른 생소한 말들이 많았다. 『아동문학』은 인민학교부터 고등중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25전쟁 중에도 인쇄기를 깊은 산속으로 옮겨놓고 속간했다고 자랑하는 북한의 유일한 소년잡지다. 이 잡지를 보면 김정일이 인민학교 4학년 때 「우리교실」이란 동시를 썼다고 해서 「우리교실 발표 몇 주년 우리교실 글짓기대회」, 「우리교실 발표 몇 주년 우리교실 글짓기 모집」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표현력 신장과 말 다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은 글말(문어체 언어)에서는 외래어와 한자말을 우리 고유어로 고쳐 쓰도록 하고, 입말(구어체 언어)의 발음에는 비음과 가성을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와 큰 차이점이며, 그것이 언어생활로 정착되어 지금과 같은 이질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4) 통치 이념 구현을 위한 언어정책

북한의 언어정책은 김두봉金料奉과 홍명희洪

命喜의 아들 홍기문洪起文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1964년 김일성은 「조선어를 발전 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란 교시에서 다음의 이유를 들어 문자개혁을 반대하였다.

①철통이 같아도 언어가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 남북통일 후에 문자개혁을 해야 한다.

②문자개혁은 선진기술 수용을 어렵게 한다. 새문자를 배워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려면 세계경쟁에 뒤떨어진다.

③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화하여 하나의 국제어를 쓰는 날까지는 우리 민족어를 살려 써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 고유어로 풀어 쓰도록 하였는데 「상전, 상목, 상업」은 「뽕밭, 뽕나무, 뽕잎」과 같이 쓰도록 하고, 「동서남북, 농업, 학교, 사업」 같이 우리말로 굳어버린 말은 그대로 쓰도록 했다. 그 외에도 띄어쓰기 문제, 어휘정리 사업, 쉬운 말 쓰기 장려, 국어사전의 개편, 언어교육의 제도화, 외래어 정리 원칙 등을 교시로 밝혔다. 그 후 1966년에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라는 교시로 1964년 교시를 보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현대 중국식 한자말을 지양하라고 했다. 예를 들면 「공작시간→일하는 시간」, 「야산→잔매」, 「오침→낮잠」과 같은 말은 「지하투쟁→땅속투쟁」, 「평양은 나의 심장→평양은 나의 열통」과 같이 듣기 어색한 것은 한자말을 같이 쓰게 했다.

②표준어라는 말은 서울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북한 표준어를 「문화어」로 부르게 했다. 그리고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 문화어로 승격시키라고 했다. 또 지상토론을 통하여 일상어에서부터 전문용어까지 문화어로 될 말들을 찾아 정리하고 학교와 신문 방송에서 문화어를 즉시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조선말 규범집』을 발표하게 하면서도 문자개혁은 남북통일 후에 할 것을 반복하여 강조했다.

이런 두 차례에 걸친 김일성의 언어교시는 북한언어정책의 기본원칙이 되어, 60년대 후반에 일어난 「문화어 운동」으로 구체화되어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의 언어관」에 영향을 받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두고 있다. 이런 정치사상적 언어관은 물질생산력을 위한 언어도 구관이며, 혁명의 무기로서 언어의 비계급성을 강조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적 통치이념과 결부되고 있다.

(5) 현실음 발음대로 적기와 전투성의 가미

북한은 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는데,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모음변화에 있어서는 단모음화單母音化, 전음화前音化 현상이 일어나고, 모음조화의 현상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자음변화에 있어서도 두음법칙의 폐지와 발음대로 쓴다는 원칙, 또 된소리 현상도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 ①꾸러미⇒꾸레미, 구더기⇒구데기, 김부러기⇒김부레기
- ②수줍다⇒수집다, 부스스⇒부시시(이상 전음화 현상)
- ③위에⇒우에, 뺨다귀⇒뺨다구, 귀룽나무⇒구름나무
- ④결레⇒결레, 계면쩍다⇒계면쩍다, 케케묵다⇒케케묵다
- ⑤물외⇒물오이, 쇠고기⇒소고기(이상 단음화 현상)
- ⑥예외⇒례외, 노력⇒로력, 농담⇒릉담, 이순신⇒리순신
- ⑦여자⇒녀자, 유대⇒뉴대, 영변⇒녕변(이상 두음법칙 미적용)

그러나 낱말의 선택은 대상에 따라 절대 존칭과 극단의 비어를 쓰게 함으로써 언어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인민의 피를 짜는 반동 악질 부르조아 집단의 악랄한 짓을」,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앞잡이놈의 대갈통을 까부시자」와 같은 거친 비속어를 쓰면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든 위대한 민족의 태양」,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의 령도자」, 「해와 달이 다 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자」와 같이 최상의 존칭과 수식어를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 언어를 전투성과 선동성으로서의 목적달성을 위해 인민학교 교과서에도 난폭한 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 (괄호 속의 숫자는 학년과 쪽수임).

- 할아버지는 지주놈의 상판을 힘껏 때렸습니다.(2-34)
- 선교사놈은 눈깔을 사납게 부릅뜨고(3-18)
- 미국놈들을 까눕혔습니다.(3-31)
- 산 속을 계싸돌 듯 돌아다니던 놈(4-17)
- 감독놈의 이마뼈기를 찍어넘기고(4-23)
- 놈들이 비행기와 대포로 지랄을 부릴 때(4-23)
- 승냥이 대갈통을 짓조겨주네(5-22)
- 놈들의 골통을 박살냈습니다.(5-26)

(6) 입말과 글말 살피쓰기 장려

북한은 입말(구어체 언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말이나 글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글 제목은 서술형이 많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제목을 「환경보호」, 「언어순화」 등으로 간결하게 쓰지만 북한은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자연을 잘 보호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주라는 교시가 계셨다」, 「언어는 국민정신과 과학기술이 이끌어 발전시키는 무기이다」와 같이 길게 서술하는 경우이다.

둘째, 글짓기교육을 통하여 쉬운말, 통속어를 '입말'을 쓰도록 장려하고 방송에도 전투적,

선동적 표현의 입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방송언어는 「①김일성동지의 구체적인 언어사상의 구현인 문화어(평양말)에 의하여 창조되어야 한다. ②방송화술형성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③방송화술은 방송의 특성에 맞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방송화술의 3대 기본원칙에 따라 김일성의 교시나 노작전문을 전달할 때는 ①김일성 교시의 인용문 앞뒤에는 '긴 끊기'를 두어야 하며, ②소리빛깔의 바꿈, 낮고 맑은 소리, 굵고 깊은 소리 등으로 적절히 변화를 주고, ③말을 다른 방송과 차별되게 속도를 늦추어 주의집중을 시키며, ④어조는 정서적이어야 하는데, 강인한 의지와 혁명적 원칙성을 강조한 어조, 치하와 고무의 뜻이 반영된 어조, 사랑의 정을 나타내는 어조 등으로 하고, ⑤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발음에 정중성과 진실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보통 방송에서 말의 속도가 1분간 260~270자인데, 교시나 노작활동 방송은 1분에 250~260자로 하고 있다. '산문읽기'는 대부분이 김일성의 고매한 덕성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격정어린 소리빛깔로 형상화하도록 밑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넓힌 상태에서 소리를 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선전 교양 방송은 설득력과 선동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서술은 간결하게 해야 한다. 선동물은 강한 억양으로 하여 선동성과 호소성을 고취시키고 인민들의 정치적 열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황방송은 원고없이 자기말로 재치있게 처리하는 최고의 화술을 창조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감정표현은 비교적 단조롭게, 몸가짐은 부드럽게 웃음어린 표정을 유지하며, 통속적인 입말투로 보도하되 주체사상적 어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격정적이고 고저 장단이 인위적인 이러한 어조는 80년 대부터는 더욱 강조되

어 '최소리가 나게 쟁쟁 울리는 소리'로 전투성, 선동성, 호소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7) 강력한 통제의 일관된 언어정책

이렇게 북한의 언어정책은 일관되게 통제해 왔는데, 1947년에 김일성종합대학 안에 『조선어문연구회』를 두고 『조선어연구』, 『조선문법』 등을 간행했으며, 1949년에는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용어, 문학예술, 사회과학, 의학, 약학 등 18개의 「용어분과위원회」를 두고 외래어 세척, 한자폐지, 한글보급, 철자법교육을 실시하며 일본어 잔재일소, 한자어의 영향제거와 우리 고유어 살려쓰기에 중점을 두고 언어통일에 강력한 통제를 가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로서 역사의 정통성과 민족자존의 정신을 살리자면 언어통일로 민족을 결속시킨다는 김일성의 계산된 통치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언어는 역사의 정통성과 민족정신을 하나로 결속시켜 이어가는 끈이며 국민정신과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무기다」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52년 『과학원』이 설립되면서 『조선어문연구회』는 해체되고 과학원 산하에 『어문학연구소』를 두어서 한자말과 외래어를 우리 고유어로 바꾸고, 「인민이 알아듣기 쉬운」 입말을 쓰도록 「말다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1964년에는 『사회과학원』이 신설되면서 『어문학연구소』는 『언어학연구소』와 『문학연구소』로 분리하였다. 『언어학연구소』는 언어정책의 길잡이인 계간지 『문화어학습』을 발간하면서 교육과 언론을 통하여 문화어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여러가지 단행본도 발간했다. 이렇게 발간된 책들은 인민의 언어 교양(교육)에도 필수도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문화어 규정은 『혁명의 수도인 평양

을 중심으로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민족적 특성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민족은 하나인데 국가는 「한국」과 「조선」으로 둘이듯이 언어는 하나인데 우리말은 「한국어(표준어=서울말)」와 「조선어(문화어=평양말)」로 되고, 사람도 「한국사람」과 「조선사람」으로 재일 동포도 「민단」과 「조총련」으로 각각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마니, 덩거당에 덩기불이 번덕번덕하는 것 돔 보라우」와 같은 평안도 토박이 방언은 제외되므로서 문화어의 제정으로 한편으로는 우리말과의 이질감은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8)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말하기 훈련

북한의 언어정책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주도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문화위생근위대」, 「문화어소조」, 그리고 「군중문학 통신원」을 중심으로 언어실태조사, 새로운 말 모으기, 문화어 사용, 말다듬기운동 등을 벌였으며 보도기관이 보급에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그 예로는 1966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이 「말다듬기 지상토론」이란 고정란을 두고 한 번에 20개 안팎의 낱말을 매주 2,3회씩 다듬어 나갔으며, 일반 잡지도 모두 특별란을 만들어 이와 비슷한 일을 「전인민적」으로 진행했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중앙TV방송, 개성TV방송 등을 통하여 「문화어화술전개사업」을 일제히 실시해왔다. 그 결과는 북한사람들은 모두 말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철저히 훈련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민학교부터 학습평가에 구답시험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문제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시험문제를 수험자가 추첨하듯이 임의로 뽑아내어 그 문제의 답을 주어진 시간에 맞춰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령 답을 할 시간이 3분으로 주어졌다면 그 시간에 맞춰 내용과 어조가 맞게 논리적으

로 말하면 점수가 '상' 이고 2분 정도밖에 답하지 못하면 '중' 이며 거기에 못 미치면 '하' 인데, '하' 점을 맞으면 유급이 된다. 그렇게 혼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를 가정해 보자. 북한 아이가 자기 특유의 소리빛깔로,

“아바이 바심 때, 개사니가 망돌의 부루를 마구 먹구레, 내래 바질바질 뺄을 태웠지비.”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9) 북한의 외래어 세척작업

북한이 외래어를 우리 고유어로 고쳐쓰게 됨으로서 우리와 달라진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락지빵(도너스), 젓싸개(브래지어), 깔판(팔레트), 걸상끈(안전벨트), 고리(링), 곰보유리(스리가라스), 공격어김(업사이드), 과일단물(쥬스), 광밥(도시락), 관풍금(파이프오르간), 교예(서커스), 구석차기(코너킥), 굳은공(하드볼), 굴개(롤러), 그림버티개(이젤), 그림분필(파스텔), 기름사탕(캐러멜), 기름크림(로션), 기슭선(바이어스선), 꽃개(핀), 꽃댕기(리봉), 끝신(슬리퍼), 나뉘웃(투피스), 나들개(피스톤), 나리웃(드레스), 날개웃(망또), 내밌대(베란다), 녀성고음(소프라노), 녀성중음(메조소프라노), 노래춤음(버라이어티쇼), 누비돛자리(다다미), 눈금통(메스실린더), 눅밥곽(알미늄도시락), 다갈못(스파이크), 다층살림집(아파트), 달린웃(윈피스), 덧양말(커버), 도는네거리(로타리), 독연극(모노드라마), 돌이(옥타브), 뜰주머니(튜브), 뜻빛깔(뉘앙스), 려과담배(필터담배), 런걸차(트레일러), 룩음띠(눅음테이프), 료리차림표(메뉴), 막기(블로킹),

막팔기(덤핑), 맞머리못(리베트), 머리건조선풍기(헤어드라이어), 머리박기(헤딩), 머리비누(샴푸), 머리아기(프롤로그), 모서리공(코너킥), 목달개(칼라), 몸짓극(팬터마임), 물공원(폴장), 바깥볼(사이드아웃), 바삭과자(비스켓), 박절기(메트로놈), 반점(콤포마), 발디디개(페달), 밥상칼(나이프), 벌차기(프리킥), 볶음머리(파마), 볶음판(프라이팬), 부풀음제(베이킹파우더), 분칩갑(콤팩트), 불임수(아플리케), 빗물담개(와이퍼), 뿌무개(스프레이), 사자고추(피망), 선전화(포스터), 설기과자(카스테라), 소리판(레코드), 손기척(노크), 손넘기(네트오바), 손다치기(핸들링), 양복치마(스커트), 어스띠(바이어스 테이프), 여단이(벨브), 영화문학(시나리오), 예술해염(수중발레), 오림책(스크랩북), 외동웃(윈피스), 운동긴양말(스타킹), 웃음극(보드빌), 원주필(볼펜), 자동단추(버튼), 전경화(파노라마), 전기여닫개(스위치), 젓제(시럽), 주머니종(삐삐), 지짐판(프라이팬), 직승기(헬리콥터), 짐함(컨테이너), 쪼르로기(지퍼), 쪽그림(컷), 쪽무이그림(모자이크), 차굴(터널), 찬단물(냉쥬스), 창가림막(커튼), 큰보임새(클로즈업), 판조립(몽타주), 평토기(물도저), 풍막(텐트), 회벽화(프레스코), 후시경(백미러)

(10) 한자어를 우리의 고유어로 바꾸기

북한이 한자말을 우리 고유어로 고쳐쓰게 됨으로서 우리와 달라진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루젓(분유), 가시아버지(장인), 가을걷이(추수), 갈음웃(외출복), 갑작바람(돌풍), 강샘(질투), 거넘길(산책로), 거르개(여과기), 건늬길(횡단보도), 걸그림(괘도), 검밝기(명도), 걸볼품(외관), 구름자(곡선자), 그림솟(목탄), 그물다치기(네트터치), 김물(증류수), 꺼울림(공명), 끝차(견인차), 끝힘(인력), 나들문(출입

문), 나들표(입장권), 나무랍다(노엽다), 나무 새김(목각), 난긱(출생지), 난날(생년월일), 남 새(채소), 납작못(압정), 내굴뚝(훈제), 누운혜엄(배영), 눈고패(눈사태), 눈녹이 때(해빙기), 능쪽(음지), 다님표(운행표), 다리매(각선미), 단묵(양갱), 달가림(월식), 단얼음(빙수), 대거리(교대), 대미쳐(즉시), 더듬뿍(촉각), 덧머리(가발), 돈표(수표), 돌판그림(석판화), 동그랭이(경단), 동동이(부표), 두름길(우회로), 뒤불이(접미사), 들고장(평양지대), 들어온 말(외래어), 따져읽기(정독), 땅속건늬길(지하도), 땅속물(지하수), 떠낸글씨(탁본), 뜨더국(수제비), 마감역(종착역), 마실물(음료수), 막힌벨(맹장), 말공부(공염불), 말밥(구설수), 멧은화산(휴화산), 모임(집합), 몸갓춤(몸단장), 무잡이(잠수부), 미리막이(예방), 바꾸개(반환기), 바람물결(풍파), 바심(타작), 방거두매(방청소), 버림물(폐수), 베감투(두건), 벼락촉(피뢰침), 벼랑부처(마애불), 벽글(대자보), 변농이(이자놀이), 별저들(운석), 별소금(천일염), 본따기(모방), 본모양그림(사생활), 불웃음(미소), 부루(상추), 불당김성(인화성), 불심지(도화선), 불을힘(부착력), 불임책(부록), 뽕혜엄(자유형), 빼어김(탈골), 사이극(단막극), 삭뼈(연골), 살결물(화장수), 새막이(간막이), 새잡이(새출발), 선그림(입면도), 설인사(세배), 소리탄말(의성어), 소젓(우유), 쌍불임(교미), 쓸림(마찰), 아근(부근), 알쓸이(산란), 애기차(유모차), 어둠눈(야맹증), 얼굼차(냉동차),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엮음새(구성), 우림술(과일주), 잇음증(건망증), 잔매(야산), 젓매(수유기), 젓집(유방), 줄당이(합선), 지은웃(기성복), 짝씨(배우자), 차마당(주차장), 차멋기(정차), 차비새(채비), 처음역(시발역), 탈가(가출), 터침소리(파열음), 툴힘(탄성력), 판종이(마분지), 표보기(검표), 푸른차(녹차), 피물(혈청), 피진(혈장), 하루둘이(격일), 한중심원

(동심원), 합친꽃(통꽃), 합침말(합성어), 헛돌이(공전), 형투리(형태), 후어머니(계모), 흙친 쥐(절도), 훌어보기눈(난시), 힘살실(근섬유)

(11) 우리말과 다른 북한의 문화어

보통말인데 문화어 제정으로 우리와 다르게 쓰고 있는 북한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간참(참견), 강떼(생떼), 거푸시하다(푸석하다), 개시시(계슴츠레), 개잡다(언짢다), 개채없다(주책없다), 개화주머니(호주머니), 걸문다(잇따르다), 걸쌩걸쌩(시원시원), 검병(진찰), 게사니(거위), 곧은박이(외고집), 골반이(박치기), 골살(이맛살), 곱저고리(적삼), 곱밥(도시락), 구레(옹덩이), 구팡(토방), 군슴스럽다(궁상맞다), 굵은벨(큰창자), 귀기스락(추너끝), 근터구(근거), 급양(급식), 기름밥(볶음밥), 꿀비(단비), 날거리(날씨), 남잡이(해코지), 노라노랏다(셋노랏다), 농마(녹말), 농통하다(답답하다), 누게(막), 눈가랑(눈대중), 느실느실(어슬렁어슬렁), 닭공장(양계장), 더미구름(몽게구름), 덜기(빼기), 돌서덜밭(자갈밭), 동가슴(양가슴), 동약(한약), 돼지바우(돼지감자), 된기웁(쌍기역), 두거지(독), 두간두간(종종), 뒤거두매(마무리), 뒤넘스럽다(주체넘다), 따기군(소매치기), 따꽃(채송화), 떨렁밥(찜밥), 뜨더국(수제비), 띠개(포대기), 띠자없다(영락없다), 료동개미(일개미), 료해하다(이해하다), 마가리(오두막), 마가을(늦가을), 마룩(국물), 망돌(멧돌), 망탕(마구), 모사탕(각설탕), 미시리(얼간이), 뽕풀이(분풀이), 불불이(갑자기), 비탈도(기울기), 빈알(쪽정이), 사다듬이(몽둥이쥼), 사민(민간인), 산울림(메아리), 새리새리하다(아리송하다), 색동다리(색동저고리), 술술이(물뿌리개), 씨름꽃(제비꽃), 아바이(아저씨), 얼력밥(잡곡밥), 열물(쓸개즙), 요진통(요점), 우점(장점), 위생실(화장

실), 유술(유도), 익달(숙달), 인차(이제), 자육길(오솔길), 장달음(줄달음), 전탕(온통), 작시미(작대기), 잔매(언덕), 잘량하다(알량하다), 주름판종이(골판지), 줄림줄림(찢끔찢끔), 지르보다(노려보다), 지어(심지어), 지즐지즐(지지배배), 짬수(깁새), 질똥바리(미련통이), 차단소(검문소), 채눈종이(모눈종이), 철직(해직), 청봉채(명조채), 초국(냉국), 체화품(재고품), 초대소(영빈관), 촌바우(촌뜨기), 코안소리(콧소리, 비음), 타래뭇(나사뭇), 터돌(주춧돌), 토범(민간요법), 팔팔아(앵무새), 포전정리(농지정리), 하내비(할애비), 하불(홀이불), 해들이(나이테), 호상(상호), 혼쌀(혼줄), 화장걸음(쟁걸음), 쉼바람(늪새바람), 휴식일(공휴일)

(12) 남북한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길

2000년 여름, 평양학생 소년예술단이 서울에 왔을 때, 인사말을 하는 북한 아이의 '표정과 태도가 알뜰도록 세련되어 있는데다 말이 너무 조리있는 데' 놀랐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간드러진 목소리에 소름이 끼치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의도적으로 훈련된 말에 비음과 가성이 섞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노래란 소리를 곱게 내야지, 남조선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바락바락 악을 쓰듯이 부르지'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북의 언어정책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노래도 애절하고 간드러지게 들리는 것이다. 특히 금강산 입산 검사소에서 '반갑습니다 나, '다시 만나요' 하는 노래

를 들으면 콧날이 찡하게 한다. 김정일이 이미자와 김연자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한 것도 김일성의 취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 사람의 구상과 취향대로 언어를 정리한 한편 우리의 언어정책은 말과 글이 자연스럽게 변해오는 것을 그대로 정리해 왔다. 해방전인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나왔고, 1988년에 처음으로 「개정 한글맞춤법·표준발음법」을 문교부가 고시했지만 통제는 없었다. 그밖의 언어 정리작업은 모두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해 온 형편이었다. 그래서 언어 정리작업은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수적이고 일관성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언어의 다양화, 세계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외래어의 남용과 조어, 은어, 속어, 비어의 범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49년부터 한자폐지, 한글전용, 외래어 세척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1960년대 김일성 주체사상적 언어담화 후부터는 언어를 「혁명의 무기」로 삼고 말에 전투성, 선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언어의 비속성, 난폭성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남과 북의 교류를 확대하여 사람들이 제한없이 만나야 하고, ②서로의 언어정책의 장점을 관대하게 수용하고, ③공동 언어연구소를 설치하여 「통일어」 같은 것을 만들어, ④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급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내고장 살기 도서 안내

- 속초의 옛과 오늘.....속초문화원 발행
- 속초문화유산.....속초문화원 발행
- 속초지역 구전설화집.....속초문화원 발행
- 고성·속초지역의 설화.....학원자료원 발행

아동문학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성교 / 시인 · 성신여대 명예교수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생각 나서 꽃을 따니다.

아빠는 꽃보며 살자고 했죠/ 날보고 꽃처럼 살자고 했죠

이효선의 <꽃밭에서>

1. 아동문학의 본령

대개 아동문학 하게 되면 동요, 동시, 동화 등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의 특징은 그 장르 앞에 <아이>라는 <동童>자가 붙는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생각 나서 꽃을 따니다.

아빠는 꽃보며 살자고 했죠

날보고 꽃처럼 살자고 했죠

이효선의 <꽃밭에서>

유독 이 작품을 드는 것은 별다른 뜻은 없지만 요사이 아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의 하나이다. 이 노래 속에 슬픔이 가득 담겨있다. 그렇

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노래는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남는다.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서는 비록 어린이 노래지만 어른들 가슴에도 크게 울려온다. 이런 노래가 민족民族의 노래인 것이다.

이와같이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글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의 꿈이 있고 정서가 있다. 이때 생활과 감정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누구든지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다.

아동문학의 범위는 참으로 넓다. 원칙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작품이 아동문학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어른들이 자기 생활을 경험삼아 어린이 생활을 소재로 하여 아동문학을 하고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은 그리운 것이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아동문학을 아예 필생의 문

학으로 하여 글을 쓰고 있다. 그 문학文學이, 그 생활生活이 인생人生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실하다는 것을 먼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아동문학은 비록 아이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문학이지만 인생의 진실과 아름다움이란 의미에서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다.

문학작품文學作品的 발전 단계로 볼 때 누구든지 아동문학부터 먼저 접한다. 특히 일반 문인들로서 그 첫 단계가 대개 아동문학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읽은 작품이 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 아동문학 전문, 비전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문인文人 가운데서도 그 첫 출발出發에 있어 아동문학을 한 예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문학은 일반 문학보다 더 많이 범위가 넓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교육과정에서부터 익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들 수학기에 있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이외에 다른 명작名作들도 선생을 통通하여 많이 읽게 된다. 또 이들은 나이가 가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동문학 작품을 읽은 옛날 감동을 생각해서 다시 읽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무슨 작품作品이든 문학文學의 특질特質로 보아 정서情緒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읽어도 감동感動이 새로운 것이다(특히 짧은 시詩보다는 소설에서 그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가령 안텔센의 동화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미운오리새끼>, 스티븐슨의 <보물섬>, 알폰스도테의 <마지막 수업>,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 - 같은 것은 많이 읽히는 작품이다.

외국 동화는 그만두고라도 우리나라 전래동화傳來童話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이 읽힌다.

참으로 작품作品的 힘은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평양소년예술단이 왔을 때 그 공연을 보고 느낀 바 컸다. 특히 한 소녀少女가 불렀던 노래, 이원수가 지은 동요 <고향의 봄>은 정말 눈물겨웠다. 그 소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모두 다 마음의 고향으로 잠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그 세계世界에 깊이 젖을 수 있었다. 여기에 무슨 남南과 북北의 차별이 있었으며 어른 아이의 차별이 있겠는가. 이 노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민족民族의 동질성同質성을 느낄 수 있었다.

2. 청소년기의 문화교육

인생에 눈을 떠갈 무렵, 문화교육은 새로운 세계世界와 인생人生을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쉴러도 자기 문학을 회고하면서 실제 인생에게 배운 것보다 어릴 때 들은 동화童話가 더 중요했다고 고백했다. 이점에 대하여 아동문학 평론가인 이재철교수도 <학교 교육의 형식적인 답답함과 약점을 커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고까지 말했다.

원래 문학文學의 기능이 쾌락적 기능과 교시적 기능이다. 이렇게 볼 때 한참 새로운 눈으로 무엇을 보고 느낄 무렵에 인생의 교과서적인 문학작품文學作品을 잘 선정해 주고 지도해야 한다. 우선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소개한 작품作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읽게 하고 그 다음 그 작품을 깊이 분석해줘야 한다. 그 작품이 쓰여진 배경, 사상구조, 표현 - 등에 중점을 뒤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작가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까지도 마지막에 자세히 정리해줘야 한다.

그 다음 개별적인 지도 차원을 떠나서 학생 전체를 위해 좋은 문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 좋은 방법이 문예반 특별활동 활성화는 말할 필요없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행사의 하나로 작품발표회 作品發表會 개최, 문집발간文集發刊, 시화전 詩展] - 같은 것을 자주 열어주는 것 등이다.

옛날엔 이런 행사가 꽤 많았는데 요즘엔 드문 것 같다. 그 원인은 입시교육 강화 때문이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책 읽고 글을 쓰다 보면 큰 관문인 학교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학부모가 바라는 사회社會가 바라는 일반 경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의 학생생활은 입시지옥에서 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할까. 그러면서 사회 일각에선 인성교육人性教育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교육教育의 최종 목표는 올바른 인간교육에 있다. 그러자면 먼저 인성교육人性教育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교육자教育者는 먼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도록 교육해야 한다. 오늘날 인성교육이 무시된 마당에 누가 새로운 교육을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런 살벌한 속에서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사회적社會的 문학인식文學認識이다. 아동문학은 아니지만 일반 시詩가 여러곳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몇 일간신문에서 자주 시詩를 소개해주고 또 전철역 같은 데 명시감상 액자가 걸려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시詩의 저변확대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주는 기여도에서도 다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제언하고 싶다. 기왕 시詩에 관심을 갖고 사회 일반에 소개할 바엔 좀더 폭을 넓혀서 일반 시詩뿐만 아니라 순수한 아이들의 감정을 드러낸 동요 동시도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오히려 독자가 더 많고 이해도 빠르고 애뜻한 정을 더 풍겨줄 것이다.

또 문학적文學的 환경 가운데 아동문학가들의 <노래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노래비는 엄격한 의미에서 시비詩碑다. 유명한 시인詩人들(주로 작고시인作故詩人)의 시비詩

碑가 詩人의 태생지나 연고지에 꽤 많이 세워져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찍이 유명한 동요 동시를 썼던 아동문학가들의 노래비도 많이 세워져 있다.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대한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 옵니다.

— 서덕출의 〈봄편지〉

너무도 시가 부드러우면서 정겹다. 연못가에 핀 버들잎에다 사연을 적고 우표를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그것을 받아보고 제비가 돌아온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다. 이 〈봄편지〉는 그의 대표작으로 현재 울산 학생공원에 세워져 있다. 불우의 詩人 서덕출徐德出은 갔지만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

이외에도 곳곳에 세워져 있는 노래비는 윤석중의 〈새나라 어린이〉(서울 어린이대공원), 이원수의 〈고향의 봄〉(마산), 윤극영의 〈반달〉(서울 창경궁), 박목월의 〈송아지〉(경주), 강소천의 〈닭〉(서울 어린이대공원), 김영일의 〈다람쥐〉(과천대공원), 박경중의 〈초록바다〉(공주), 김성도의 〈어린이음악대〉(경산), 권태웅의 〈감자꽃〉(충주) - 등이다.

이런 노래비에서 온 강산江山은 아이들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동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알 수 있다. 요사이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져 가는 이 때에, 작고作故, 현재現在 가릴 것 없이 좋은 작품作品이면 얼마든지 세워졌으면 한다. 여기에

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의 놀이터(공원) 곳곳에 아이들의 노래비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으면 한다.

3. 청소년靑少年과 좋은 책 읽기

인생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시대時代가 청소년靑少年期다. 이때 청소년靑少年의 눈은 가장 아름답다. 무엇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청소년 시절靑少年時節의 꿈은 크다. 하룻밤에도 열 두번 청기와집을 짓는다. 이때 생활生活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때는 없다. 이럴 때 그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靑少年教育이 인생人生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소년靑少年들은 몹시 방황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시대時代와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여러모로 바꿔놓고 있다. 즉 복잡한 생활에서 그들을 올바르게 키울 교육이 결여되어 있다.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가정·교육·사회가 문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청소년靑少年教育이 심각한 때는 없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社會에서 야기되는 청소년靑少年들의 비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 그 문제를 자세히 진단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 큰 과제로 등장되어 있다.

더 절실하게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되어 있다.

이럴 때 교육教育을 맡은 사람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큰 사명使命을 갖고 꽃나무를 키우는 원정園丁의 마음으로 교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교육教育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의 영양이 될 좋은 책을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한 방책이다.

한참 인생을 알려고 할 때 무슨 책을 읽느냐

가 중요하다. 그 책의 영향으로 그 사람의 사고
思考와 방향方向이 달라진다. 어릴 때는 말할
필요없이 좋은 아동문학의 책이다. 무슨 책을
읽힐 것인가? 이것은 교육을 담당한 사람의 몫
이다. 많은 책 가운데 좋은 인생人生을 살 수
있는 책을 골라줘야 한다. 좋은 책에서 저들은
새로운 꿈을 꾸며 이상理想을 넓혀간다. 여기
에 대하여 유창근교수도 그의 저서《현대아동
문학의 이해》 머리말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매일 밤 어머니에게 구약 이
야기를 듣고 자라온 유대인들은 마침내 하이네
를 비롯한 카프카, 토마스만 등 세계적으로 유
명한 시인과 작가를 탄생시켰고, 헨리 키신저
와 같은 위대한 정치가도 탄생시켰다」

참으로 독서의 힘은 한 인생人生을 바꿔놓는
다.

오늘 현실은 책을 안읽는 시대時代에 와 있
다. 옛날 같으면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읽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
다. 혹 좌석에 앉아 책읽는 학생들을 보면 고작
영어 단어장英語單語帳 아니면 만화책을 읽는
것이 고작이다. 재미있는 동화童話책을 읽는
것도 아니니 한심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
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다. 입시지옥 풍조 속에서 그런 책읽는 것
이 오히려 우습게 되어있다.

또 책을 안읽는 분위기는 환경문제에도 기인
한다. 그 단적인 것이 컴퓨터 문제다.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컴퓨터를 밤새도록 무엇을 두들
기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뜨니, 무슨 창조의
시대時代가 열리겠는가?
또 어떤 아이들은 상습적으로 이상한 음악
音樂을 듣다가 잠드는 수도 많다. 이래가지고 무
슨 공부를 하며 좋은 문학文學책을 읽겠는가?

날이 갈수록 세대는 악해지고 있다. 기성세대
들은 이들이 빠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
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지도를 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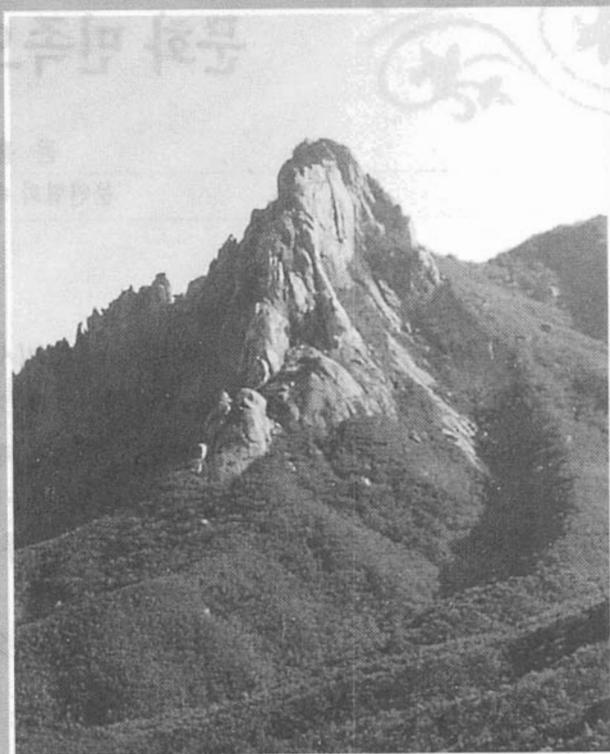
특히 청소년靑少年들에게 살이 쪼일 수 있는 아
동문학 작품을 많이 읽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국어지도는 물론 거교적으로 독서경
연대회 같은 것을 많이 열어 서로간 책을 많이
읽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
회社會 문화기관文化機關에서도 이런 行事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오늘처럼 책임기에 좋은 시대에 어린이 교육
을 맡은 지도자들은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읽혀야 할 것이다.

「더욱 다행인 것은 한국아동문학계가 많이 발
전하여 작품발표의 좋은 무대를 많이 펼치고
있다. 아동문학지만 하더라도 「아동문학평론」
(이재철 주간), 「아동문예」(박종현 주간), 「아
동문학연구」(엄기원 주간), 「아동문학」(김철수
주간), 「어린이문예」(부산MBC), 「소년문학」
(전주 서재균), 「아동문학시대」(대전 김병도)-
등이 있다. 이런 아동문학지兒童文學誌만이라
도 학생들로 하여 정기적으로 몇 권씩 읽도록
해야 한다.

결론으로 아동문학은 비록 아이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문학文學이지만 문학文學의 본령本
領으로 봐 제일 아름다운 문학文學이다. 인간
人間の 순수하고 진실眞實한 면을 여기에서 제
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面에서
아동문학은 문학 자체文學自體에서도 큰 빛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참 자랄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좋은 영양이 되고 치료제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문학가들은 보다 더 큰 사명使
命을 갖고 큰 자부심으로 좋은 작품作品을 쓰
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길

- 문화민족의 길
- 21세기의 꽃피는 우리문화
- 로마자 표기법 16년만에 개정
- 국립공원 설악산(16)



문화 민족으로의 길

윤 흥 렬

문인협회 속초지부장

우리들은 우리들의 발자취 즉 우리들의 생활이 반영된 우리시대의 문화를
후손들이 존중하고 또 그 다음세대로 물려줄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좋은 문화를 빚어내기 위한 특수한 방법이나 기술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자연법칙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인간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꾸려나가는 생활방식이
바로 후세에 존중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는 것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많은 고증을 해야겠지만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류가 삶을 이끌어 온 자취” 라고 말할 수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류는 모조리 자기나름의 이어받은 문화속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그날 그날의 생활을 엮어가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환경에서는 그 발달된 물질문명의 특성에 맞는 문화가 빚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대로의 문화가 생성되는 것이다. 좀더 부연해서 말하자면 농민의 생활환경에서는 농민생활에 걸맞는 문화가 형성되게 마련인 것이고 어부들의 세계에서는 어부들 나름의 문화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교원들 사회에서는 교원들 나름의 문화가, 과학자들의 세계에서는 역시 과학자들 세계의 특성이 배어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무릇 인간의 생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니, 인간의 생활이 다양한 것처럼 문화의 양상도 다양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우열은 없는 것이고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교를 할 수 있는 상대성은 있다.

甲이라는 문화와 乙이라는 문화를 비교하여 그 둘 사이의 합리성 또는 비합리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현상에 공통적인 비교기준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만 비교가 가능한 것이겠는



데 역시 판단의 기준은 현대인의 생활감각을 잣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적인 주관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아무리 비교행위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역시 그것은 그 사람 나름의 객관이기 때문에 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문명은, 인간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오랜동안의 연구와 노력의 결정체로 개척되고 개발되어 형성되는 것이지만, 문화는 특정 단위시대의 인간들의 생활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그 시대 단위의 특색은 현대인들의 지식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라도 후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생활 주변의 모든 현상은 존중될 것이 있고 배척될 것이 있을 수 있을진대는 선대의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존중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만이 우리들에게 존중되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선별적인 문화관, 바꾸어 표현하자면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인간들

의 생활방식과 생활의 가치관도 바뀌게 마련이니까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에 대한 가치관도 당연히 바뀌게 마련이니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발자취 즉 우리들의 생활이 반영된 우리시대의 문화를 후손들이 존중하고 또 그 다음세대로 물려줄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좋은 문화를 빚어내기 위한 특수한 방법이나 기술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자연법칙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인간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꾸려나가는 생활방식이 바로 후세에 존중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는 것이다.

오늘날 각 언론매체의 사회면을 가득히 채우다시피한 온갖 부정과 비리,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공공연한 배임횡령, 정치인들의 뻔뻔스런 거짓말, 우선 이런것들이 시정되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5천년의 역사만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21세기의 꽃피는 우리문화

한 정 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1. 문화의 이해

문화의 보편적인 관념은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 자연상태와 대립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한 것이며,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제도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이며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문화'는 라틴어 cultura(경작 육성의 뜻)에서 유래된 영어의 culture, 프랑스어의 culture, 독일어 kuotur의 번역한 말이다.

그렇다면 문화의 뜻은 무엇일까? 동물의 행동은 오로지 유전과 본능에 의해 이루어지나 인간은 이에 더하여 경험과 모방 및 언어를 통하여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사고·감정·행동을 습득하고 획득한 것을 같은 세대와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와같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학습 전달되는 통합성을 가진 총체를 문화라고 한다.

2.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는 여지껏 말로만 하는 문화를 외쳐왔다. '우리 문화의 전통 계승과 외국 문화의 부분적 수용'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재조명하여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교육과정에서 기본원리나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외국 문명의 인식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고는 합리적이니 아니니 하는 비판적 요소만 늘어놓았지 '왜'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연구의 노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보이는 것이 되 보이지 않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한국 전통음악을 들려주면 이해못하겠다는 표현들과 대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복잡 미묘한 관계의 차이이다.

그렇다면 민족의 고유성을 가진 우리 문화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 문물의 우수성 때문이란 말인가? 라는 의구심에 접해보지만 1백여년 전만해도 우리의 문화는 한복을 입고 예절이 바르며 우리 문화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지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문화는 성형수술이니, 머리를 염색하니, 피부색을 바꾸니 하면서 외국문화의 길로 스스로없이 가고 있다.

왜, 우리는 우리문화를 저버려야 했을까? "나는 우리 민속음악만 들으면 몸이 근질근질 거려 못 들겠어. 너도 그러니 난 한복만 입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 못 입겠어."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전통문화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언제인가 외국에서 나오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는데 나는 기가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앵커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저편? 차이나?" 그러자, 대답하는 사람은 한국사람이면서도 머뭇머뭇

하다가 카메라를 인식하고는 작은 소리로 “코리안” 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과연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앞에서는 다들 “저것도 한국인이냐” 라고 말을 하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한국사람인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 문화의 발전 강도를 아무리 높여도 우리 전통문화의 재도약이라고 외쳐보지만 정착은 되지 않고 점점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처럼 서구문명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즉 ‘배반의 시대’ 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다.

3. 우리 문화의 재조명

우리의 문화는 과거 중국으로부터의 무수한 침략,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서 서구문명을 반대하는 것보다 반일본을 외쳐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미국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이 마련한 잔치상 위에 올려져 그들의 문화를 떠받들면서 서서히 일본인이 되어갔다. 이렇듯이 우리문화의 가치관이 그대로 복원되려 해도 일본의 문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의 전통문화가 제자리를 찾으려 해도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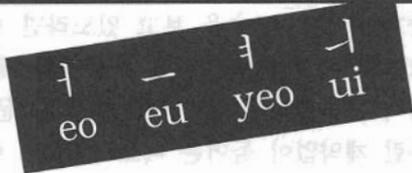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일본과 한국이 축구경기를 할 때 보면 분노를 느끼면서까지 응원을 한다. 그러나 정작 문화를 개방해 그들의 문화를 느끼며 호흡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때는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서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서구대중문화는 아무런 제약없이 들어온 때도 있었다. 이제까지 세계문화는 여러 각도의 차원에서 제각기 자기나라의 문화를 꽃피우고 심어주려는 지배적인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나 받아들여진 문명은 과거의 문화보다는 현재의 문화에 치중되어 문화말살정책의 한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다들 말한다. 문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안목과 판단으로 우리의 문화 가운데 버릴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되살릴만한 것인지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되어야 여지껏 외치던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이란 구호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속한 자리를 먼저 이해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앞으로 가야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의 계획작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야단을 떨면서 정작 내가 태어나고 내 자신이 내 고장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전통문화나 교육 체계에 대해서 이와같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의 21세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조상의 얼과 슬기, 그리고 숨결을 재조명하여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관을 바로잡아 새로운 역사의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 확산하여 독특하고 특색있는 전통미와 짙은 향토문화의 다음으로 문화를 다듬고 가꾸어 가는데 한층 힘써야 할 것이다.



로마자字 표기법 16년 만에 개정

문화관광부/ 2000년 7월 4일 확정, 7월 7일 관보 고시

문화관광부는 2000년 7월 4일 '어'의 표기법을 'ㅐ'에서 'eo'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국어의 새 로마자 표기법을 확정, 7월 7일 관보에 고시되며 또다시 바뀌게 되었다. 1948년, 1959년, 1984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로 16년만에 개정이다. 개정된 면모를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 주 편집인

- 강원도 g/kangwon-do
- 속초시 Sog/kcho-si
- 영랑동 yeongrang-dong
- 문화원 munhwawon

새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긋점(˙) 등 특수 부호를 없애으로써 국어모음 중에서 '어' (ㅐ → eo), 'ㅡ' (ㅔ → eu), 'ㅚ' (ㅚ → yeo), 'ㅟ' (ㅟ → ui) 등 4개의 표기법이 바뀌게 된다.

자음중에서는 ㄱ, ㄷ, ㅂ, ㅅ의 경우 어두語頭에서는 k, t, p, ch로 적고 단어 가운데에서는 g, d, b, j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은 위치에 상관없이 g, d, b, j로 적도록 했다. 다만 ㄱ, ㄷ, ㅂ이 자음 앞이나 어말語末·받침에 올 때에는 종전과 같이 k, t, p로 적는다. 또 ㅋ, ㅌ, ㅍ, ㅊ은 종전에는 어긋점을 붙여 k' , t' , p' , ch' (예: Sokch' o)로 표기했으나 어긋점을 없애고 표기토록 했다.

'ㅅ'은 뒤에 'ㅣ'가 올 때 'sh'로, 그밖의 경우에는 's'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은 국어의 표

기와 발음에 차이가 날 때 발음나는 대로 적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유 명사固有名詞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했으며 사람 이름은 성씨를 앞에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쓰되, 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성씨姓氏 표기의 경우 김씨金氏는 'Gim', 'Kim', 박씨朴氏는 'Park'이 관행화되어 있어 종친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또 인명人名, 회사명, 단체명은 '삼성Samsung'처럼 새 표기법 Samseong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종전과 같이 쓰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새 표기법 시행으로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市道를 비롯해 전체지명의 약 60~70%의 로마자 표기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로표지판, 광고판, 문화재단내판 등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했고 교과서와 지도 등은 2002년 2월 28일까지 고쳐야 한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는 크게 두 계통이 있을 수 있다. 글자를 일대 일로 옮겨지는 전자법轉字法, 소리를 우선시하여 쓰는 전사법轉辭法이 그것인데, 이 두가지도 어떤 방향으로 세분화 하느냐에 따라 표기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전자식 표기법은 쓰기가 편하고 전사식 표기법은 읽기가 편하다. 새로 고시된 표기

법은 전사식 표기법으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를 다소 자신의 모국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갯점, 반달표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다. 컴퓨터로 표기할 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어 단어 중에는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것들이 많은데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도록 했다.

‘ㄴ’과 ‘ㄹ’이 덧나는 경우(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구개음화(해돋이→해도지 Haedoji)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하여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종고→조코 joko) 등이다. 그러나 된소리로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8항에도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식轉字式 표기법도 따로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로마자 표기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종전의 표기법이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로마자 표기’를 곧 ‘영자화英字化’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도 문제였다. ‘영’을 ‘young’이라고 쓰고 ‘sun’이라고 쓰며 ‘순’을 ‘soon’이라고 쓰는 폐단을 하루 빨리 버려야 체계적인 표기체계를 구축할



도로 표지판 로마자 표기, 반달표, 어갯점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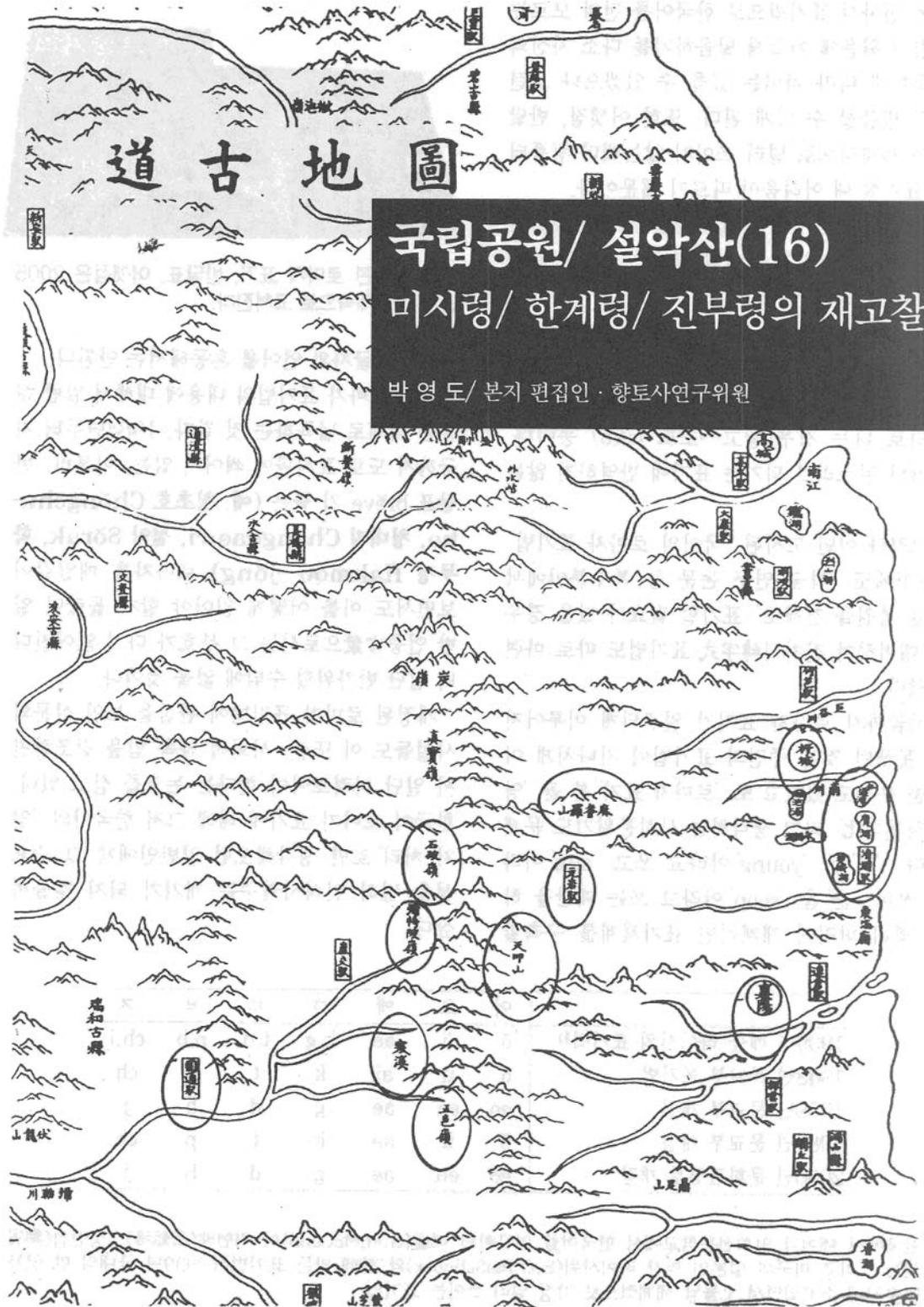
수 있다. 글자와 언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바뀐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대체로 납득하는 것 같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도로 표지판에 써어져 있는, 이른바 ‘반달표 brève’가 붙은 (예, 청초호 Chōngchoho, 청대리 Chōngdae-ri, 설악 Sōrak, 학무정 Hakmoo-jōng) 로마자를 매일같이 보면서도 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던 일반 언중言衆으로서 그 부호가 다시 없어진다니 일단 반가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관심을 보인 신문의 사설들도 이 또한 ‘사회적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일단 지켜보아야 한다는 논조를 신고 있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 대해 그저 한국어의 ‘영자 처리’로만 생각해오던 일반인에게 그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어	으	애	ㄱ	ㄷ	ㅂ	ㅅ
1939년 맥쿤-라이샤워 표기법 ¹⁾	ǒ	ũ	ae	k,g	t,d	p,b	ch,j
1948년 문교부 표기법	ǒ	ũ	ai	k	t	p	ch
1959년 문교부 개정	eo	eu	ae	g	d	b	j
1984년 문교부 개정	ǒ	ũ	ae	k	t	p	ch
2000년 문화관광부 개정	eo	eu	ae	g	d	b	j

1) 한국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던 맥쿤(G.M. McCune)이 최현배(崔鉉培), 정인섭(鄭寅燮), 그리고 미국의 일본인 학자 라이샤워(E.O. Reischauer)와 함께 만든 표기법이 1939년 국내의 한 영문 학술지에 소개되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기법.



국립공원/ 설악산(16)

미시령/ 한계령/ 진부령의 재고찰

박영도/ 본지 편집인 · 향토사연구위원

‘설악산 국립공원’ 연재물은 이번 16호로 끝을 맺게 된다. 그동안 기꺼이 《속초문화》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익훈, 최구현 두 분 원로를 비롯한 관계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호에선 본지 박영도 편집인이 집필을 맡아 주었다. - 사무국

- 두껍게 읽기

‘영嶺’은 높은 산의 고개를 일컫는 한자어로서 순수한 우리말 ‘재’, ‘고개’ 등에 해당되며, ‘봉峰’은 산봉山峰의 준말인데 ‘산봉우리’, ‘봉우리’, ‘멧부리’ 등의 우리말에 해당된다.

재와 고개라고 하면 최소한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들판이라는 뜻이다. 원암이라는 지명은 조선조의 원암역元岩驛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마도 울산바위에서 따온 이름일 터이다.

당시 한양에서 관동으로 통하는 길은 원주를 지나 대관령을 넘는 길이 ‘대로大路’이고, 경기도 양평 땅 지평砥平에서 큰길과 갈라져 홍천과 인제를 지나 설악산을 넘는 길이 ‘소로小路’였다. 대로는 강릉과 삼척을 지나 평해에 이르렀고 소로는 북쪽의 양양과 간성이 그 목적지였다. 그 소로가 인제에 닿아 원통역과 신원을 지나 오색역으로 넘는 소동라령 길을 버리고 인제 북쪽 남교역을 지나 원암역에 이르는 미시령으로 길을 바꾼 것이 바로 성종 24년(1493)의 일이다.

미시령 길은 옛부터 좁고 비탈이 심한 것으로 유명해 지금도 한 해 겨울이면 서너번씩 길이 끊기곤 한다. 조선시대 간성 현감을 지냈었던 태당澤堂 이식李植의 《간성지杆城志》¹⁾에도 ‘한 해에 대개 네댓 명이 목숨을 잃고 열 마리 정도의 말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눈과 바람으로 다져진 고개
미시령彌矢嶺

- 짧게 읽기

강원도 속초시와 인제군 사이에 있는 해발 767m의 고개로 여수파령麗水坡嶺, 미시파령彌時坡嶺이라고도 한다. 한때 폐하여졌었으나 조선조 성종成宗 24년(1493)에 양양의 소동라령所冬羅嶺(지금의 한계령寒溪嶺)이 험하여 그 통로를 폐하게 되자 다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의 관광도로가 개통된 때는 1989년 6월 17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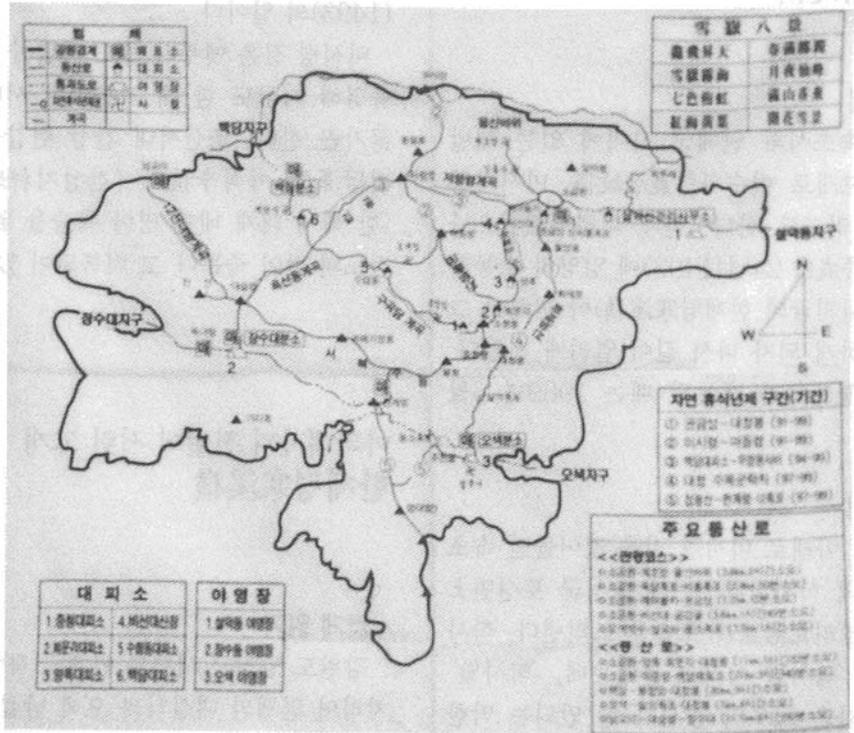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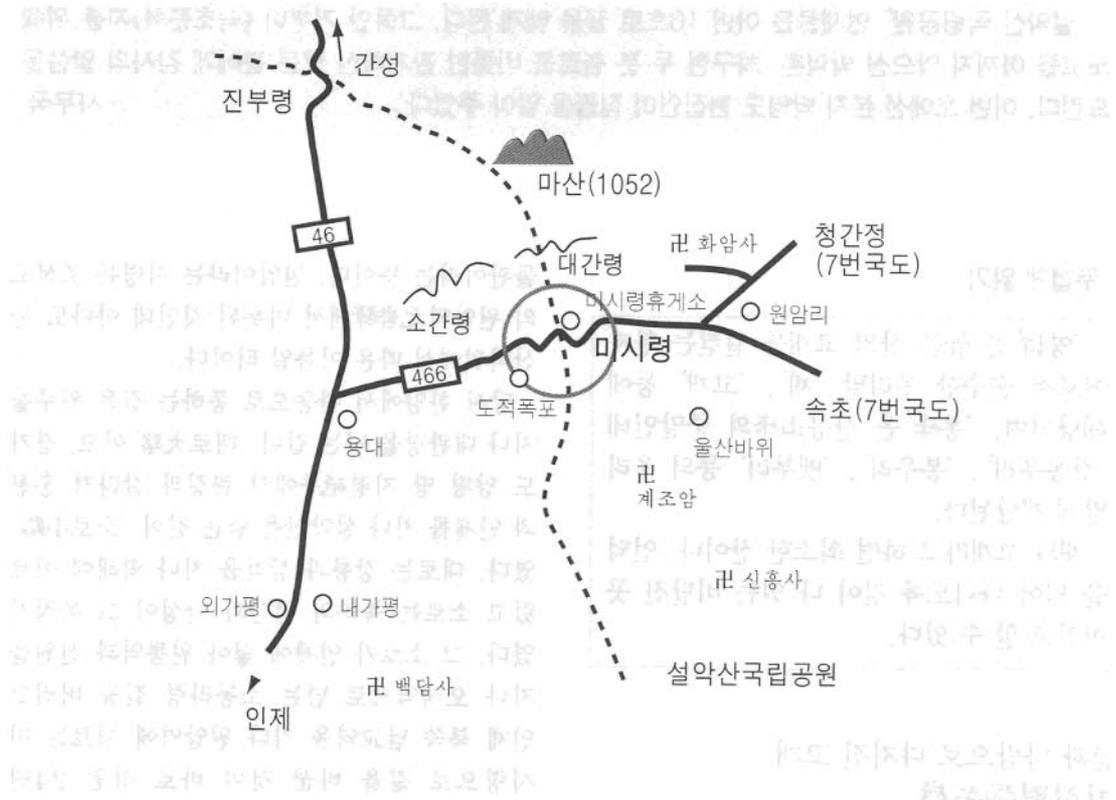
- 길게 읽기

울산바위 아래로 미시령 길을 접어들면 속초시 노학동의 학사평鶴沙坪과 고성군 토성면土城面의 원암리元岩里가 모습을 드러낸다. 학사평은 본래 ‘딱사밭’이라고 불렀는데, ‘딱사밭’이라는 이름은 도무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마의태자의 전설이 서린 고개
한계령寒溪嶺

- 짧게 읽기

강원도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북면 사이에 위치하며 인제의 내설악과 오색 남설악을 연결하





는 이 고개(해발 935m)는 그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설악산의 주봉 대청봉을 오르는 등반길 중 가장 힘이 덜 들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또 한계는 풍진 영화를 한날 배웃 품에 감추고 세속을 떠났던 마의태자의 전설이 애달피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듯 지나온 시절이 내내 고단하였지만 그래도 명산 그늘이라 한껏 멋을 부린 마을의 이름이 재미있다. 현재의 관광로가 개통된 때는 1971년 12월 27일이다.

- 길게 읽기

인제읍에서 설악으로 가는 들목에서 만나게 되는 원통元通은 본래 원통역圓通驛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인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의 지명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 라는 푸념을, 어떤이는 한 임금이 설악에 파천해 있을 때 도성으로 보낸 차사가 매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연에서 생겨난 것이라

하나 그리 믿을만한 설은 아닌 듯하고, 아마도 첩첩산중 휴전선 근처로 배속받은 군인들 사이에서 처음 생겨났다는 것이 정설일 듯하다.

명산이란 본래 유람에나 좋은 땅이지 터를 잡고 살기에는 자못 불편한 곳이다. 탈속의 나그네에게야 더없이 아름다운 설악의 풍광일터이지만 생계를 작정으로 산중에 깃든 민생들의 호구지책에 있어서야 논밭 한 뼨기 갈기 마뜩찮은 명승을 어디에 쓰겠는가.

한계령 길과 미시령 길을 가르는 한계리 재내 瓦川마을의 이름엔 옛날에 기와를 구워 사람들이 줄지어 날랐다는 내력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의 한계령이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관광길이 되었지만, 그저 사람 하나 걷기에 맞춤형 앞새 우거진 오솔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옛날의 한계령 길이었다.

1971년에 군장비로 고갯길을 뚫고 한계의 지명地名을 따라 새로 붙였다는 한계령의 이름에 대하여는 이곳 사람들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부터도 그렇게 불렀다고는 하나 기록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한계령의 본명으로 유

력한 것은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五色嶺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편에서는 소동라령에 대하여,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산줄기가 겹치고 포개져 지세가 험하고 궁벽하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하였고, 《증보문헌비고》·《여지고》의 '양양부' 편에는 “오색령은 인제의 영로嶺路이며 소동라령, 조침령阻沈嶺, 구룡령九龍嶺은 모두 강릉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적혀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되는 중종25년(1530) 무렵은 소동라령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한계령이 길이 너무 험하다는 이유로 폐하여지고 이미 미시령 길을 새로 개척한 다음이다. 조선조 초기부터 한양가는 길로 삼았던 소동라령 풀숲에 묻히면서 점차 그 쓰임새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다만 같은 책에 실린 남대천南大川에 관한 기술記述 중 “강릉부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라령의 물과 함께 부의 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와 같은 대목을 보면 적어도 소동라령이 지금의 한계령 길을 가리키고 있음은 뚜렷한 사실로 보인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을 근간으로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1545) '양양도호부' 편에는 소동라령所等羅嶺으로 나오는데,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바드라재'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전의 문헌이 오직 소동라령을 고집하는 반면, 조선조 후기에 간행되는 문헌에는 오색령의 출현이 두드러진다. 《여지도서》, 《대동여지도》, 《증보문헌비고》 같은 기록에는 모두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적고 있다. - 이 명칭은 모르긴 해도 오색약수로 상징되는 남설악의 명승들과 관련된 자리가 클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그 자취를 잃은 '소동라령'이라는 이름이 완연히 모습을 감추고, 남설악으로 통하는 고갯길에 대한 새 이름으로 오색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한계령의 이름을 두고 동쪽 양양과 서

쪽 인제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오늘날 인제 지역에 공식적인 고개 이름을 내어준 양양 지역에서는 조선조 후기문헌에 그 근거를 둔 '오색령'에, 이에 질세라 인제 지역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전 문헌들의 힘을 빌어 '소동라령'에 더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한계령(935m)은, 미시령(767m), 진부령(625m)과 함께 설악권을 대표하는 세 고개중 하나로서 오늘도 그 아름다운 자태와 풍광을 잃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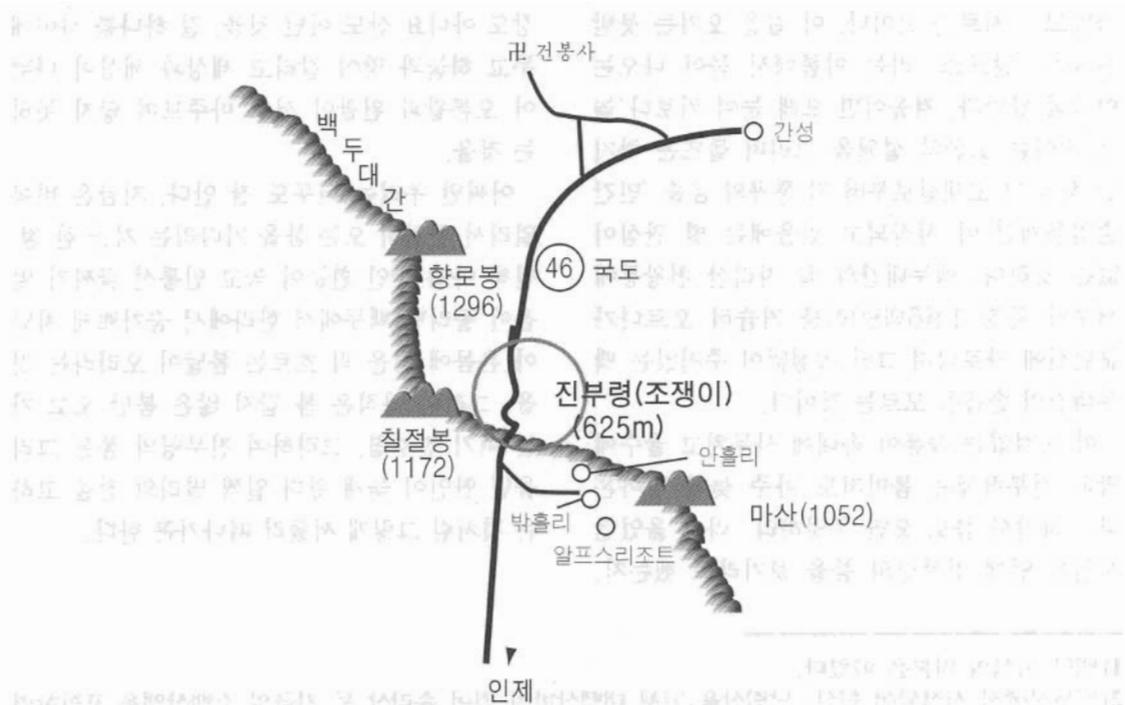
철책 앞에 멈춘 백두대간 진부령陳富嶺

- 짧게 읽기

강원도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간성읍 사이²⁾ 백두대간白頭大幹의 한 줄기를 이루는 고개로 해발 625m의 높이에 길이는 60km에 이른다. 이 진부령에 이르게 되면 저 거칠 것 없는 국토의 등뼈 백두대간도 한낱 철조망에 가로막혀 짐짓 그 발길을 멈추게 된다. 사람이 사람의 길을 막는 일이야 풍진 속세의 숙업이겠지만, 사람에게 막혀 더는 흐르지 못하는 이 나라의 세월과 산천은 대체 지난날 그리도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문느니 허리 잘린 백두대간의 기운 아직도 여여如如하신가.

- 길게 읽기

용대龍臺에서 오른쪽은 미시령이요, 왼쪽은 진부령이다. 금강산에서 무산巫山과 마기라산麻耆羅山(간성의 진산鎭山으로 지금의 향로봉香爐峰[1,296m])으로 달려온 백두대간이 진부령과 미시령을 건너면 이내 설악산이다. 이



두 고개 사이에는 지금은 풀숲에 가려 등산객들도 여간해서는 잘 다니지 않는 옛길 대간령이 있다. 소문이야 으레 한계령, 미시령과 더불어 설악의 준령으로 손꼽히지만 진부령 길은 어느 고개와는 견줄 바 없이 녹녹하고 수더분하다. 높지 않으니 가파르지 않고, 가파르지 않으니 당연히 그리 험하지도 않다. 길도 슬슬 몇 구비만 돌다보면 어느새 고갯마루에 닿고, 고갯마루에는 버스가 서는 차부가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가게들이 마을을 이루어 강원도 땅 백두대간의 고갯마루라고는 크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고갯마루가 이미 마을을 이루었으니 예로부터 부르기를 '조쟁이'⁴⁾라 하였다. 지난날, 영동의 해산물과 영서의 곡물이 마주 올라와 '이른 아침부터 장이 선다'는 내력으로 얻은 이름이다.

불과 2,30년 전만 하더라도 영동 북부지방에

서 서울 등지를 왕래하는 교통로로는 단연 진부령이 으뜸이었다. 비포장 도로 위를 11~12시간 동안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고행을 마친 뒤에 지친 몸을 마장동이나 신설동 시외버스 정류장에 부러 놓으면 강원도 사람의 티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게다가 일방 통행로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운행 시간은 예측을 불허하였다.

근래의 조쟁이는 행정구역상 흙屹3리로 고성군 간성읍에 속한다. 총 가구수라야 서른 집이 고작이다. 백두대간의 고갯마루, 하늘 아래 첫동네인 흘리는 비록 간성읍에 속하고는 있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따로 흘리 출장소가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성이라고는 하지만 흘리는 품 밖의 간성인 것이다.

진부령 길은 이제 어엿한 국도(46번)가 되어 오가는 발길이 늘었지만, 알고 보면 마치 몸뚱이의 절반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의 운명처럼

가엿고 애처로운 길이다. 이 길을 오가는 못발 길들은 '알프스' 라는 이름에서 물어 나오는 이국적 낭만과, 겨울이면 으레 눈이 키보다 높게 쌓이는 고산의 설원을 그리며 들뜨곤 하지만 정작 그 고갯길로부터 저 통곡의 금줄 '민간 출입통제선'이 시작되고 있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백두대간의 끝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물경 1천6백80리를 거슬러 오르다가 분단선에 가로막혀 그만 속절없이 주저앉는 백두대간의 슬픔을 모르는 것이다.

이 속절없는 슬픔이 속내에 사무치고 골수에 박혀 진부령에는 봄마저도 아주 늦게 찾아온다. '하기사 봄도 오면 무엇하리' 라고 읊었던 시인은 언제 진부령의 봄을 보기라도 했는지.

강도 아니요 산도 아닌 것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늘과 땅이 갈리고 세상과 세상이 나뉘어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마주보며 닿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지금은 비록 멀리서 천천히 오는 봄을 기다리는 겨울 한 철, 철책 아래 쌓인 흰눈이 녹고 민통선 골짜기 얼음이 풀리면 백두에서 한라에서 숨가쁘게 치달아 온몸에 더운 피 흐르는 봄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러나 아직은 봄 같지 않은 봄만 오고 가는 여기 진부령, 그리하여 진부령의 봄은 그리울던 연인이 늦게 왔다 일찍 별리의 정을 고향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 떠나가곤 한다.

1) 택당 이식의 원본을 따랐다.

2)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원산, 낭림산을 거쳐 태백산까지 뻗어 속리산 등 지금의 소백산맥을 포함하면서 지리산까지 세로 지른, 우리나라 국토 제일의 큰 산줄기이다. 3) 《산경표山經表》를 참고할 것.

3)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산맥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표시한 분포표. 조선조 영조 45년(1769), 신경준申景濬(1712~1781)이 편찬하였다. 대간大幹 1, 정간正幹 1, 정맥正脈 13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13년 최남선崔南善이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간행하여 널리 유포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4) 조朝는 아침을 뜻하고 쟁이商는 장사를 뜻하는데 구전口傳에 따르면 옛날 물물교환이 성행할 당시 영동과 영서의 중간 지점인 이곳에서 동해안 여물과 영서의 곡물과 산채 등을 교환하기 위해 장이 섰는데 주로 아침에 선다 하여 조장이라 부르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 원고를 모집합니다

《속초문화》지는 열려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상적인 생각이나 이 고장의 잊혀진 지명과 유래, 오래된 사진 등 내 고장에 관한 것이라면 귀하게 심겠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이지만 나누어 가지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화원 사무국(☎ 632-1231 · 전송 632-1241)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속초문화》지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경표》에서 백두대간~호남정맥까지



역사의 향기

-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사보고서
- 세계 최대 백옥외불, 영랑호 보광사에 안치
- 연鳶 kite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목조 아미타 삼존불 좌상 조사 보고서

최 현 식

속초문화원 이사·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이 글은 신흥사의 협조로 1994년 6월과 200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동국대 문명대 교수, 문화재관리국 김창균 문화재 전문위원과 필자가 공동조사한 내용이다.



삼존불 전체의 모습/ 목조 아미타 삼존불 좌상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본존 아미타불 좌상



우협시보살/ 세지보살 善世菩薩



좌협시보살/ 관음보살 觀音菩薩

- 조사대상 :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3구)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규격

(단위/cm)

	본존불	관음보살(향우)	세지보살(향좌)
불신높이 (머리높이)	162 (54)	146.5 (53)	150 (53)
무릎폭 (무릎높이)	112 (30)	96 (24)	93 (24)

○재질 : 목木

○조성년대 : 순치 8년(조선 효종2년 1651년)

○조성화원 : 무염無染

○현상

- 높직한 불단 위의 목조 팔각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이 삼존불상은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向右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른쪽向左에는 세지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 본존불은 양 어깨를 다 덮는 통견의通肩依에 아미타인阿彌陀印을 짓고 있으며, 좌협시인 관음보살상은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들어 올린 아미타인의 손모습에 중앙에 화불化佛이 안치되어 있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좌협시와 거의 같은 크기의 우협시상(세지보살상)은 관음보살상에 반대되는 손모양을 취하여 본존불과 같은 아미타인 손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 상 또한 머리에는 중앙에 보주가 장식되어 있는 보관을 쓰고 있다.

- 삼존상 모두 근년에 새로이 개금을 한 후 얼굴표현이 약간 어색해 보일 뿐 아무런 손상도 없이 잘 보존되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양식적 특징

〈본존불〉

- 모서리가 각지지 않고 둥글어진 얼굴형태와 두툼하게 살이 찐 두 뺨과 아래턱으로 인하여 원만상을 짓고 있으며, 귀는 같은 시기의

다른 상들에 비하여 유난히 크고 길다랗게 처리되어 있다.

- 굽어 살펴보듯 지긋이 내려 뜬 눈은 눈꺼풀과 눈자위를 통통하게 하고 눈썹을 둥글게 처리하여 자애로움이 충만한 듯하며, 자그마한 입은 꼬리를 살짝 치켜올려 얼굴에 웃음기가 번져 나오게 하였다. 17세기 불상들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양식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코는 눈썹이 시작되는 미간으로부터 곧바로 콧등이 높아져 오뚝해 보인다.

-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또렷한 머리는 육계가 둥그스름하여 얼굴 전체에 부드러움을 주고 있으며, 다소 짧아진 목은 삼도가 확실하다.

- 아미타인의 두 손은 왼손을 대퇴부에 올려놓고 오른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댐으로써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취하였다.

- 비교적 양감이 풍부하고 사실적 묘사를 보여주는 얼굴에 비하여 넓은 어깨로 당당해 보이는 신체는 몸통을 양분하듯 수평으로 가로지른 내의의 표현이 단조롭고, 가슴표현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 밋밋한 원통형을 이루어 사실성이 결여되었다.

- 허리를 곧추 세우고 어깨 부분만을 살짝 구부려 굽어보듯 조성된 이 본존불은 머리와 몸통·무릎의 신체 비례가 적당하며, 넓은 무릎으로 안정감 있는 17세기의 수작으로 평가된다.

- 이 불상에서는 복장물이 소실되어버려 조성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상의 밑바닥에 쓰여있는 가로·세로의 묵서명과, 좌협시상(관음) 발견의 복장 가운데 이 삼존불상의 조성 에 관한 축원문과 기문이 남아있어 주목된다.

(가로묵서명)

香山普賢寺

造佛次雪岳山

神興寺佛相(像)造成也

(세로목서명)

順治八年辛卯八月日化主靈□

畫員無梁謹封

(축원문)

順治八辛卯八月十九日腹藏安莊嚴
祝願….

(기문)

康熙五十九年庚子五月十日佛像腹
藏安嚴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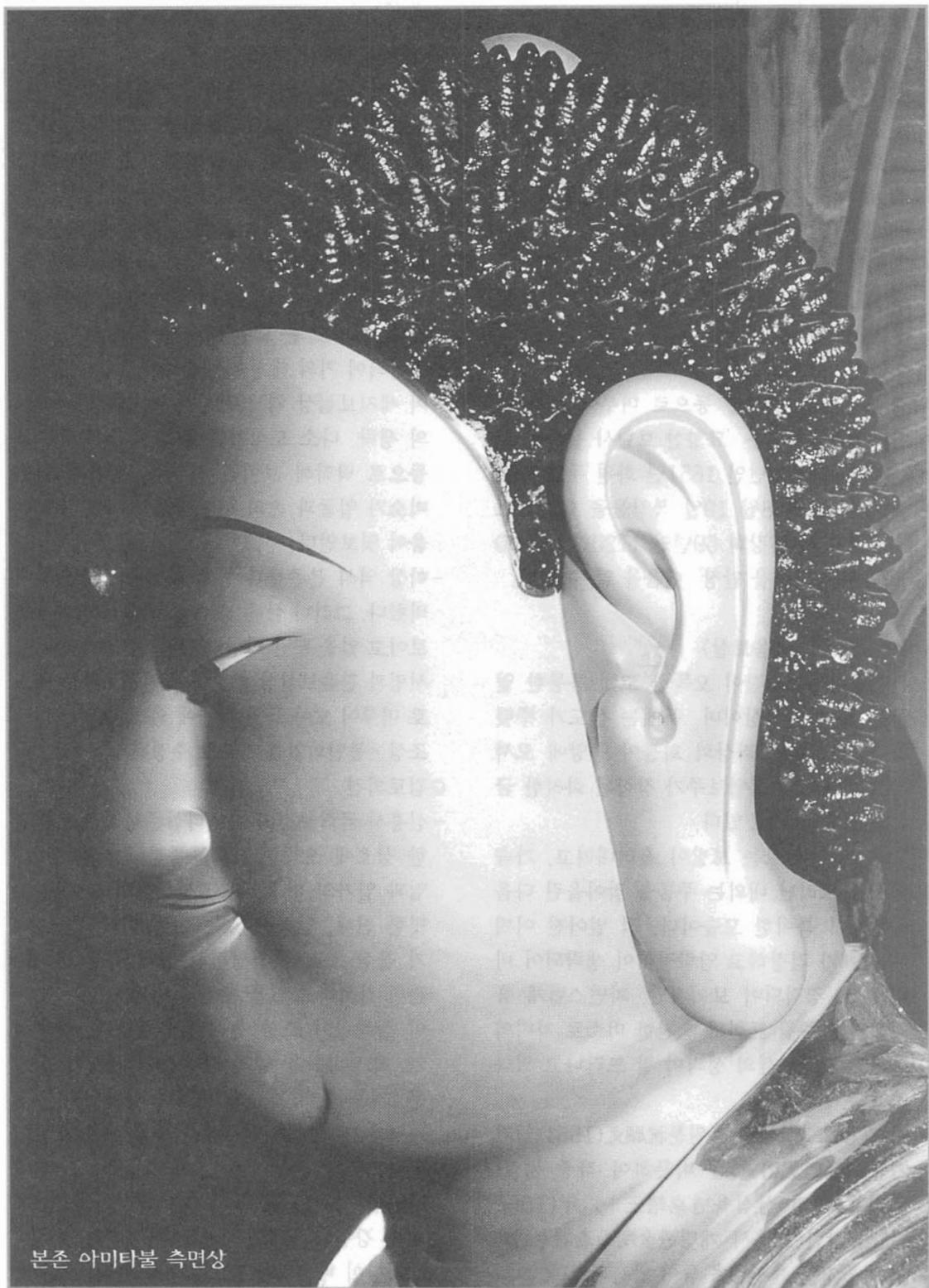
위의 목서명과 복장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아미타삼존불좌상은 '묘향산 보현사 불상을 조
성한 다음 순치 8년인 1651년 화원 무염 스님
이 만들어 그해 8월 19일 복장물을 안치했으
며, 69년이 지나 강희 59년인 1720년 5월 10
일 또다시 복장물을 안장' 했음을 알 수 있다.

〈좌협시보살 : 관음보살〉

- 본존불과 거의 같이 오뚝한 코에 통통한 얼
굴을 하여 원만상이며, 목에는 삼도가 뚜렷
하다. 머리에는 좌상의 화불이 중앙에 모셔
지고 빙 둘러서 화염보주가 장식된 화려한 금
속제 보관을 쓰고 있다.
- 넓은 어깨 위로는 보발이 흘러내리고, 가슴
밑으로 드러난 내의는 주름을 잡아올린 다음
동여매어 특이한 모습이다. 떡 벌어진 어깨
에 신체가 긴장하고 영락장식이 생략되어 버
려 다소 경직되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흘
려내린 옷주름 표현과 잔잔한 미소로 자비의
화신인 관음보살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 이 관음보살상에서 축원문祝願文(1651년)과
기문記文(1720년)을 비롯하여 각종 씨앗,
후려통 가정 삼십육년嘉靖三十六年(1557
년) 금강산 표훈사 개명판金剛山表訓寺開銘
板 목활자본 불서佛書 등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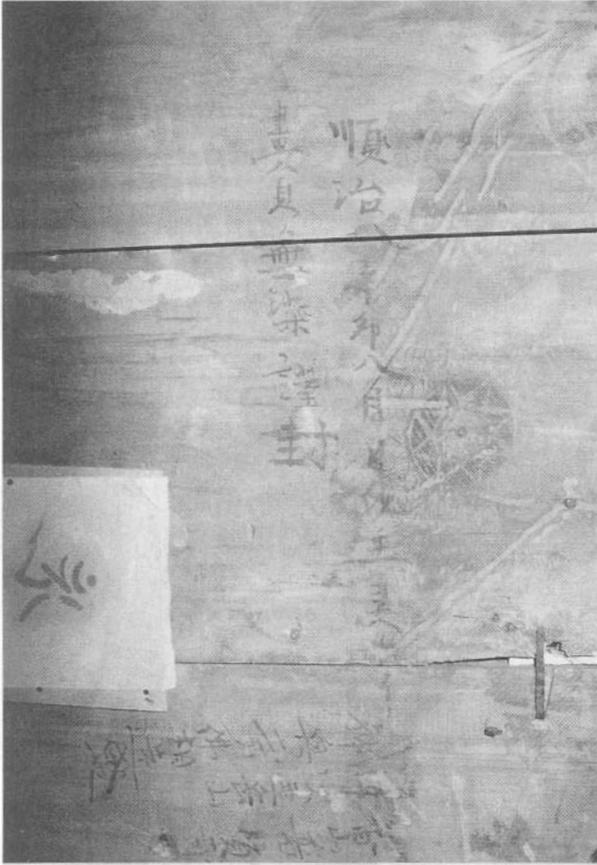
〈우협시보살 : 세지보살〉

- 관음보살상과 거의 같은 크기의 상으로 얼굴
표현과 금속제 보관, 옷입는 방법과 옷주름
표현 등이 마치 한 틀로 찍어낸 듯 유사한 면
이 엿보인다.
 - 다만 보살상의 성격상 보관 중앙에 화불 대
신 보주가 장식되어 있으며, 내의의 표현 역
시 아무런 꾸밈 의도없이 평범하게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손 또한 좌우가 서로 뒤바뀐 채
조성되어 거의 대칭을 이룬다.
 - 이 세지보살상 역시 긴장한 체격과 영락장식
의 생략, 다소 도식적인 무릎 부분의 옷주름
등으로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입가의 얇은
미소가 얼굴과 손의 사실적인 묘사로 부드러
움이 엿보인다.
 - 이상 역시 본존불과 함께 복장물이 소실되어
버렸다. 그러나 삼존 모두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존불 밑바닥의 목
서명과 관음보살상 발견의 축원문·기문 등으
로 미루어 보아 동일 작가에 의해 같은 시기에
조성·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검토의견
- 신흥사 극락보전의 아미타삼존불좌상은 원만
한 상호에 오뚝한 코, 통통한 눈꺼풀, 작은
입과 입가의 미소, 다소 사실성이 결여된 밋
밋한 신체,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 등 17세
기 불상 조각의 전형적인 양식 특징을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삼존상의 조성 유래와 조성년대, 중수시
기, 조성화원을 알게 해주는 목서명과 축원
문, 기문 등의 자료가 충실히 남아있어 강원
지역 17세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
된다.
 - 따라서 아미타삼존불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존 아미타불 측면상

본존불 밑바닥 묵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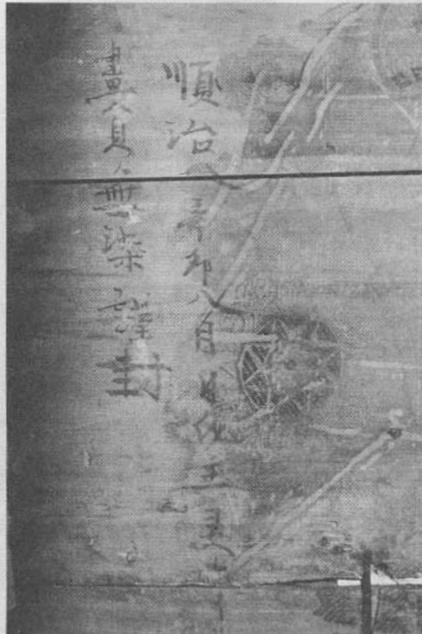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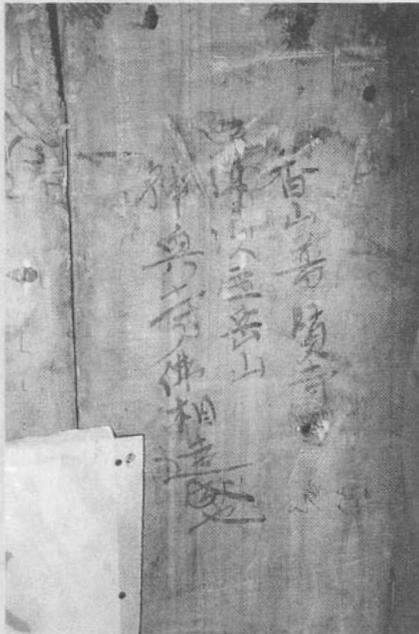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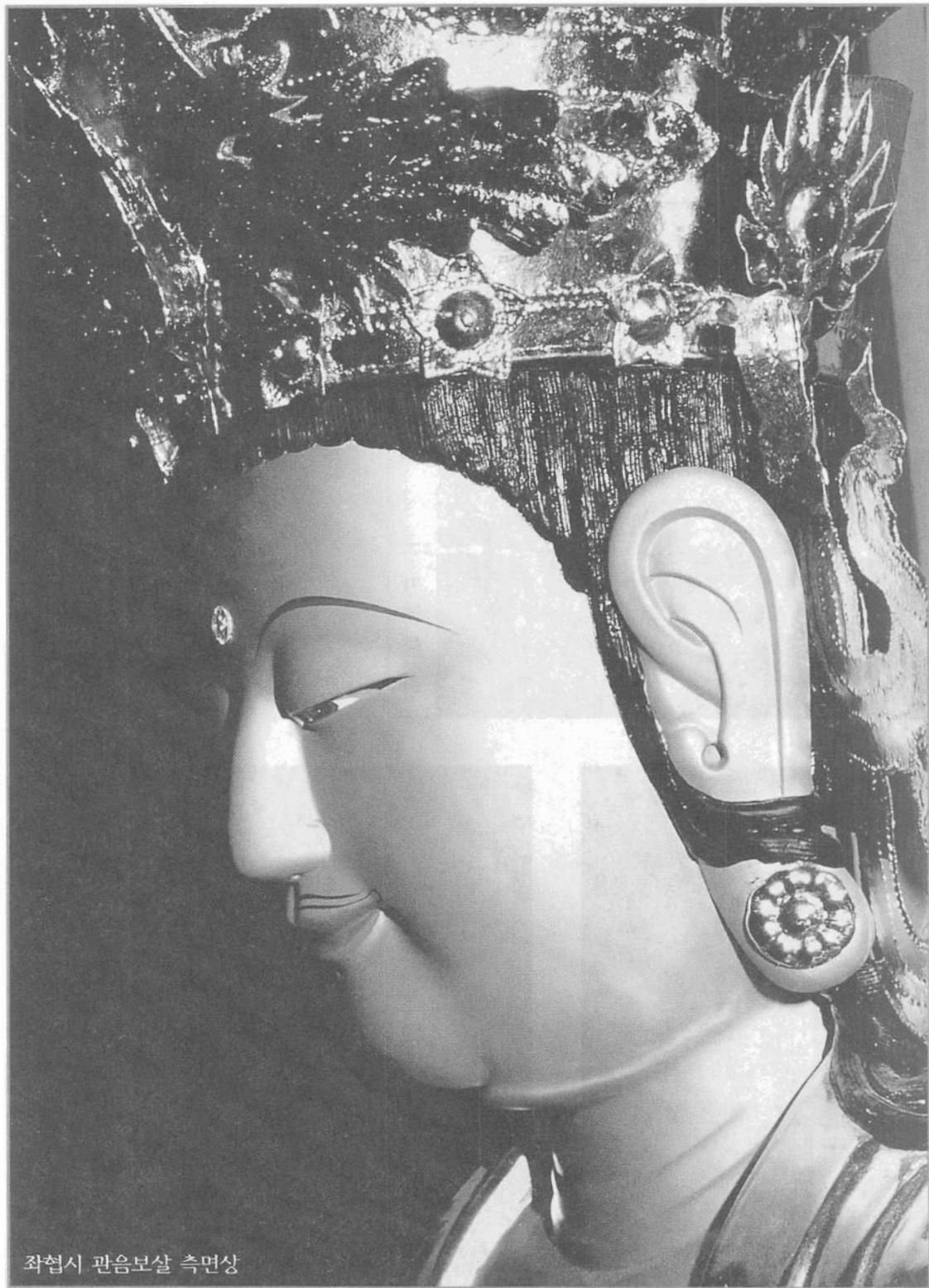
세로
묵서명

가로
묵서명



- ① 묵서명 전체 모습
- ② 가로 묵서명
- ③ 세로 묵서명





좌협시 관음보살 측면상

관음보살 복장물 중
축원문·기문

가정 36년 명불서 (1557년)

각종 씨앗



관음보살(좌협시보살) 좌상 내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 일체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腹藏安世四祝願

朝鮮國王李壽命萬歲

王妃殿下張氏壽萬歲

大王王妃殿下趙氏壽萬歲

世子殿下李壽萬歲

國泰民安法輪轉

諸宮宗室各安寧

文武百僚忠輔禮

本道監司杜鑄基忠良

本府府使宋國輝壽命長

各先亡往西方

見佛開法悟無生

佛像大施主趙慶男兩主

佛像大施主鄭金伊兩主

普金大施主姜勝先兩主

普金大施主金順日兩主

李成立兩主

洪汝白兩主

李芳奎兩主

沈應兩主

沈男兩主

沈女兩主

沈女兩主

沈女兩主

沈女兩主

沈女兩主

沈女兩主

沈女兩主

康熙五十九年庚子五月十日佛像賜

蘇安蘇記文

真佛無形假形像故依求願似

顛倒取像凡夫何處憑不可向靈

與敬禮故復借像表真像如祈雨

者依卓龍橋之真龍降而建假

像而致即真佛出應斷無疑安

用真佛為分別法身無相乃即相

本真見真身然即造像大檀越執

務緣化隨喜助緣給侍供饋者享世

遐齡歸福壽臨命終時無障礙面

見彼佛大慈父金色光中蒙慶記

九宮蓮臺任意遊承唯五濁堪思

苦如彼薩陀太子身遠遠撒出世累

中和光同坐度有情亦教利善

提接引同入彌陀大道場無餘涅

盤成正學諸施檀越開列于后

朝鮮國王李壽命萬歲

王妃殿下金氏壽萬歲

世子殿下李壽命萬歲

國泰民安法輪轉常殿

諸宮宗室各安寧

文武百僚忠輔禮

本道監司杜鑄基忠良

本府府使宋國輝壽命長

관음보살 부장물 중 축원문과 기문

嘉靖三十六年二月日金剛山表訓寺開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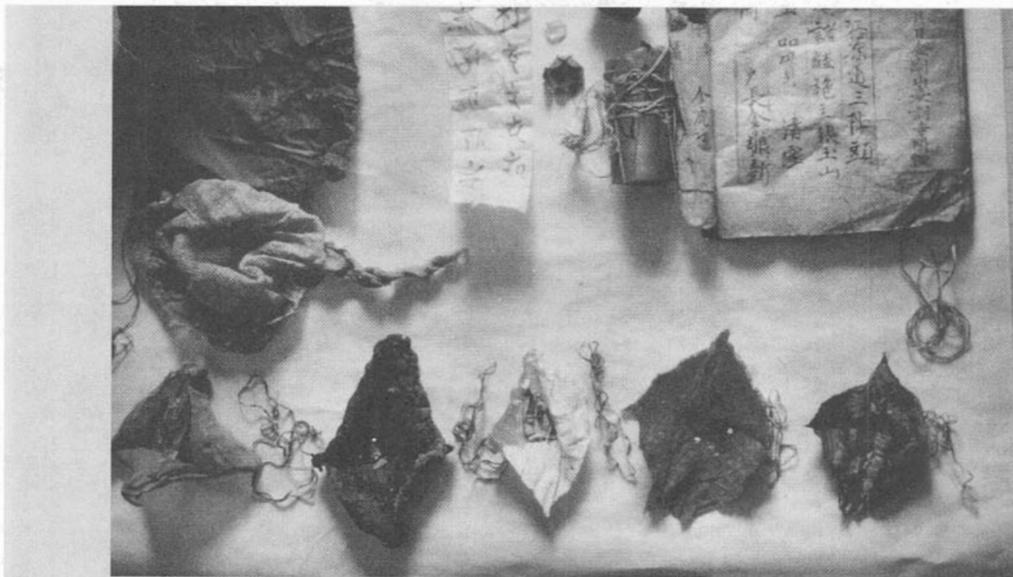
乙巳十一月廿日江源道三陟頭

施山白雲庵諸經施主張玉山

供養大施主 四安員 清寧

大施主姜同 戶長金龜新

금강산 표훈사 개판명
가정 36년(1557) 목활자본 불서



관음보살 복장 유물 중 각종 씨앗들



관음보살 복장 유물 중 후령통과 판본



관음보살 복장 유물 중 후령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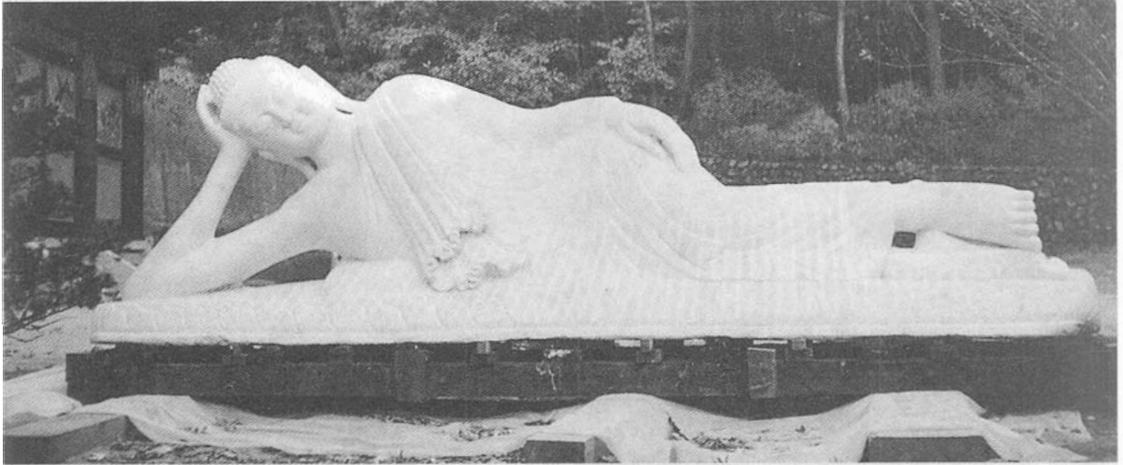


세계최대 백옥와불, 영랑호 보광사에 안치

석 문/보광사 주지

세계 최대의 백옥석 “부처님 와불상”이 이곳 영랑호 보광사에 안치돼 국내 불교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5월 11일 부처님오신날 동문성 속초시장, 최용문 문화원장을 비롯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불조성 기공식을 갖고 지난 10월 27일 보광사 백옥와불 추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백옥와불 이운식은 1백여명의 신도들이 참석, 와불부처의 높은 은덕과 중생구제를 비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백옥와불”은 미얀마 현지에서 생산되는 천연 백옥석을 재료로 1여 년 간 제작되었으며 와불 부처님의 법체의 범량은 5톤, 길이 5m의 백옥석으로 조성하여 백옥와불상으로는 세계최대이고 초대형으로 편하게 누워 미소짓는 부처의 모습이 종교적 차원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 중생들의 안식과 동고동락을 믿음으로 지난해 11월 제작에 들어간 백



옥와불 추진위원회는 3명의 석공을 미얀마로 직접 파견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백옥와불 만들기에 들어갔다. 백옥을 자르고 깎는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작업을 위해 총감수는 불교미술, 이 범 불광원장님이 맞아 미얀마를 오가기를 수차례 하였으며 시공처는 미얀마 KM사의 조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스리랑카 스보리다마사 담마와사 스님이 후원하였다.

부처님 와불을 모시게 된 것은 이 국토에 반드시 정토의 세계가 도래하고 민족화해와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서원하는 대원을 세워 이곳에 와불상을 발원, 보광사 주지 석문, 관문, 광진, 지웅, 각능, 원상, 문수, 하중, 정념, 각일, 각주, 정덕, 석천, 법조, 지훈, 현성, 현두, 종연 스님 등과 보광사 불자들이 함께 하였다.

2000년 9월 미얀마에서 한진해운으로 1개 월여에 걸쳐 해상으로 운송, 10월에 인천까지 이운되어 통관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천에서 10월 26일 속초로 운송되어 27일 이운식의 봉축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영랑호 보광사는 화랑 영랑이 호수의 아름다운 정취에 도취되어 이곳에 머물러 수련 끝에 신선이 되었다 하여 그의 이름을 따 영랑호라 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이곳에 화담 화상께서 수행의 터전이라 하여 토굴을 지어 보광사를 개창하였다.

영랑호 보광사 입구쪽에 위치한 큰 바위에는 대법사 정화담이라는 암각화가 존재하고 있다.

보광사는 우거진 송림 속에 사시사철 목탁 소리와 사람의 인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새벽으로는 보광사 노승의 등산로와 호숫가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운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곳 산등성이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일출은 장관을 연출하고 설악산의 울산바위는 그 듩직한 모습으로 보광사를 내려다 보고 있어 세상사의 피로를 씻게 하고, 멀리 보이는 금강산을 바라보며 통일의 염원을 마음에 담아 많은 이들이 두 손 모으게 하고 있다. 영랑호 보광사는 설악을 주산으로 굽어쳐 내려와 영랑호에 머물러 솟구치는 회룡교조형이며 번뇌가 없는 와우臥牛형 터로 이 자리에 범지法地의 와불 부처님을 모시고 중생들을 더욱 행복한 삶으로 굽어 주실 것이다.

또한 영랑호 보광사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살려 보존 계승하고 전승시키려는 마음들이 모여 속초 시민의 안녕과 관광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제를 맞이하여 달집 태우기와 장승제를 시민과 함께 하여 화합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鳶

kite



“연을 가지고 놀 때 한국인은 의젓하였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노예의 조건을 거부한다.”

- 《한국찬가》 (* C.V.게오르규著)

예로부터 '연'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설날이 되면 동네 꼬마들은 모두,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연에 그들의 소원을 실어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어느 정도 연배에 이른 어른들에겐 연날리기 뿐 아니라 연싸움에 대한 기억들도 새로울 것이다. 마을의 모든 연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남은 연이 땅에 내려지면, 수많은 군중들은 운동경기에서 승리한 챔피언을 맞이하듯 박수 갈채를 보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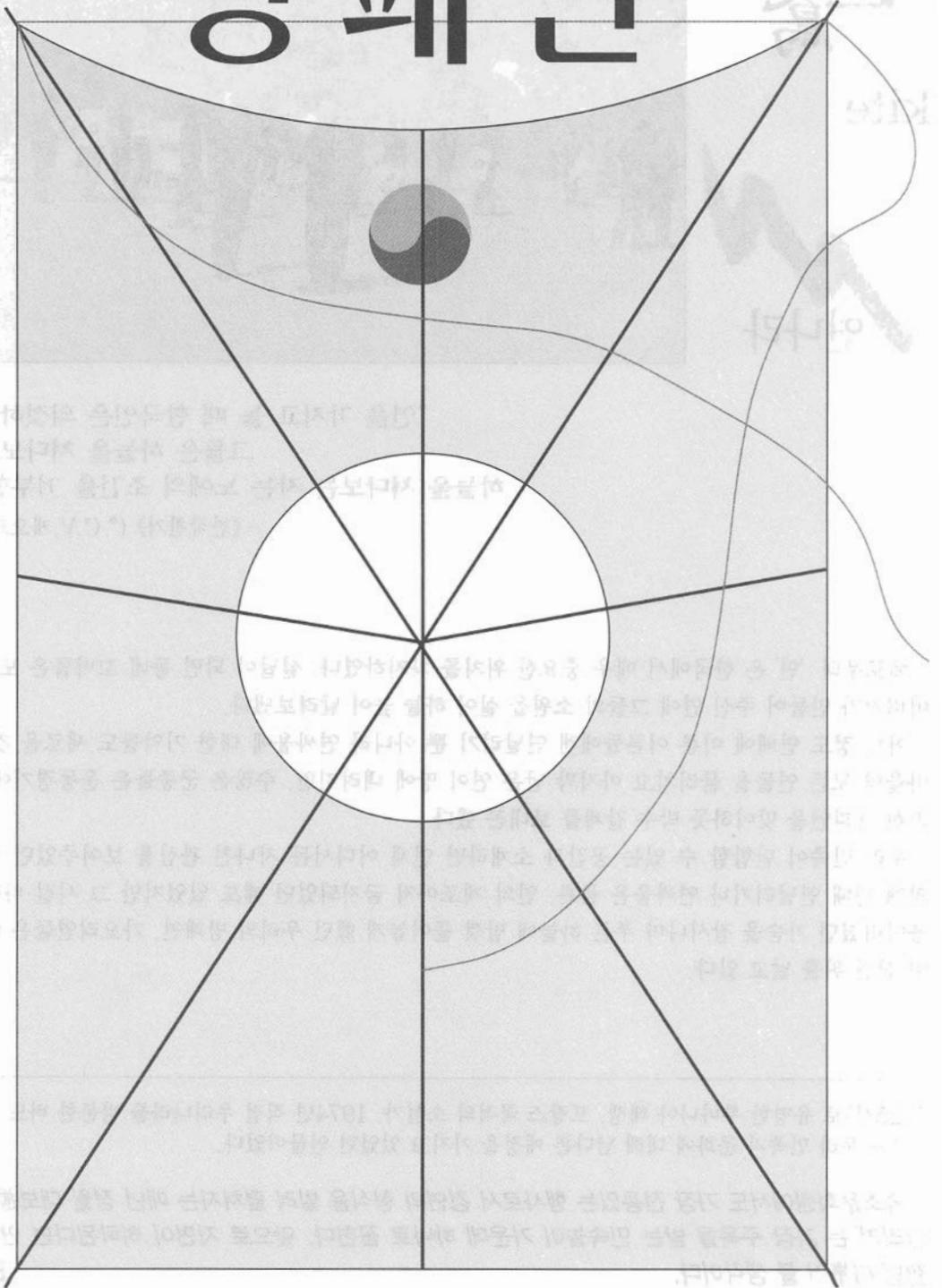
우리 민족이 단합할 수 있는 공간과 소재라면 언제 어디서든 지나친 관심을 보여주었던 일제에 의해 한때 연날리기나 연싸움은 물론, 연의 제조마저 금지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 시절 마다마디 응어리졌던 가슴을 잠시나마 푸른 하늘에 맘껏 풀어놓게 했던 우리의 방패연, 가오리연들은 아직도 이 산천 위를 날고 있다.

* 《25시》로 유명한 루마니아 태생, 프랑스 국적의 소설가. 1974년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도 있었던 그는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속초문화원에서도 가장 전통있는 행사로서 경연의 형식을 빌려 펼쳐지는 매년 정월 대보름의 '연날리기'는 가장 주목을 받는 민속놀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 지면이 허락된다면 연재물로 한번 다루어 볼 생각이다.

- 편집부

방패연





1978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연날리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는 속초문화원의 가장 오래된 민속 경기이다.

연의 유래

우리나라의 연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에 신라 진덕여왕 원년(서기647년)에 김유신 장군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연을 사용하였으며, “동국세시기”에서는 고려의 명장 최영 장군이(서기1351년) 탐라(현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몽고인들의 반란을 정벌할 때 연을 사용하여 성안을 정찰하고 갈대 씨를 뿌린 후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후 불을 질러 섬을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전술비연을 제작하여 섬과 섬, 섬과 육지 등을 서로 연락하는 통신수단 및 작전을 지시하는 전술신호와 암호수단으로 사용한 예를 볼 때 우리는 더 한층 우리 겨레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후, 영조대왕 때(1724년)에는 궁안에서 청·홍으로 편을 나누어 연을 날렸으며 동네마다 백성들의 화합을 위해 연날리기를 적극 장려한 바, 농한기 때인 음력 12월부터 연 날리기를 시작하여, 그 절정인 정월 대보름날에 “액막이연”을 날려보냄으로써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연 날리기를 끝으로 농사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 고유의 연 날리기는, 조선시대 말 일본의 우리 민속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금지하였으며, 또한 6.25동란 등으로 인해 연날리기는 우리 민속놀이로서의 명맥이 거의 사라져 갔으나, 자유당 시절 민족정신을 계승하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연날리기를 적극 장려하고, 연 관련 기능 보유자들을 수소문하여 광복후(1954년) 처음으로 연날리기 대회를 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이야기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연을 날리는 사람을 왜 “백정”이라 하였을까?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1724년 영조대왕 당시만 해도 연은 궁 안에 서만의 놀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삼정승 육판서들이 모두 모여 친목도모를 위한 연 끊어먹기 시합을 하다가 한 정승의 연이 밭에 떨어졌고 그 연을 밭을 갈던 농부가 발견하게 되었다. 연이란 것은 궁안의 정승들이 날리는 것이였기에 돌려주려고 궁으로 찾아가니, 정승은 “이 연은 나에게 필요치 않으니 자네가 가지고 가서 날리도록 하게나!” 하였다. 그 이유는 연에 오물이 묻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농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즉시, 연에 묻은 오물을 깨끗이 닦고 하늘에 띄어보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부는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연을 만들어 날려보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연 날리기는 정말 신나고 즐거운 놀이여서 모두가 좋아하게 되었고, 마을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연 날리는 재미에 취하게 되어 농사는 점점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승이 “아! 큰일일세. 백성들이 농사일은 게을리 하고 연만 날리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던 끝에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게 되었고, 이에 왕은 정승들과 판서들을 불러모아 이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회의 중 한 정승이 “정월 대보름이 지나서 연을 띄우는 자는 ‘백정’이라 칭한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왕은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고 기뻐하시며 다음날 바로 방을 붙이도록 이르셨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백정”이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은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고 있는 터라 그 방을 붙인 후로는 정월 대보름이후 연날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연 날리기는 겨울철에 하는 놀이가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연에 대한 옛이야기가 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소망연(액막이연)

연날리기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 민속놀이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현대놀이 문화의 발달과 컴퓨터 전자오락문화 등으로 쇠퇴해 왔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날리는 때가 바로 설날에서부터 정월대보름까지인데 특히, 보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써서 하늘 높이 날린 후에 연줄을 끊어 하늘 끝까지 한없이 날아가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해에 자기에게 다가올 액운을 연과 함께 날려버려, 아무 탈없이 무병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아름다운 우리의 풍속으로서 이것을 송액 또는 액막이연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연날리기가 일반인들에게 민속놀이로써 널리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 영조임금의 때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전국에서 연날리는 사람들이 한양의 수표교에 모여 전국적인 행사를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우리 민속놀이가 일제시대 때에 와서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 및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연나라”에서는 이러한 우리 고유 풍속을 이어받아 전국에 보급은 물론, 우리 “소망연” 날리기가 전세계의 건전한 놀이문화로써 알리기 위해 조립식 열레 및 액막이연이 가능한 하회탈 소망연과 토끼 소망연을 조립식(일명 “동네꼬마”)으로 고안하여, 이번 정월대보름을 맞아 3월 1일(3.1절)에 서울 한강 고수부지에서 제1회 소망연(액막이연) 날리기 행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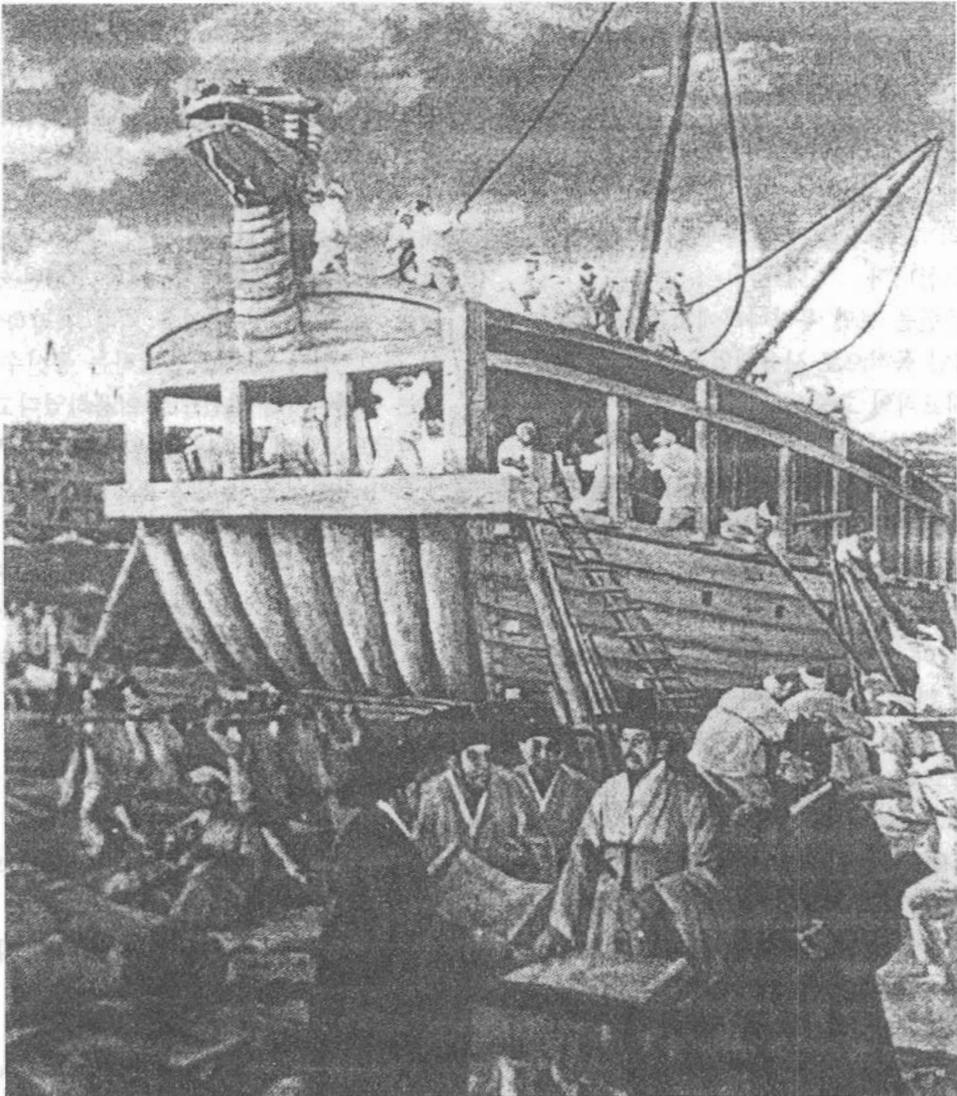
계기로 우리 전통 연을 이해시키고 전국적으로, 전세계에도 보급하여 우리 전통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많은 격려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이 충무공 전설비연

‘이 충무공 전설비연’은 오늘날과 같이 무전기나 무선통신 등이 없었던 400년 전인 임진왜

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과 함께 왜적을 물리치는데 통신 및 암호 수단으로 사용했던 일종의 신호 연입니다.

“이 충무공 전설비연”은 잘 조화된 색상과 수십가지의 아름다운 문양으로 각각 연마다 훌륭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되었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연들은 연에 그려진 문양에 따라 뜻을 달리하여 사용되었는데 삼봉산 문양의 연(일명, 삼봉산연)을 띄워 날리면 삼



봉산에 모이라는 뜻이고, 삼각형을 2층으로 크게 그려넣은 연(기바리연)을 띄우면 왜적과 백병전으로 맞붙어 싸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청색바탕에 붉은 문양이 그려진 연(청홍외당가리연)이 떠오르면 “동쪽과 남쪽에서 동시 공격하라”는 뜻이고, 고리가 아래로 길게 늘어진 연(긴고리연)이 떠오르면 “태풍이 불때 군선의 줄을 길게 매라”는 뜻이며, 또한 동그란 달 모양을 그려넣은 연(된방구쟁이연)이 뜨면 “달이 뜰 때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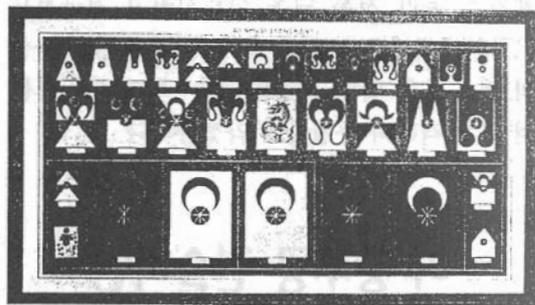
우리 “전통 방패연”은 가운데에 방구멍이 있어서 바람이 약하거나 강할 때도 날릴 수 있으며, 하늘을 전후좌우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연으로, 이러한 옛 선조들의 과학적인 연 제작의 발상과 이 충무공의 과학적인 연의 이용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다시한번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옛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연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고증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방패연에 여러가지 문양을 그려 넣어 전투명령 전달의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현재 총 55종의 문양과 그 뜻이 전해오고 있는 전술비연은 각각 문양마다 다른 암호를 넣어 작전명령 전달을 위해 쓰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400년 전 통신수단으로 이용된 연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연의 문양이 나타내는 명령과 각각의 연의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 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초기에는 연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연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나 최영 장군이 연을 이용하여 성을 함락했다는 기록이 문헌에 나타나 있다.

연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500 10월 19일... 3월 19일... 5월 19일... 7월 19일... 9월 19일...

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연을 통신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거북선의 과학적 구조와 견고함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북선을 제외하고 임진왜란 때 통신수단으로서 큰 공헌을 한 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과는 달리 무전기가 없었던 그 옛날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은 연을 직접 제작하여 섬과 섬 사이, 섬과 육지를 연락하는 통신수단으로, 또는 작전지시의 방편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이 충무공이 작전신호 및 암호용으로 사용했다는 이 충무공 전술 신호연은 수십가지에 달하는 연의 문양과 각기 다른 문양으로써 잘 조화된 색상, 그리고 연에 그려진 문양마다 다른 연의 명칭과 대나무로 교묘하게 잘 다듬어진 연의 살대, 연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과학적인 제작방법을 택하고 있다.

군사작전 신호용으로 사용된 이 연은 연에 그려진 문양과 색깔에 따라 명령 내용을 달리하여 사용되었는데 전투 중에 사전의 상황을 알려 지휘관 또는 병사들에게 전투준비를 갖추라는 예지신호이자 작전명령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이 신호연은 일종의 통신위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적군이 알지 못하도록 문양에 각

기 다른 암호를 넣어 전투명령 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과학성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이 연은 당시 국가의 극비였기 때문에 남은 기록이 거의 없어 연의 문양이 지닌 의미를 밝히는 데 상당히 힘든 고증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6~7년만에 31가지의 군사 작전 신호연을 재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연의 문양에 따라 명령이 달랐는데 삼봉산 문양이 있는 '삼봉산연'을 띄우면 흩어져 있는 군선과 군사들은 삼봉산 앞 바다로 집결하라는 뜻이 된다. 또 삼각형 모양을 2층으로 크게 그려넣은 '기바리연'이 올라가면 백병전으로 왜적과 싸우라는 뜻이며, '돌쭉바지기연'을 올리면 병참이나 병기의 보급을 알리는 뜻이 된다.

총무전술비연 중 28가지 연에 대한 각각의 명칭과 연에 그려진 문양이 나타내는 숨은 뜻, 명령의 내용, 그리고 연에 담긴 명령을 언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밝혀진 바로는 다음과 같다.(별첨 사진 참조) 총 55종의 문양이 남아있는 이 총무공 전술 신호연은 특이하게도 후퇴라는 명령의 신호가 없었다고 한다.

연의 문양에 넣은 색 또한 우리 민족의 오행사상의 기본색인 빨강(홍), 파랑(청), 노랑(황)의 유채색과 까맣(흑) 흰색(백)의 무채색을 사용하였다. 이 색은 각각 오행사상의 오방위를 상징하는데 황은 중앙, 청은 동쪽, 흑은 북쪽, 백은 서쪽, 홍은 남쪽을 뜻한다고 한다. 또 하나는 하늘에 연을 띄웠을 때 붉은 색, 흰색이 검은색이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이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연의 크기는 가로가 90~120cm로, 하늘에 높이 띄워도 연에 그려진 문양이 아군들에게 뚜렷하게 보이도록 대형 연을 제작했다고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통신수

단으로서 연의 기능을 볼 때 매우 과학적인 제작방법이 요구된다. 그 중 연의 움직임과 견고함을 결정하는 대사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연을 안정적이고 높게 띄우기 위해서는 기둥살을 윗부분은 둔탁하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연하게 만들어야 하며, 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살(가늌살)은 사람의 허리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굵어야 힘이 있어 움직임이 용이하고, 너무 가늘면 연이 올라가면서 균형을 잃게 된다.

전략상 통신 및 암호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이 총무공 전술 신호연은 눈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400년 전 전쟁무기로서 수천 수만의 생명을 좌우하는 작전용 명령신호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운데 방구멍이 있어 바람이 약하거나 강하게 불 때도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으며, 날리는 사람의 손놀림에 따라 급상승과 급하강, 전진과 후퇴 등이 가능한 과학적 구조를 가진 방패연의 제작과 이 총무공의 과학적인 연의 이용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과학적 지혜를 다시한 번 엿볼 수 있게 한다.

총무공 전술 신호연의 구조와 특성

■ 방패연의 구조와 특성

방패연의 구조

(1) 우리 방패연은 보통 직사각형의 한지 대나무 살 5개를 가로질러 붙이고, 가운데에 세계 각국의 연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연만 있는 방구멍이라는 바람구멍을 뚫어 놓은 연으로, 연 위에 그리는 그림 문양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하고, 그곳에 과학적으로 벌이 줄을 매어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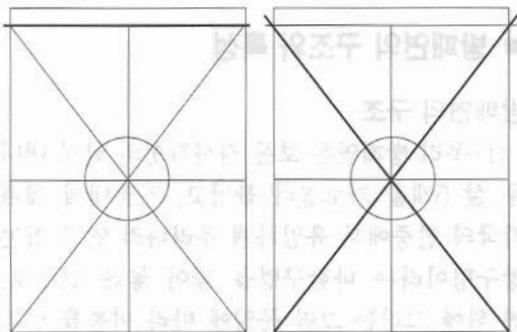
을 날게 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방패연의 특징

(1) 새, 물고기, 용 등의 그림이나 모양으로 그저 높이 띄우는 데만 관심을 갖는 외국연에 비해, 우리 방패연은 방구멍으로 바람이 약할 때에는 바람의 힘을 모아주고, 강할 때에는 바람을 구멍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여, 어느정도 강한 바람에도 연이 잘 상하지 않으므로 바람이 약할 때나 강할 때 모두 잘 날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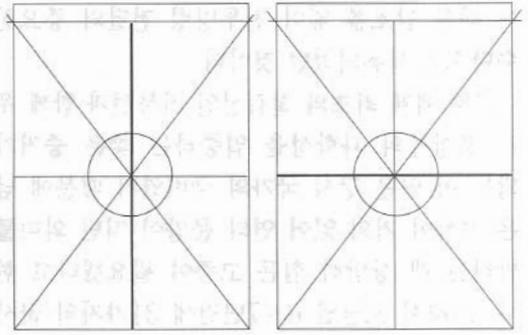
(2) 머릿살의 양끝과 연의 가운데, 아랫부분(공수구멍)의 연줄을 같이 모아 과학적으로 매었으므로, 연 실을 조종하는 열레 및 날리는 사람의 손놀림에 따라 연을 하강, 좌우로 빙빙 돌기, 급상승과 급강하 및 전진후퇴 등의 공중묘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높이 날리고, 빠르게도 날릴 수 있는 우리 방패연은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위에 장식하는 그림 무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으며(꼭지연, 반달연, 치마연...) 그 중에서도 이 충무공이 만든 "충무전술비연"은 수십가지의 문양으로써 통신과 전술의 신호로 이용해 온 것은 우리 방패연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 방패연 만드는 순서와 각 부분 명칭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재료 : 머릿살, 허릿살, 장살(2개, 제일 긴 것) 중살,한지, 풀

○준비물 : 자 컴퍼스, 연필, 가위, 튼튼한 실

* 연을 만들기 전에 설명을 잘 읽어본 뒤에 순서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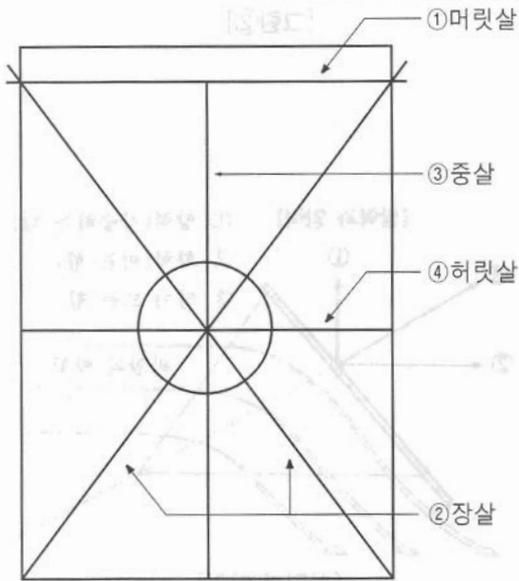
* 연 살이 구부러진 것은 양손으로 곧게 잘 편다.

* 연 종이를 세로로 반을 접고, 연의 윗부분 머릿살 붙이는 곳(약2cm)은 가로로 접는다. 머릿살, 장살, 중살, 허릿살 붙일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고, 방구멍은 규격에 맞게 컴퍼스로 그린 다음 오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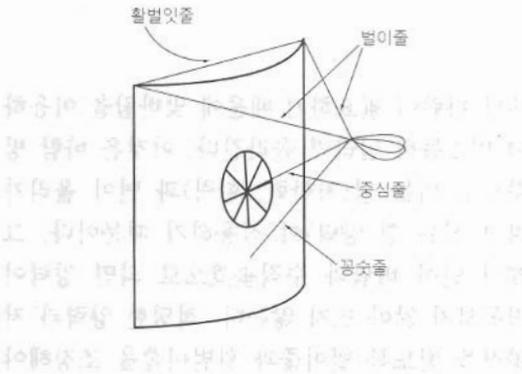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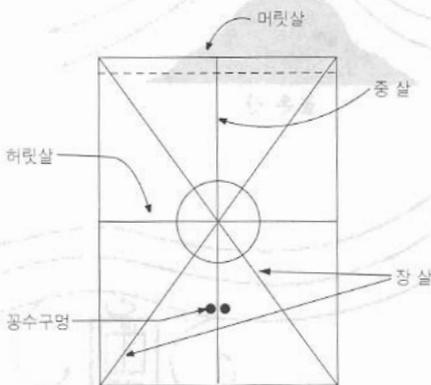
1. 연의 머릿살을 붙인다.
 - ※ 대나무에는 겉대와 속대가 있는데 마디가 튀어나오고 반질반질한 부분이 겉대이므로 반대쪽인 속대(노란)부분에 풀칠한다.
2. 두 개의 장살을 대각선으로 붙이되, 아래 부분을 먼저 붙이고 위를 붙인다.
3. 다음에 중살과 허릿살을 붙이는데 대각선 장살 밑으로 넣어 붙인다.
4. 머릿살 윗부분 종이에 풀을 칠하여 잘 접어 붙여 마무리 한다.
5. 연이 완성되면 양 귀를 당겨 활별잇줄을 매고, 양 귀에 모두 줄을 맨 다음, 중살의 아래 부분에 그림과 같이 연필로 두 개의 구멍을 뚫어(공수구멍) 줄을 매고, 연의 중심이 되는 뗏살 교차 부분에도 줄을 매어 네 개의 줄을 합한다.

※ 줄의 길이는, 양 귀의 두줄(벌잇줄)은 공수 구멍 뚫은 곳까지로, 공숫줄의 길이는 양 귀 지점까지로 정하고, 가운데 줄은 약간 느슨하게 하여 4개의 줄을 합하여 매듭을 진다.

■ 방패연 댕살 붙이기 순서 및 명칭



■ 방패연 규격 및 명칭 (가로 : 세로 = 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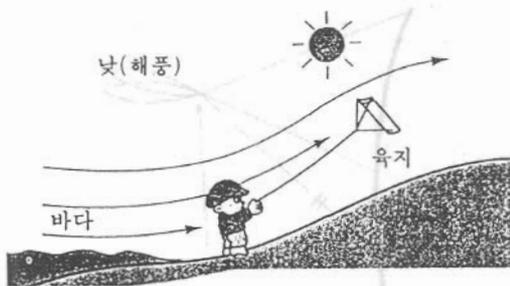
연날리기의 요령

(1) 연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나?

연을 만들어서 날리기 전에 '연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이 올라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람은 낮에는 차가운 바다에서 육지로 향해서 불기 때문에 바다를 등지고 육지를 바라보고 날려야 잘 날고[그림①], 반대로 저녁에는 찬 육지에서 따뜻한 바다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고 올려야 잘 뜬다[그림②].

그러면 지면 가까이의 바람은 약해도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 하늘에서 기류를 타 안정된 연 오르기가 된다[그림③]. 다시 말하면 연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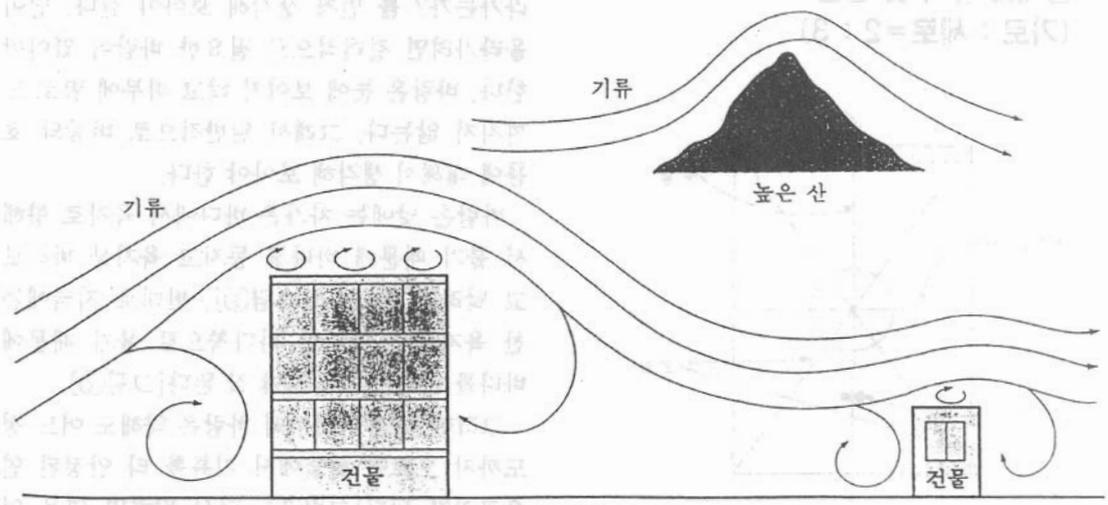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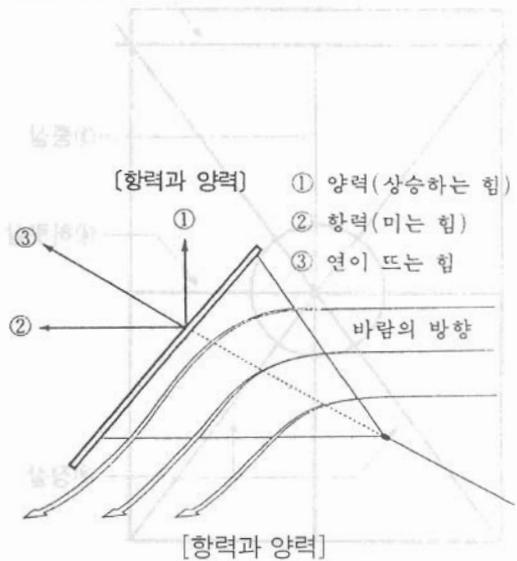
[그림①]



[그림②]

제나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바람을 이용하여 비스듬히 날리면 올라간다. 이것은 바람 방향으로 미는 힘(저항력, 항력)과 연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이 바람과 수직垂直으로 되면 양력이 작동하지 않아 뜨지 않는다. 적당한 양력과 저항력을 받도록 벌이줄과 활벌이줄을 조정해야 한다.

중요 의미와 날안



[그림③]



그리운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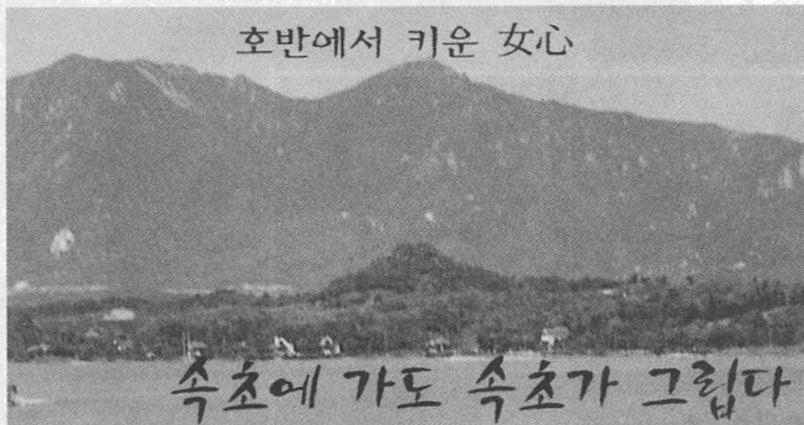
• 속초에 가도 속초가 그림다

- 박혜숙

• 고향, 금강산을 찾아

- 속초문화원 정래섭 이사

호반에서 키운 女心



속초에 가도 속초가 그립다



박혜숙

- 속초 고교 9회 졸업
- 이대 약대 졸업
- 현재 관리 약사

최근에 발간된 한 수필집에서 의사이자 시인인 저자가 인생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육십 고개를 훌쩍 넘기고 뒤돌아 보니 사람의 한평생이라는 것이 다만 추억만들기에 지나지 않았노라고.

그렇다. 생의 한가운데서 부대끼며 살 때는 참으로 어렵고 대단한 것이 인생인 듯 싶었으나 지내놓고 생각하면 어제는 바로 오늘의 추억이었고 오늘은 또 내일의 추억이 아니겠는가. 그 추억의 가장 순수하고 애뜻한 장소에 두고 온 고향, 떠나 온 고향이 자리잡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속초는 나에게 있어서 고향은 아니다. 속초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함께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과는 달리 나의 경우는 부모님을 따라서 남쪽인 경상도에서 올라가 십년 남짓한 세월을 살았다.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산 것도 아니니 굳이 고향이라고 내세우기가 사실은 좀 미안한 노릇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곳으로 옮겨간 것이 내 나이 열살. 내 인생의 새 순과도 같이 여리디 여린 시절에 만난 속초는 그 크고도 넉넉한 품과 손길로 내 영혼의 살을 찌우고 뼈를 키워준, 누가 뭐라해도 어머니 같은 진정한

나의 고향인 것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그리움 없이 되뇌일 수 없는 것처럼 속초라는 이름 또한 나는 그리움 없이 회상할 수가 없다. 그리움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속초 앞 바다. 그 푸른 물결과 망망한 대해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았을 때 어린 나는 넋을 잃었다.

세상에 이토록 가없이 깊고 넓고 넉넉한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움이었는지 모른다. 그때까지 흐르는 것은 개천이나 시냇물 밖에 몰랐던 내가 두려움을 품고 그 바다를 향해 다가갔을 때 바다는 두말도 없이 내게 그 가슴을 열고 나를 감싸안아 주었다. 거기에 뛰어들어 뒹굴고 놀면서 저절로 수영을 익힌 이후로 바다는 나의 놀이터이고 수련장이고 운동장이었다.

여름방학이면 아침 밥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순자야, 선자야, 영자야, 옥자야(아, 아, 그리운 친구 자야들) 있는 대로 친구를 불러 모아 가지고 영랑동 바닷가로 줄달음질을 치곤 했다.

언덕배기를 넘어서 큰 길 하나만 건너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손짓하며 일어서서 반겨주는 빈 바다. 빈 바다라니? 지금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름 한 철 성수기엔 인적 없이 텅 빈 바다가 백사장에 무리지어 둘러선 해

당화 꽃들을 벗삼은 채 심심하고 무료해서 몸을 뒤적이다가 찾아온 꼬마들이 반가워서 와, 와, 소리치며 달려오는 광경을! 그때는 정말 신화와도 같은 시절이었다. 바다는 어찌 그리 푸르고 모래는 어찌 그리 깨끗했던지.

쨍그렁 쨍그렁 소리가 나게 다가온 태양이 정수리를 태우는 것도 아랑곳 없이 넘실대는 바다 속에서 종일토록 헤엄을 치다가 해가 설핏 해져서야 입술들이 오디 색깔이 되어서 옷을 챙겨입고 돌아오노라면 서쪽 하늘 가득히 일몰의 낙조가 불을 붙인 듯 타오르고 있었다. 일출의 장관과는 전혀 다른 그 처연한 아름다움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섰노라면 병 속에 물이 고이듯 어린 가슴 속에 영문 모를 서러움이 차오르곤 했던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정 불일 데 없이 삭막하고 숨막히는 도시의 변방을 떠돌며 사는 동안 산다는 일이 참으로 고단하고 적막할 때면 나는 늘 버릇처럼 속초 앞 바다의 그 광활한 푸르름과 함께 설악산의 울산 바위를 눈 앞에 떠올리곤 했다. 떠올렀다기 보다는 저절로 동실 떠올랐다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저 아무데서고 시선을 들기만 하면 언제고 눈길을 마주쳐 오는 그 늠름하게 잘 생긴 울산 바위는 내게 인생살이의 하찮음과 인간사의 부질없음을 침묵 가운데서 보여주었고, 웬만하면 용서하라, 이해하라, 먼저 주어라, 그리고 늘 가슴을 열고 살기를 타이르고 가르쳐 준 그야말로 내게는 “큰 바위 얼굴”이었다.

어느 해 늦은 가을날 저녁. 그때도 뭔가 몹시 서글프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아이구! 이놈의 세상. 투, 투 침이라고 뱉고 싶은 심정으로 만원 버스에 짐짝처럼 실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 아니었나 싶다. 창 밖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자동차의 행렬을 내다보고 있자니 첩첩산중에서 오도가도 못한다는게 바로 이런 거지 싶게 마음이 아득해졌을 때 문득! 속초를

떠올렸고 그러자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삶의 고단함과 가열함 같은 것은 있는 줄도 몰랐던 내 어린 시절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밀물처럼 내 가슴에 밀려 들었다.

그런 생각과 함께 눈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동해바다와 설악산 울산바위, 영랑호 범바위, 영금정 앞바다, 그리고 췌 속을 가득 채우는 파도소리, 바람소리… 내 영혼의 키를 높여준 이런 속초의 자연과 풍광들이 생각만으로도 어느덧 소리없이 들끓던 나의 내면을 토닥여 가라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위로하고 어깨를 두드려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았던가.

지나간 세월, 떠나는 어릴 적 고향이 누군들 그립고 애뜻하지 않을까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운 나머지 여름 장마철이면 온 동네 길가에 내다 말리던 오징어기 비를 맞아 썩어가며 풍기던 냄새마저도 속초를 가장 속초답게 해주었던 향수어린 추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산천의구란 말이 그야말로 허사가 아니던가. 모두 발벗고 나서서 때 빼고 광내어 번쩍번쩍 울긋불긋 화려하고 낮은 관광지로 변해버린 곳. 설악산 발치마다 들어선 고층콘도미니엄으로 상징지어진 위락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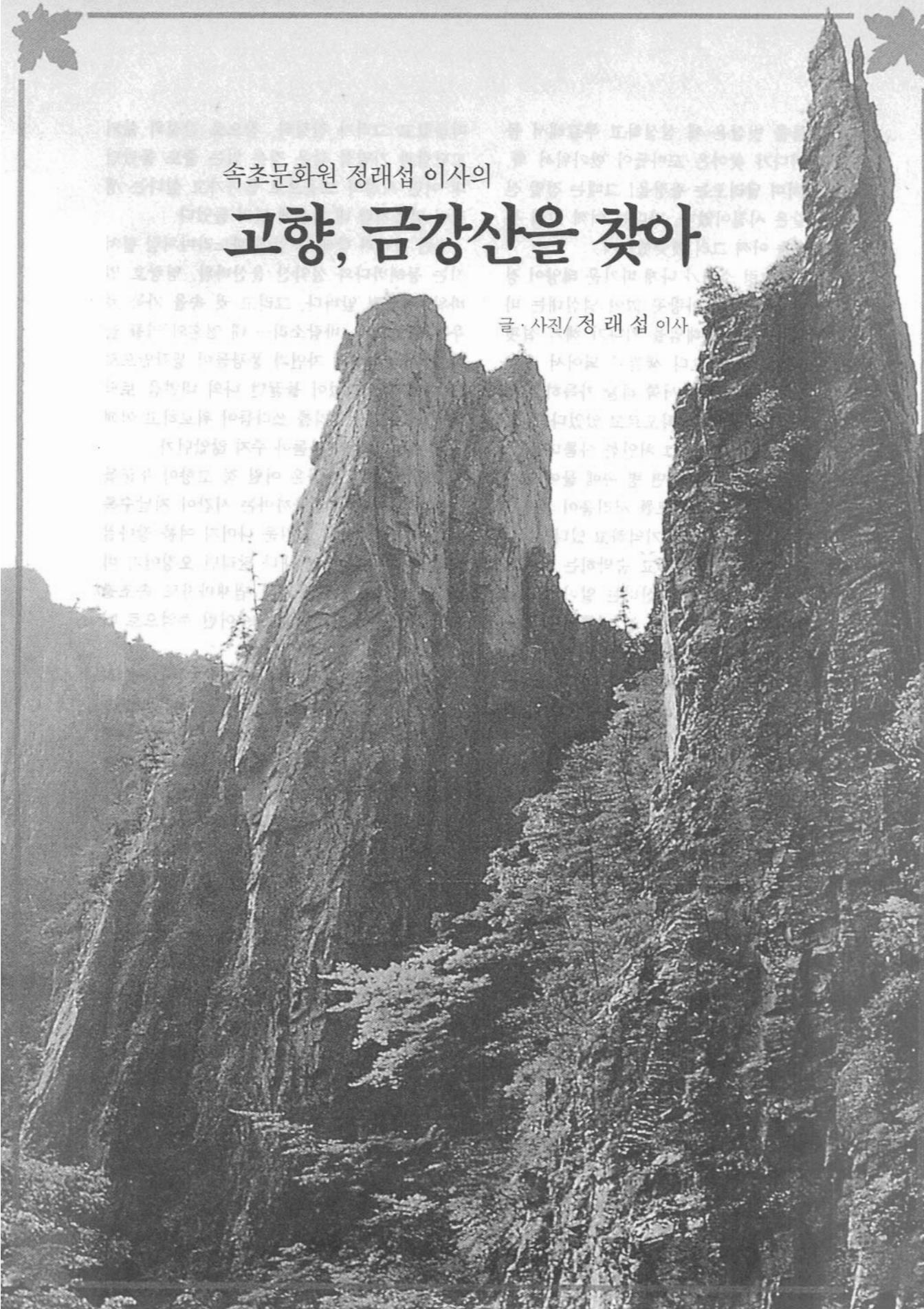
밤이면 휘황찬란한 네온이 손짓하고 도로는 사통팔달로 시원하게 포장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름철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제일순위의 피서지. 바다와 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천혜의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속초.

이런 발전과 변화가 나는 도무지 반갑지가 않다. 반갑기는 커녕 처음 찾아오는 객지 사람처럼 낯설고 서먹하고 서운하기까지 한 것은 내가 이제 너무 많은 나이를 먹어버린 탓인지도 모르겠다. 변화에 적응이 더딘 어쩔 수 없는 중늙은이라서 속초에 가서도 나는 여전히 내 고향 속초가 그립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시귀절처럼.

속초문화원 정래섭 이사의

고향, 금강산을 찾아

글·사진/정래섭 이사



금강산 유감

백두산白頭山이 민족의 영산이라면 오늘의 금강산金剛山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 것일까. 숨가쁘게 흐르는 역사의 격류가 관광이라는 명분으로 그 높고 높은 파고를 뚫고 들어간지 불과 2년도 채 안되는 사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장관급은 물론 침예하게 맞섰던 군부 수뇌부까지 줄줄이 오가는가 하면 50년 피맺힌 한을 달래며 으스스리도록 껴안고 통곡하는 이산가족, 비전향이 하루아침에 애국자로 변신하여 당당하게 월북하는 등 실로 견잡을 수 없는 가치관의 갈등으로 혼돈스럽다는 표현이 옳다.

이런 가슴벅찬 와중에서 2년 전(1998년 11

월 18일 오후 5시43분 출항) 그 열광과 터질듯한 함성이 환송이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들었던 여운이건 잔영이건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 진부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금강산을 휘감고 흐르는 도도한 역사의 강물은 언젠가는 통일이라는 두텁고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을까. 나는 현대 상선이 금강산 관광을 처음으로 시작한 1998년 11월 18일 첫 관광에서부터 올 7월 19일 현재까지 무려 4번의 관광을 했으니 최다관광이 아닌가 본다.

무슨 관광을 2년 사이에 4번씩이나고 지인들의 의아함을 넘어 미친 사람이란 소리라면 가히 그러하리라.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어 그러하고 또한 기행을 엮는 까닭임을 이해하리라. 금강산은 내 고향이다. 그곳에서 태



▲ 해금강과 정 이사



▲ 삼일포에 새로 건축한 '단풍각'

어나 18년을 살다 피난길에 오른 이른바 실향민이요 이산가족이다. 아직도 살아계실지 모를 90 노모와 동생 여섯이 남아있다. 때문에 반세기의 뼈아픈 한을 안고 찾아가게 되는 고향가는 길이 결코 관광일 수는 없었고 차라리 고향 탐방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뼈저린 꿈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금강산, 얼마나 사무친 그리움이었던가. 일만 이천봉—그 장엄하고 웅대한 연봉마다 기암절벽과 괴석으로 어우러진 절묘하고 수려한 자태, 그 고고하고 오만한 자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인묵객이 필설을 다하지 못한 채 붓을 쥐고 탄식했는가. 혹은 송곳처럼 예리한 봉우리(삼선암三仙岩)가 하늘을 찌르고 혹은 흥칙한 얼굴을 찡그리며 죄인을 문초하듯이 굽어보는 귀면암) 온갖 동물의 모습을 흉내내며 금시라도 이 봉저 봉으로 뛰어내릴 듯한 웅크린 모습들 열 번 백 번 다시보고 또 보아도 싫증 없는 명산 중의 명산 금강산. 금강산은 확실히 신의 걸작품이요 대자연의 장엄한 서사시이다.

금강산 기행

현대 금강호의 첫출항은 한반도 역사의 축이라고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은 세계 언론의 표현과 같이 역사적인 출항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일제히 9층으로 된 승강기를 타고 선상으로 올랐다. 까맣게 내려다 본 넓은 부두에 많은 인파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환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폭죽이 터지고 온통 하늘을 꽃밭으로 수놓았다. 이어 오색의 찬란한 고무풍선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날았고 함성이 터지고 만세를 외치는가 하면 장중한 군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언론 보도진의 수많은 카메라가 여기저기에서 플래시를 터뜨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배가 소리없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아, 드디어 55년만의 맺힌 한을 신고 배는 서서히 항구를 떠나고 있었다. 때는 1998년 11월 18일 오후 5시 43분, 선상의 관광객은 무슨



▲ 북한 주택으로 새로 도색 등 단장한 모습이 확연하다. (이 자리는 정 이사 고향 입구의 옛 주막거리였다)

소린가를 목놓아 외치면서 두 손을 힘차게 흔들며 주고 있었다. 뒤돌아 본 망망대해는 그저 검푸른 물결만 출렁일 뿐이다. 공해를 향해 배는 속력을 더해가고 있었고 취재 열기는 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선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띤 것이었다. 알고보니 5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가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승선 전에 KBS-TV와 인터뷰를 마친 바 있다. (단, 내가 북한 입북수속을 마친 후 보도하기로 약속하고) 말하자면 조건부 인터뷰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MBC로부터 이름도 모를 언론매체의 기자들이 연이어 찾아왔다. 한편 짜증스러웠고 피곤했다. 그날 밤은 뜬눈으로 새웠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에서부터 칙흑같은 어둠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다. 한겨울이 무색하게 기온은 떨어져 두툼한 옷으로 몸을 움츠린 채 선상으로 올랐다. 드디어 장전향이 엷은 어둠 속에 뿌연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불 꺼진 칙칙한 건물들이 드문드문 보

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기억에 남아있는 장전향이 아니었다. 등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아, 장전향이다.”

저쪽 나무 사이가 금강중학교,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정어리 공장이었을꺼야...

그 사람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누군가 절규하듯 어머니를 몇 번이고 불렀으나 바람소리만 커지고 있었다. 선상의 새벽 풍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뷔페식 아침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하선준비가 시작되었다. 승선보다 하선은 번거로웠다. 시설미비 때문에 바지선을 모선 옆에 들이대야 하는 오랜 시간, 그 옆에 우리를 이동시킬 운반선(장전호)이 차례로 작업이 끝난 후에야 하선이 시작되었다. 내가 북한땅에 첫발을 디딘 시간은 정확하게 1998년 11월 19일, 오전 9시36분. 그 첫발의 가슴 벅찬 감동을 필설로 다 할 수 없어 안타깝다. 입북 수속은 매우 간소했고 준비된 탓인지 관계 북한군들은 생각보다 친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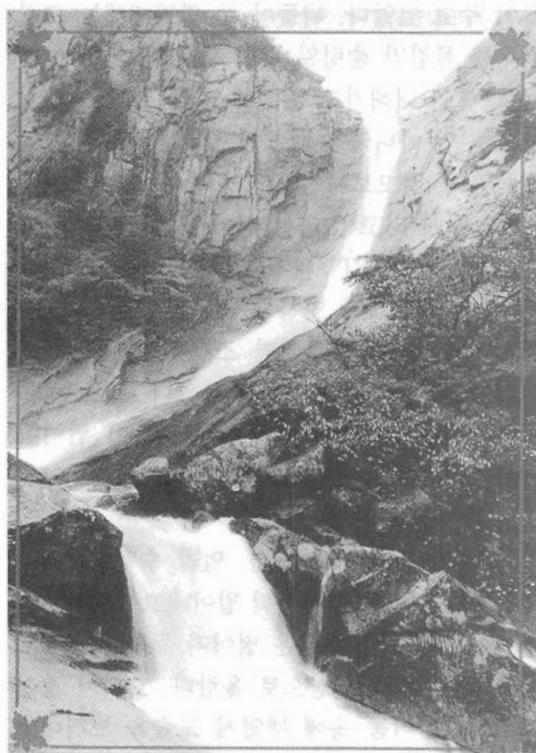
입북 첫날

세 코스(만물상, 구룡연, 해금강)로 나누어진 관광단 일행은 일단 온정리에 주차되었다. 우리는 해금강 코스로 정했다. 그 길은 바로 내 고향(외금강면 운곡리) 앞을 철쭉을 사이에 두고 지나게 되었다. 설레는 가슴을 가까스로 달래며 버스에 올랐다. 얼마 후 버스가 슬금슬금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 지점에서 약 5분이면 우리 고향을 볼 수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초조하고 입이 마른다. 비포장 도로는 50년 전 그대로이다. 털거덕거리면서 차는 잘 달리고 있었다. 어느새 마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혀 생소한 마을이(?) 내 기억은 처음부터 빛나가기 시작했다. 기억속에 남은 것 그런 집들은 간데없고 전혀 낯설은 산야가 한눈에 들어왔다. 믿을 수 없는 마을 앞을 버스는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었다. 그때 낮익은 골짜기가 눈에 들어왔다.

아, 여기로구나. 내 고향은 그렇게 변해 있었다. 버스는 이미 마지막 산모퉁이를 지나고 있었다. 그렇게도 무성하던 나무들은 간데없고 발가벗은 산 아래 무너진 철쭉과 사라진 가로수. 50년 긴 세월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다. 차는 어느새 삼일포 입구를 지나 해금강을 향하고 있었다. 좁은 농로 길을 털거덕거리며 달리던 버스가 멈춘 곳에 군 최전방 경비소가 있었고 양옆으로 이중철조망이 길게 뻗어 있었다. 이른바 철책방어선이다. 해금강에 이르렀다. 나는 얼마전의 충격으로 그저 멍하니 앉아 하염없이 수평선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머리속은 온통 허무한 잠념으로 꽉 차 있어 전혀 시야에 드는 풍경이 없었다. 우리는 다시 삼일포로 갔다. 삼일포는 내가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에도 여러번 다녀간 정든 호수이다. 전에 없었던 단풍각도 눈에 띄고 맑

은 호수도 새삼스러웠다. 영랑호와 청초호 생각이 났다. 그곳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잠시 휴식 후 온정리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눈을 부라리고 고향을 다시 보아도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설렁한 겨울 들판 만큼이나 내 마음도 쓸쓸하고 허전했다. 배로 돌아왔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 식당에 올라가 저녁식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함숙하는 동료가 열심히 위로해 주었으나 나는 그저 멍하니 천정만 바라보았다. 그 텅빈 마을속에 정녕 어머니와 동생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가슴이 조여온다. 평생 나 하나만을 기다리고 살고 계신 어머니, 형이며 오빠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여섯 남매. 이 잔인무도한 운명의 장난은 언제까지 지속되려는가. 나는 몸부림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튿날 만물상으로 가는 온정



▲ 금강산 구룡九龍폭포

령은 생각보다 잘 닦아놓았다. 아흔아홉구비나 되는 아슬아슬한 고갯길을 기사는 운전이 아니라 차라리 곡예를 하는 편이었다. 주차장에는 먼저 온 차들이 눈에 띈다.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삼선암은 일조를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케 한다. 그 옆에 귀면암, 그리고 돌아서면 만물상의 장관이 한눈에 든다. 비로소 많은 관광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올린다.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내려치고 있었다. 금강산에는 '금강내기'라는 유명한 바람이 때로는 유리창을 깨고 지붕을 날리기도 한다. 너무 추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망장천까지 올라갔다.

어머니가 그곳에 쉬고 계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인공 치하 식량이 어려웠을 때면 절인 고기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한많은 온정고개를 넘어 회양으로 가시곤 했다. 온정령에서도 백 리가 넘는다는 회양에는 강냉이가 흔했다. 이른바 물물교환을 하고 자루 가득 이고 어깨에 메고 그 험한 영을 넘어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었을까. 동행한 정규생씨(금성부동산 대표)는 증언한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한 되박이라도 더 가지고 갈 욕심으로 짐이 무거웠다고 한다. 그 무거운 짐을 가리던 몸으로 이고 메고 험한 산길을 밤과 낮으로 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어머니!" 내려다 보이는 깊은 계곡을 향해 목놓아 소리쳤다. 어느 일가죽은 빛이 바랜 사진을 앞에 놓고 제사를 올리다 말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

사흘째

역시 온정리에서 출발하여 구룡연 코스로 향했다. 구룡연 가는 길에는 미인송美人松이 유명하다. 수령 이백 년 이상이라는 소나무가 하늘을 가리우고 쪽쪽 뻗어있다. 그 길을 지나면 신계사 6.25때 폭격으로 사지만 남아있을 뿐이

다. 나는 대웅전 터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 또 어머니가 엎드려 계셨다. 부처님을 향해 몇 백 번이고 절을 올리며 아들이 잘 되기를 빌었을 모습이 눈에 선명하다. 눈물이 고였다.

구룡연 계곡은 피나 길다. 3.7km라든가(?) 아무튼 긴 계곡에는 다리가 유난히 건너오가며 폭포에 이른다. 폭포는 두겹게 일어 있었다. 소리만 요란할 뿐으로 상류와 하류 완전히 얼어 붙었다. 아래를 굽어 보았다. 어릴 때 소풍때만 되면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자리가 눈에 띄었다. 변전소집 딸은 색다른 반찬만 싸오며 몰래 도시락에 얹혀주고 도망가곤 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상팔담이라도 오를까 했는데 위험하다고 통제하기에 그냥 내려가기로 했다. 중간쯤 내려왔을까 쉼터에 앉았던 동숙한 김사장이 다가서며 물었다.

"구룡연 안내원을 만나 보셨나요?"

"아니, 왜요" 내가 되물었다.

"아침" 딱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정 형이 여기 관광온 것이 아니잖소. 아까 그 안내원이 이산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고 이름을 적습디다."

"그래요."

나는 다시 올라갔다. 한 번도 오르기 힘든 길을 뛰다시피 올라갔다. 김 선생이라는 북한 안내원은 그때 마침 일본NHK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한국계 그 일본기자는 원산이 고향으로 부모를 찾고 있었다. 뒤이어 나도 매달려 부탁했다.

"선생님 고향은 아주 가깝군요. 운곡리는 바로 온정리나 다름없지 않습네까."

"내가 시간나는 대로 찾아보았시오."

"내년 4월쯤 다시 오시라요."

너무도 쉬운 대답에 얼떨떨했지만 동포, 혈육이니 하는 거창한 말에 한 줄기 희망을 걸고 돌아섰다. 내려오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되씹으며

부지런히 걸었다. 배에 돌아왔을 때는 무척 지쳤다. 저녁식사를 대충 마치고 방에 드는데 뜻밖에 MBC 기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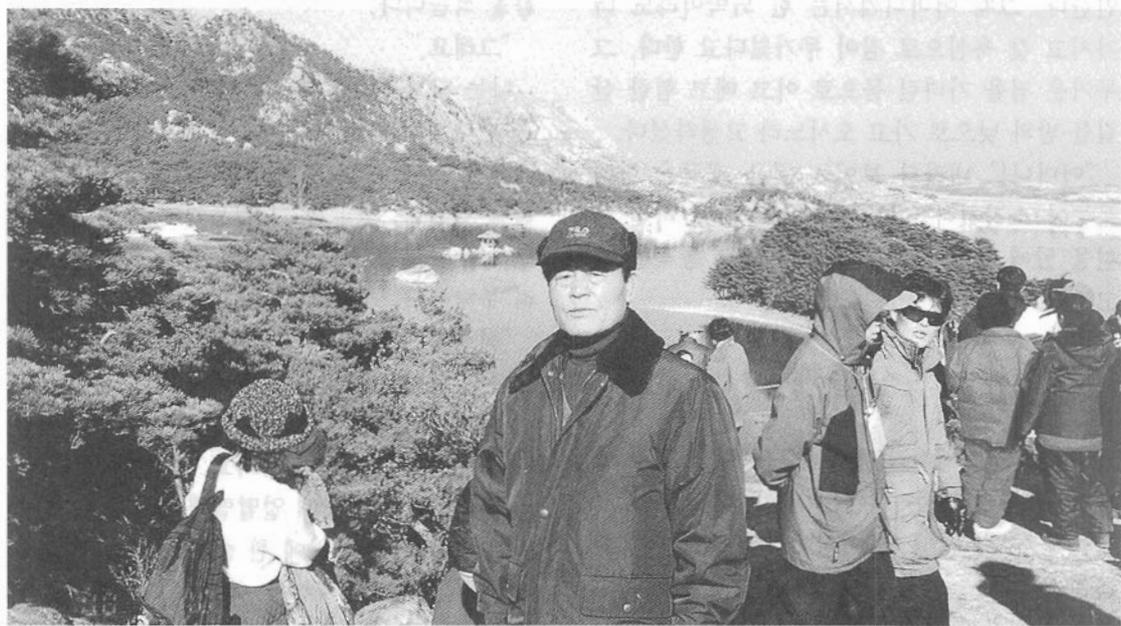
“선배님 선상으로 오르시지요.”

피곤하여 극구 사양했으나 이제 곧 배가 떠난다는 데 한 말씀 남기시라는 간곡한 당부이다. 선상에 올랐을 때 배는 이미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내려도 장전항은 불을 밝히지 못한다. 장전항이 휘황하게 불을 밝히는 날, 그들의 마음도 밝아지려는가. 인터뷰는 30분간이나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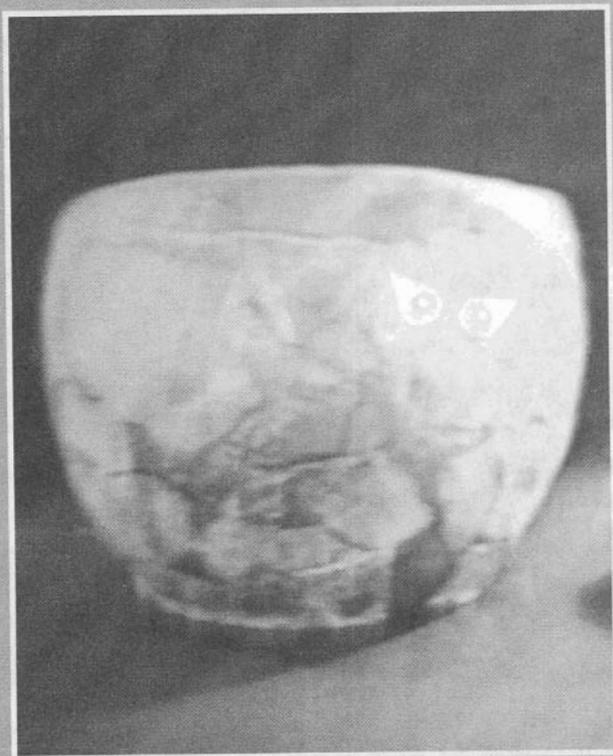
어머니를 목놓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그 메아리 없는 절규에 항구는 사라지고 배는 남쪽을 향해 선수를 돌리고 속력을 내고 있었다. 4박5일의 서글픈 여정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나는 세 번이나 더 금강산을 다녀왔다. 쓸렁하고 메마른 고향이 보고싶어서가 아니라 그 고향땅에 살아계실지도 모를 어머니와 여섯 동생을 찾기 위해서, 아니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갈 것이다.

내가 금강산 마지막 길에서는(2000년 7월 19일) 장전항은 눈부시게 변해있었다. 부두는 3만 톤급의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었고 부두 앞산을 헐어 광장처럼 터를 닦았으며 도로는 포장되어 깨끗하게 아스팔트 길로 뚫려 있었다. 300억이 들었다는 온천당은 야외 온천 풀장까지 갖춘 가히 국제 수준급이라 할 수 있었다. 넓은 온정리 주차장에 공연장 오성각이 완성되어 식당과 상점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을 덜게 되었고 화장실 등은 자동시설로 완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국제적인 관광지의 모습으로 변한 내 고향, 금강산이지만 저 높은 철책너머 말뚝마냥 무표정한 초병이 서 있는 한은 진정한 관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향’은 그 단어 자체가 오묘한 의미에 비해 국어사전이나 영어 Home-town의 사전적인 해석은 극히 단적인 요약에 불과할 뿐이다. 분단 반세기의 둔해진 감정의 탓일까. 그들은 사전 이상의 의미와 고향에서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 판동 팔경의 삼일포三日浦에서



광장 2000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북한 실향민의 애달픈 정착사
- 설악권 문화재단 탐방(1~18)
- 후베이성 초청 방중 기행
- 요나고시 가이아나 축제 참관기
-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 묵향
- 2000 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 2000 속초민예총의 활동상
- 2000 속초문화원 에필로그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속초문화원 sokcho-culture.com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2000



속초문화원

7월 1일 정보 고속도로망
개통으로 속초가 가까워져

속초문화원 Tel : 033-632-1231 © 2000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디자인 : 설악지역정보센터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E-mail) : sc1241@kornet.net

1. 목적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개설·운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속초문화와 역사 방향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활용으로 지역문화를 보급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2. 기획방향

- 속초시의 향토문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주민 등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속초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내용구성 및 디렉토리 구성

- 홈페이지 주소 : www.sokcho-culture.com

① 속초문화원 소개<sokcho culture:sci>

▷인사말<sc1-1>

▷연혁<sc1-2>

▷주요사업<sc1-3>

▷임원소개<sc1-4>

②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sokcho culture school:scs>

▷한국문화학교<scs1>

▷청소년한아름교육<scs2>

③ 속초시 소개<sokcho introduce:sci>

▷개괄적 소개<sci1>

▷지도<sci2>

▷지명<sci3>

▷역사<sci4>

▷자연환경<sci5>

▷산업<sci6>

▷동·식물<sci7>

▷문화의 특징<sci8>

▷예술활동<sci9>

④ 속초의 향토문화

<sokcho local culture:slcl>

(민속)<slcl1>

▷세시풍속<slcl1-1>

▷전통의례

▷의식주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요

(문화재)<slcl2>

▷문화재<slcl2-1>

▷천연기념물<slcl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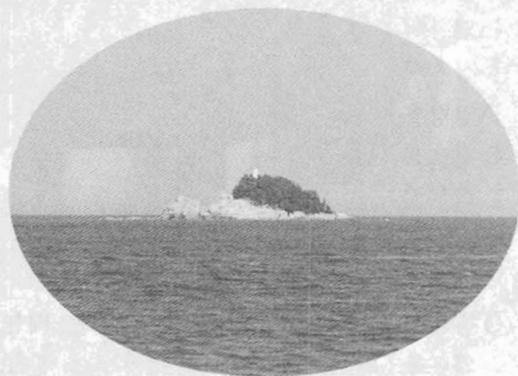
(설화)<slcl3>

▷구전설화(전설, 민담)

(방언)<slcl4>

▷방언

⑤ 속초향토자료(출판물 중심)



〈sokcho culture book:scb〉

속초문화원(scbl)

▷속초의 옛과 오늘〈scbl-1〉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 문화유산

▷속초문화(1~15호)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향토사료집(2집-속초의 민속/ 4집-속초의 지명)

▷속초시지

속초시〈scb2〉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타〈scb3〉

⑥속초문화원 향토사료전시관

〈sokcho museum:scm〉

⑦『속초문화』살펴보기

〈sokcho index:scin〉

⑧ 테마기획〈theme:sct〉

▷설악산

▷설악산 심폐마니 연구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시 어로민속

▷속초의 지명

▷속초북청사자놀이 전승실태조사

⑨속초의 향토문화 관광지〈tour:scto〉

▷청호동

▷외옹치

▷심홍사

▷영랑호

▷청호호

▷학무정

⑩게시판(질문과 답변)

4.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 ① 홈페이지 내용 구성중 〈속초시 소개〉 메뉴와 〈속초의 향토문화〉 메뉴에서 속초 향토

향토문화

문화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정보의 활용 수준은 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다.

- ② 〈테마기획〉 메뉴에서는 설악산과 청호동 등 집중적으로 다뤄주어야 할 주제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집중탐구를 원하는 접속자를 위해 원본을 살리거나, 되도록 풍부한 자료를 신도록 한다.

- ③ 속초 향토문화의 홍보와 상품화 차원에서 〈속초의 향토문화 관광지〉 메뉴를 만들어 영랑호, 학무정 등 수학여행이나 탐방장으로 소개한다.

5. 홈페이지 제작일정

(제1차 - 기초데이터 구축과정)

- ① 자료 검토및분류작업(4월10일~4월15일)
 - ② 제1차 기초데이터 정보구축 기획(4월 17일~29일)
 - ③ 원고작성(4월 10일~6월 10일 : 제1차 구축)
 - ④ 사진자료 수집 및 스캔(5월 10일~5월 30일)
 - ⑤ 원고와 사진편집(6월 1일~6월 20일)
 - ⑥ 초기화면 및 본문 디자인(6월 1일~6월 20일)
 - ⑦ 폼메일 설정, 검색기능 등 프로그래밍(6월 15일~6월 20일)
 - ⑧ yahoo 등 검색엔진 등록(6월 20일~6월 30일)
 - ⑨ 향토사료전시관 리얼플레이 가동(6월 1일~6월 30일)
 - ⑩ 오픈(7월 1일)
- (제2차 - 테마기획 등 집중탐구 분야)
- ① 2차 기획 : 7월 1일 이후 집중테마부분 데이터구축 기획 및 편집(7월~12월)

북한 실향민의 애달픈 정착사

오윤근

속초문화원 이사/ 본지 편집위원



6·25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의 이산의 아픔인 것이다.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반세기를 하루같이 두고 온 혈육을 그리며 살아온 피난민들의 한 맺힌 삶은 비극 그 자체였다. 그러나 피난민이 인구구성 비율 상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고장 속초인 것이다. 한때 속초 인구의 2/3가 피난민이었던 때도 있었으며 지금도 속초시민의 1/3은 피난민인 것이다.

속초 하면 피난민을, 피난민 하면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연상할 정도로 속초와 피난민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속초의 발전 과정을 말함에 있어 이북 피난민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피난민 1세가 속초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그들이 속초 정착 과정에서 속초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재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서 피난민 1세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하여 늦게나마 피난민 정착사 발간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처참하였던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47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3년에 걸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나라는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47년의 세월은 전쟁이 할키고 간 엄청난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국민생활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처절하였던 6·25의 비극은 국민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으며 휴전 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을 일구어낸 전쟁1세대의 눈물겨운 생존투쟁은 먼 옛날의 남의 일처럼 되어가고 있으니 어디에서도 전화의 자취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6·25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의 이산의 아픔인 것이다.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반세기를 하루같이 두고 온 혈육을 그리며 살아온 피난민들의

한맺힌 삶은 비극 그 자체였다.

그러나 피난민이 인구구성 비율 상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이 고장 속초인 것이다. 한때 속초 인구의 2/3가 피난민이었던 때도 있었으며 지금도 속초시민의 1/3은 피난민인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 통일의 그날, 남보다 한발 먼저 고향에 가겠다고 복진하는 군부대를 뒤쫓아 이곳에 몰려온 피난민들,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에는 갈 수 없는 고향, 그 하늘이나마 가까이 바라보며 망향의 한을 달래겠다고 찾아온 피난민 등으로 전쟁 당시 3천 명 안팎에 불과하던 속초인구는 2만 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속초의 생활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생산시설은 고사하고 상설시장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석 달이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떠나온 고향에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된 현실에 망연자실 할 수만은 없었다.

모여든 피난민들은 속초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 혈연, 학연, 지연,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자본마저 없는 적수 공권의 피난민들은 오직 피땀어린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삶의 뿌리를 튼튼히 내렸으니 어찌 장하다 하지 않으리요.

인구 10만의 한국 제1관광 도시로서, 환동해권시대 북방교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가는 속초가 월남 피난민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큼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6·25전쟁 발발 5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젊음을 불태운 피난민 1세의 눈물겨운 생존투쟁의 자취를 돌이켜 보고 속초건설에 공헌한 업적을 평가하고 아울러 피난길에 오르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 피난길에서 겪었던 고초 등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1999년 4월 3일 속초 이북 5도민 대표 30여

명이 속초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속초 이북 5도민회와 속초시의 후원 하에 속초문화원이 주관하여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 발간을 결정하고 발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전 함남도민 회장이던 김철섭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문화원장, 속초 이북 5도민 회장 등 10명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장정룡 박사(강릉대교수)를 집필 책임자로 위촉하였다.

2000년 6월 24일에 편집 및 집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피난민 정착사의 제명에 대하여 논의하여 제명을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로 확정하고 집필위원 15명(강원도내 각 대학교수 13명, 서울대 교수 1명, 전 설악신문 편집국장)을 위촉하였다.

2000년 8월 26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착사의 편집내용 및 발간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편집내용

- 1)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역사와 사회
 - 2)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문화와 생활사
 - 3) 속초시 거주 피난민과 속초
 - 4) 속초시 거주 피난민 이주 사료, 연료
 - 5) 속초시 거주 피난민 체험기
- 부록 설문조사 이북 5도민회, 시·군민회 현황

○발간일정

- 1) 원고마감 2000년 3월 30일
- 2) 감수 및 편집 2000년 10월~11월
- 3) 인쇄 및 배포 2000년 12월

원고를 찾습니다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도서 발간에 필요한 사진은 물론 당시의 일화 등을 보내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더욱 알찬 정착사가 엮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설악권 문화재단 탐방

설악무산 문화재단에서 충청장학회까지(18)



'설악신문사'의 자료 제공으로 설악권에 산재하는 문화재단 탐방을 실었다. 올 4월부터 기획물로 9월까지 위 신문에 연재된 문화재단(18)을 재편집 - 그대로 옮겼다. 설악권에서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재단을 설립, 지역의 꿈나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자료제공=설악신문사]

1988년 4월 18일

행복한 문화 · 교육 · 복지 망라한 종합문화재단

신흥사의 문화재단... 지역 장학사업 대폭 확대

(81) 지역 문화향상 총 세안 시조문 상무인양

15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서려있는 한국의 대표적 고찰, 신흥사.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불교적 깊이를 느끼기에 충분한 영북지역 역사를 담고 있는 신흥사는 지역민들에게 종교적, 정신적 중심으로 그 숨결을 같이해 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던 신흥사가 '문화의 21세기'를 맞아 교육, 문화, 복지부문을 총망라한 종합문화재단인 '설악무산 문화재단'을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신흥사 문화재단은 재단법인 '설악무산 장학회',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을 기본틀로 영북지역 종합문화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7년동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온 신흥사 장학회가 올해 2억원을 출자해 재단법인 '설악무산 장학회'로 거듭나면서 교육부문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설악무산(조오현스님)스님의 뜻을 이어 설악권 지역의 인재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활동을 펼쳐온 설악무산 장학회는 경상비 절약 등을 통해 지금까지 총 13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고, 매년 3~4억원을 추가 지원해 교육 장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재단은 기존에 펼치고 있는 문화부문의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사업을 대폭 강화해 전국적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한편 선양회 출범과 함께 창간한 계간지 '만해새얼', '설악불교'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만해시인학교를 통한 만해사상연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만해기념관, 수련관 개방을 통한 백담사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교육과 '만해축전'의 세계화는 문화

의 세기를 표방하는 새천년의 주요사업 계획으로 추진해가고 있고 이 사업을 위해 올해내로 2억원 정도를 출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설악무산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사 복지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 신흥사 무료요양원, 반야어린이집, 불교교양대학은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들로 지역사회 복지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 급식소인 장수식당을 운영해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푸드뱅크, 재가노인·모자 봉사센터, 부설 연꽃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주 자격 없는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신흥사 반야무료요양원에는 현재 45명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고 영북지역 최대규모의 반야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안락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설악무산 문화재단은 올 하반기 영북지역 최초의 장례예식장 문화를 이끌 대규모 '납골탑'을 지을 예정이다. 장례식 문화의 질적향상을 위해 계획된 납골탑은 한번에 모든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설계돼 영북지역에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전망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총무 설웅스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전부터 해왔던 공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문화재단으로 출발하게 돼 기쁘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종합문화재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설악무산 문화재단은 연간 총 13억원을 재단사업에 투자해 오고 있어 새천년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역할을 해내고 있다.

(김주현 기자)

어려운 청소년 도와 지역인재로 키운다

67년 속초중고 9회 동창생이 시작, 91년 재단 설립

교육적 기반이 취약한 영북지역에 지난 10년동안 청소년교육의 산파역을 해내며 순수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청구문화 장학재단(이사장 조수용)'.

청구문화 장학재단은 지난 67년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속초중·고 9회 졸업생들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순수한 동창생들의 마음이 모여 시작됐으나 24년이 지난 현재는 총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대규모 재단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지난 90년부터 재단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91년 8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재단명칭을 현재의 '청구문화 장학재단'으로 정하면서 영북지역 청소년 교육지원의 '요람'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그해 12월 당시 문교부와 내무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장학재단으로 등기절차를 마치고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순수 동창생들로 구성된 장학재단의 설립은 '청구문화 장학재단'이 국내 최초, 청구문화 장학재단의 탄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 모인 순수한 마음들이 승리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1992년 속초세무서에 법인신고를 마친 청구문화 장학재단은 같은해 3월 속초·고성지역 중·고생 52명에게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천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시 발기인으로 장학재단의 산파역을 도맡아 해 온 노광복 총무이사는 "좋은 뜻만 가지고 미약하게 시작한 청구문화 장학재단이 회원들의 성실한 의지로 장학기금 3억원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의 기쁨과 기대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이후 청구문화 장학재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이면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

학금을 지급해 지난해까지 2백62명에게 총 1억6천4백여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매년 지역 중·고생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을 지난 98년부터는 대학생에게도 확대 실시하면서 명실공히 영북지역을 대표하는 순수 장학재단으로 기반을 마련했다. 청구문화 장학재단의 장학금수혜자 선발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재단가족의 자녀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청구문화 장학재단이 추구하는 장학사업의 최종 목표는 보다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지역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의 수준과 질의 향상도 꾀하고 있다.

그만큼 청구문화 장학재단이 추구해 온 지역교육 발전의 열망은 설립에서부터 지나온 과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교육현장에 투영돼 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꾸준한 장학사업을 펼쳐온 청구문화 장학재단은 새천년을 맞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2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문화 장학재단 제3대 조수용 이사장은 "작은 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지난 10년동안 회원들의 정성으로 지역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며 "새천년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청소년들도 열린 교육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청구문화 장학재단'은 새천년, 영북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힘없이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해 가고 있다.

〈김주현 기자〉

인재양성으로 교육의 질 향상

6년 준비 97년 설립... 2억원 은행 예치

영북지역 청소년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97년 3월,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금강장학재단(이사장 이원익)'.

지난 90년 초부터 지역사회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청소년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계획한 금강장학재단은 6년 동안의 구체적인 준비기간을 갖고 지난 97년 2월 설립총회를 계기로 장학재단의 뜻을 올렸다.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금강장학재단은 출범과 동시에 중앙동 새마을금고에 그동안 뜻을 모아 조성한 장학기금 2억원을 예치하면서 영북지역 장학교육의 디딤돌로써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

이 재단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

특히 지역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타지로 유학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금강장학재단의 엄격한 장학생 선발기준은 지역인재의 저변확대와 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98년 지역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3명 등 총 13명에게 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은 금강장학재단은 늦게 출발한 만큼 내실있고 알찬 재단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국가유공자 자녀중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지급하는 장학금은 봉사부문에 초점을 맞춰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금강장학재단은 해마다 학기가 시작되는 1학기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수혜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시기에 일관성을 기하는 등 장학금 대상자 선발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배려하고 있다.

새천년을 맞아 지난 2월 18일 세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지역의 고등, 대학생 23명에게 1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장학교육의 산실로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3년동안 59명의 지역인재에게 총 3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이 재단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석차 상위 50%에 속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대학 신입생은 학년석차 10% 이내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이끌어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백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3년동안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금강장학재단 이원익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미래를 가꾸어 가는 학생들을 볼 때면 너무 대견하다"며 "이들에게 더 많은 열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확대해 갈 생각이고 이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의 디딤돌로써 인재양성 배출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강장학재단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가고 있다.

(김주현 기자)

성적보다 가정환경 및 성실성 중시

80년 천일장학회가 모태, 지난 3월 공식 출범

영북지역 청소년 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지역의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재단법인 '늘사랑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상기)'이 지역 청소년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 청소년 교육과 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해오며 영북지역 장학사업을 이끌고 있는 늘사랑 장학문화재단의 최초 출발은 지난 80년 김상기 이사장이 가칭 '천일장학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천일안경원을 운영하던 김이사장은 어린시절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학교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자신의 아픔을 지역 청소년들이 다시금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 사비를 털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본격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했다.

이후 매년마다 펼쳐온 장학사업을 통해 김이사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화가 취약한 영북지역에 새로운 문화의 장을 계획했다.

'올바른 지역 청소년 교육은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김이사장의 평소 소신을 그대로 반영해 늘사랑 장학문화재단은 매년 청소년들이 하나되는 댄스한마당 축제를 열기도 했고, 특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공평성을 기해 성적보다 장학생의 가정환경과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숨은 노력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김이사장은 지난 94년 사회봉사상 부문에서 강원도민문화상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주어진 상금 3백만원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본격적인 장학재단 출범에 앞장서 왔다.

'아름답게 산 사람만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김상기 이사장을 비롯한 9명의 이사들은 같은해 10월 법인장학회를 설립하고 1

억원을 기금으로 출연, 영북지역에 새로운 장학재단을 탄생시켰다.

이어 지난 98년 12월에는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장학회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인 1999년 1월 4일 지역 청소년 문화의 다양한 발전과 자리매김을 위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재단법인 늘사랑 장학문화재단 등기설립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신청, 문화재단 설립인가를 받기에 이른다.

'문화의 세기' 새천년을 맞아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회 장학사업을 이끌어 중추역할을 해 온 늘사랑 장학문화재단은 지난 3월 15일 공식출범식과 함께 20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장학사업을 청소년 문화와 연계해 그 목표를 지역에 심어가고 있다.

지역 인재양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장학사업을 펼쳐온 늘사랑 장학문화재단은 현재까지 총 2백16명의 청소년들에게 1억2백만원의 지급해왔고, 특히 김상기 이사장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 문화재단 본래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보면 한때 자신이 아픔을 겪으며 걸어온 시절이 생각나 더욱 애정이 간다는 김상기 이사장은 "성적보다는 청소년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중요한 만큼 늘사랑 장학문화재단은 이러한 사고를 지닌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학문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기 이사장은 담도폐색증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속초시 조양동 이영미(11세) 어린이살리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훈춘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어린이 심장병 수술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주현 기자〉

꽃수청소년에 배움의 길 열어

82년 최초 9천만원 적립, 현재 자산 10억4천만원

영북지역 불우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지역사회에 마련한 '유암문화재단(이사장 정재철)'이 새천년 '복지·문화의 세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유암문화재단은 지난 82년부터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적 기반조성과 폭넓은 장학사업을 목표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18년간 영북지역에 청소년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는 유암문화재단은 지난 82년 정재철 이사장(72세)이 장학기금으로 9천만원을 적립하면서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지역에 마련했다.

당시 장학사업이 미약했던 영북지역은 물론 인제, 양구지역 신체장애 학생들과 부모가 장애인 학생들에게 졸업까지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고 재단설립해인 1982년에는 35명의 학생들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재철 이사장의 아호인 '유암'을 빌어 설립한 유암문화재단은 농·어촌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지역 청소년 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던 정이사장은 창립 이듬해인 83년에는 재단기금을 확충, 73명의 학생들에게 1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1984년에는 1백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1천8백만원을 유암문화재단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이들의 정상적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정재철 이사장의 노력은

매년마다 유암문화재단의 장학기금이 확충되면서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한다.

유암문화재단은 장학사업과 더불어 지난 83년에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장병수술을 주선하는 등 지역 아동들에 대한 복지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장학사업과 관련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분기별로 네 차례에 걸쳐 장학금 전달식을 가져온 이 재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성적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새천년을 맞아 지난 3월 28일 속초·고성·양양 관내 중·고생 43명에게 1천2백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한 유암문화재단은 지난 82년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 1천1백14명의 장학생들에게 3억2천여만원을 전달했다.

강원도 교육청에 등록된 공식적 향토 장학재단 통계로 강원대학교 장학재단 다음의 규모를 자랑하는 유암문화재단은 2000년을 맞아 영북지역은 물론 인제 등 설악권 전역에 걸쳐 매년 1백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난 10년동안 유암문화재단의 재정을 담당해 온 김시성 이사(38세)는 "새천년을 맞아 설악권 전체 지역에서 보다 많은 불우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갈 예정이다"며 "특히 최초 설립의지에 부합한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도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원정화, 김영태, 김시성씨 등 총 9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유암문화재단은 현재 10억4천만원의 자본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은 물론 사회사업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다.

〈김주현 기자〉

모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 지역사회 교육발전 원동력

93년 6월 설립... 속초고 동문 회비 1억원 적립 운영

‘문화·교육의 21세기’를 맞아 속초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는 지원과 교육토대를 마련해 오고 있는 재단법인 ‘속초고동창회 문화장학회(이사장 최창영)’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영북지역 교육발전의 밑돌로써 자리잡아 온 문화장학회는 지난 93년 6월 설립과 동시에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식허가를 받고 속초고 동문들을 회원으로 구성, 지역사회 인재양성의 산실로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설립 첫째 동문들의 회비로 적립한 1억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한 문화장학회는 속초고 재학생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우수 학생과 졸업생으로 대학진학후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인재양성의 순수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문화장학회는 지난 93년 수혜대상자 10명에게 3백9십만원을 1회 속초고 동창회 문화장학금으로 수여하고 지역사회 인재양성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매년마다 속초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은 96년도에 이르러 30명의 학생들에게 총 2천3백50만원을 전달해 장학회 설립이래 가장 많은 장학금 지급 기록과 함께 최초 설립의미를 지역사회에 보여줬다.

특히 이 장학회의 설립은 영북지역 교육발전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고 속초고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폭을 넓혀가는 모태가 되고 있다.

지난 93년 이후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속초고 동창회 문화장학회는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3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보다 많은 속초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같은 목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미약한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다양성을 제시하고 긍정적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장학회 설립부터 8년동안 실무를 담당해 온 이춘복씨(53세, 총동창회 사무국장)는 “영북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 장학회는 모교를 사랑하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 지금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는 속초고 동창회 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6일 속초고에서 2000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22명에게 1천2백만원을 수여하는 등 지난 8년동안 1백92명의 속초고 학생들에게 1억2천7백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속초고 3회 졸업생으로 속초고 총동창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창영 이사장(62세)은 “장학재단 설립취지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이 장학회를 거쳐 간 많은 인재들이 건강하게 대학과 사회에서 제몫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2년동안의 임기를 마치는 최창영 이사장의 뒤를 이어 속초고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된 조수웅 이사장이 속초고 동창회 문화장학회를 이끌며 장학사업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된다.

(김주현 기자)

복지수준 열악한 경찰과 자녀학비 지원

91년 11월 임창기 이사장 등 63명이 5천4백 기탁 태동

‘복지·문화의 세기’를 맞아 속초·양양지역 치안 민생을 담당하고 있는 속초경찰서 직원 자녀와 신입 경찰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오고 있는 ‘속초경찰서 무궁화장학회(이사장 임창기)’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무궁화장학회는 속초경찰서 경찰관 및 경찰관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움에 대한 의욕과 자기개발 등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선진 경찰상 정립을 목표로 지난 91년 11월 임창기 이사장을 비롯한 63명의 지역인사가 5천3백80만원을 기탁하면서 출발했다.

속초경찰서 무궁화장학회의 장학금 수혜는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자녀중 대학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과 경찰관중 본인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를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장학금 지급에 따른 본래 의미와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매년 1회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 무궁화장학회는 설립 이듬해인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7년동안 이 장학사업에 애착을 가지던 지역인사 38명으로부터 8천6백70만원을 추가로 기탁 받고 장학회 규모를 늘려나갔다.

특히 지난해 7월 자리를 옮긴 이종우 전 서장은 전별금 1백만원을 장학회에 기탁하며 무궁화장학회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고, 속초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이익금 중 5백만원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3백50만원을 추가로 재단에 기탁했다. 지난 91년 설립된 무궁화장학회는 당시 근무 여건이 척박한 경찰들이 자녀교육

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찰관 스스로가 자기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간 임창기 이사장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임이사장의 이러한 노력은 무궁화장학회가 속초경찰서 경찰들이 선진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돼야 할 복지후생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고, 해를 더해 갈수록 지역사회 장학재단으로 그 역할을 넓혀갔다.

지난 4월 19일 제9회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29명의 대학 신입생에게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속초경찰서 무궁화장학회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총 2백28명에게 7천7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하면서 배움의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장학회 설립부터 이 장학재단의 산파역을 맡고 있는 김형록, 백순원, 김영만, 임종석, 고길수, 이용재씨 등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무궁화장학회는 새천년을 맞아 장학재단 규모와 자산을 늘려 나갈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속초경찰서 무궁화장학회 임창기 이사장(71세)은 “복지수준이 열악한 속초경찰서 직원 자녀들과 대학에 입학한 경찰관들이 장학금 혜택을 통해 배움을 넓혀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경찰서 무궁화장학회는 종단 대순진리회 경석규 총무위원장이 지난 5월 6일 2천만원을 기탁해 와 현재 총 자산이 1억7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주현 기자〉

붙수 청소년에 희망과 용기 심어

93년 2월 재단설립... 지도층인사들 참여

한때의 실수로 잘못된 길을 걸은 청소년과 소녀 가장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속초검찰 선도장학회(이사장 이규철)는 지난 91년 7월 속초·고성·양양지역 추진위원 17명이 자본금 5천만원을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속초검찰 선도장학회는 청소년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 의료자문위원 등 다양한 지역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있다. 지난 92년 4월 장학재단 설립총회를 개최해 이규철 이사장을 선임하고, 같은해 9월 강원도 교육청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자본금을 5천3백만원으로 늘려갔다.

또한 93년 2월에는 재단법인 '속초검찰 선도장학회' 공식명칭을 정하고, 3월 6일 영북지역 고등학생 24명에게 6백2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속초검찰 선도장학회가 중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축제를 장학회와 연계해 개최하는 등 일관성과 다양성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도에는 중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장학금 수혜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6천2백만원을 새롭게 증자해 자본금을 1억 2천만원으로 늘려갔다.

이후 매년마다 증가한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차츰 장학금 대상 인원과 지급액을

확대해 지난 97년 제5차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역 고등·대학생 32명에게 1천2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속초검찰 선도장학회가 장학금 대상자 선발기준은 영북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소년소녀가장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최초 설립부터 선도장학회 실무를 맡고 있는 강병남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가려 있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 청소년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외된 지역 청소년 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아 온 속초검찰 선도장학회는 지난 99년 1억2천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받아 자본금을 3억으로 늘렸고, 올해 4월 현재 3억6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선도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규철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짙어질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건실하고 알차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7일 제8차 장학금 전달식을 갖은 속초검찰 선도장학회는 현재까지 모두 2백64명의 청소년들에게 9천6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김주현 기자)

보일러시공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에 장학금 전달

85년 재단설립... 영북지역 서관칠 대표 주관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주)귀뚜라미 보일러가 도덕적 기업윤리를 추구하는 창립이념에 발맞춰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속초·고성·양양·인제지역 보일러 시공자 자녀와 소년소녀가장에게 매년 장학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지난 85년 최진민 그룹회장이 제안해 법인설립된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전국 광역단위 이상 지역 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해당지역 학생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지역사회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영북지역을 비롯한 인제 지역까지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 것은 지난 93년부터.

현재 귀뚜라미 보일러 속초대리점을 운영하는 서관칠 대표(43세)가 개업하면서 속초·고성·양양·인제지역에 본격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보일러 시공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경우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씩을 지급하고 매년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선발해 60만원씩의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93년부터 7년간 본사를 대표해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주관해 온 서관칠 대표는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외에 자비로 지역의 보일러 시공자 자녀에게 운번제로 2명에게 7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해 온 장학

금은 1천5백만원.

지난 77년 속초고를 졸업한 그는 목포해양대학을 마치고 국제화물선에서 일을 하다 1993년 고향인 속초에 정착했고, 도덕적 기업윤리를 이념으로 하는 귀뚜라미 보일러 속초대리점을 개업해 지역민들에게 더 좋은 보일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이 몸에 익은 서관칠 대표가 지역사회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보일러 시공자들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이 어려워 배움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접하면서 시작됐다.

올해도 지난 3월 속초회관 대강당에서 2000년 귀뚜라미 장학재단 전달식을 주관한 서관칠 대표는 "IMF가 한창이던 지난 98년 속초상고와 속여고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자매에게 1백21만원을 전달해 도움을 줬던 기억이 가장 보람됐다"고 회상했다.

또한 그는 "지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일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윤을 지역사회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작은 의미의 사회 환원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주)귀뚜라미 보일러 본사 창립이념을 지역사회에 이입해 가고 있는 서대표는 매년 1천만원 소요되는 행사비용은 물론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일러 영업과 장학사업을 병행해 실천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기업경영 이익 지역사회 환원

71년 한 이사장 퇴직금으로 설립... 1,562명에 2억3천만원 지급

영북지역 청소년 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인재양성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설악문화재단(이사장 한병기)'이 지역사회 장학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의 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71년 8월, 사회발전의 디딤돌인 청소년 교육 기초와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설악문화재단은 당시 (주)삼양항해를 운영하던 한병기 대표가 퇴직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시작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부족하던 당시, 설악문화 장학재단의 설립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새 지평을 열게 된다.

특히 설립 첫 해인 1971년에는 중학생 33명과 고교생 30명 등 총 63명에게 제1회 설악문화재단 장학금을 지급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전개했다.

재단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지역사회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은 청소년 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던 한병기 이사장의 적극적 추진력이 있어 가능했다.

이듬해인 72년부터 80년까지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늘려 매년 중학생 50명, 고교생 50명 등 총 1백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사업을 확대해 갔다.

이후 설악문화재단은 장학사업의 질적 향상과 인재양성의 집중적 배출을 위해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고교생 3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

급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한편 설립 당시 자본금 2천만원으로 시작한 이 재단은 1984년부터 매년 (주)설악관광에서 증자해 출자한 적립금을 밑거름으로 85년에는 매년 중·고생 31명과 전문대생 4명 등 35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갖게 된다.

투명한 기업경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설악문화재단 한병기 이사장은 그동안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재단 적립금 증자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한병기 이사장의 노력은 지난 8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9천만원을 증자하는 결실을 맺어 현재는 총 1억1천만원을 문화재단 자본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3월에는 총 3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설악문화재단은 현재까지 총 1천5백62명에게 2억3천2백여만원을 영북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설악문화재단 한병기 이사장은 "형식에 치중한 장학사업 보다는 지역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점차 확대해 갈 생각"이라며 "재단 장학금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배움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지역 장학사업에 환원해 오고 있는 설악문화재단은 새천년을 맞아 끊임없이 장학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학창시절 고생후배들은 없기를...

답지 원만 김이사장 90년 설립, 91년엔 10억땅 기증

속초지역 중·고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대학진학의 밑거름을 통한 교육적 토대 조성을 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는 '일산장학회(이사장 김종록)'가 지역사회 장학사업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지난 90년 10월, 정식 허가를 받고 설립된 재단법인 일산장학회는 김종록이사장(76세)이 출연한 5천만원을 적립기금으로 출발해 지역의 불우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왔다.

일산장학회는 젊은 시절 고학을 하며 배움을 이어갔던 김이사장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이를 통한 지역 인재양성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 시작됐다.

이 장학회는 설립 이후 지난 91년 10월, 장학기금 5천만원에서 나온 이자 6백만원으로 속초지역 중·고 청소년 3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지역사회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

당시 김이사장은 자신이 목표한 인생의 마지막 숙원을 이룬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 김종록 이사장의 교육관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속초문화원장, 변영희장 등을 역임한 김이사장은 장학회 설립 이듬해인 지난 91년 자신이 소유한 땅 11여만평(당시시가 10억여원)을 재단에 출연해 다시 한번 장학사업에 대한 그의 애착을 보여줬다.

이는 지속적인 의욕적인 장학사업 전개를 통해 일산장학재단이 지역사회 교육의 순기능을 담당하고 불우 청소년들에게 폭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 가능했다.

지역 청소년 교육에 집중적 지원을 해 온 일산장학회는 지난 92년 속초지역 중·고 청소년 40명에게 8백8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장학사업을 차츰 확대해 갔다.

이후 장학회 질적 향상을 위해 장학금 지급 액수도 조금씩 늘려가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일산장학재단은 지난 94년 제4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26명의 불우 청소년들에게 6백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지난 82년부터 4년간 속초문화원장을 역임한 김이사장은 향토문화 전문지로는 속초에서 처음 나온 '속초문화'를 창간했다.

속초의 산 증인과 다름없는 김종록 이사장의 이런 속초문화 사랑은 일산장학회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일산장학회 김종록 이사장은 "청소년 시기의 교육은 무척 중요하고 특히 지역의 불우 청소년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올바른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펼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이사장의 어려웠던 학창시절이 모태로 작용해 설립된 일산장학회는 그 소중한 기억 만큼이나 지역사회 불우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청소년 및 일반인에 장학금 수여

배이사장 92년 5천만원으로 설립, 자녀이름 따 재단명칭 정해

가정이 어려운 지역의 불우 청소년을 비롯한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지역사회의 교육토대 마련에 매진해 온 '민혁현 문화장학재단(이사장 배영덕)'이 더욱 실질적이고 알찬 장학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2년 11월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설립 허가를 받고 출범한 민혁현 문화장학재단은 고학을 하며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낸 배영덕 이사장(54세)이 5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치게 된다.

민혁현 문화장학재단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을 잊지 못한 배이사장이 자신의 청소년기처럼 불우한 학생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교육적 이념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출발했다.

12살 당시 모친을 잃고 가출해 구두다익, 행상 등 온갖 고생을 겪고 18살 때 속초로 이사온 배이사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민혁현 문화장학재단의 첫 출발은 배움의 한을 간직한 배이사장이 교육에 대한 애착과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최고의 인생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 가능했다.

민혁현 장학재단은 지난 93년 장학기금 5천만원에서 나온 이자소득 5백2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속초지역 중·고 청소년 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제1차 장학금 전달식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교육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탁구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5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94년도 제2차 장학금 전달식부터는 방송통신고 재학생 6명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 수혜 대상 범위를 넓혀가며 지역 청소년은 물론 배움을 이어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학사

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불우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온 민혁현 문화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 재학생과 방통고생 중 성적이 상위인 35%에 해당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젊은 시절 오징어배를 타고 받은 8천원으로 구멍가게부터 시작해 자수성가한 배영덕 이사장이 가정형편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 마련한 것으로 문화장학재단의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

암울하고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배이사장은 지역 청소년 교육의 밑거름이 되는 장학사업은 물론 지난 93년부터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예사랑'을 개업하고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을 지역에 마련했다.

청소년 교육과 문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배영덕 이사장은 "내 스스로가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가정형편상 배움을 잊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고 이런 불우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 장학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인 정진분씨(48세)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는 배영덕 이사장은 자식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들의 가운데 이름을 빌어 문화장학재단 명칭을 지었다고 한다.

민혁현 문화장학재단은 지난 8년동안 속초지역 중·고생과 방통고 재학생들에게 총 3천9백만원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이미 약속해 놓고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배이사장은 지역의 불우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놓으며 장학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농촌사랑' 장학금 수여로 실천

선친유지 받들어 92년 함승희 회장 등 가족들이 설립... 초등생에도 장학금 지급

양양지역 농업경영인 자녀들 중 가정이 어려운 초·중·고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교육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청파장학회(회장 함승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92년 작고한 선친(고 함상순)의 평소 유업인 '상록정신'을 기리고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 해 설립한 청파장학회는 장남인 함승희 회장(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가족들이 장학기금으로 4천만원을 출연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청파장학회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계몽과 지도에 헌신한 고 함상순옹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청소년 교육"이라고 남긴 유언을 모태로 출발했다.

지난 84년 농촌지도소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한 고 함상순옹은 당시 양양군 농촌지도소(현재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고성군, 홍천군 등에서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문분야는 물론 주위의 어려운 농민들과 함께 젊음을 바쳤다. 장남인 함승희 회장은 이런 선친의 뜻을 기리고 생전에 가졌던 '농촌사랑' 정신을 잇기 위해 청파장학회를 설립하고 농촌지역 청소년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선친의 호인 청파를 장학회 명칭으로 정해 그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청파장학회는 지난 93년 1월 영북지역 3개 시·군 중 농촌인구가 가장 많은 양양지역 농민자녀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 입학생 9명을 선발해 장학기금에서 나온 이자소득으로 제1차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양양 강현초교를 졸업한 고 함상순옹이 가

족들 몰래 강현면 소재 초등학생 중 가정이 어려운 농민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청파장학회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초등생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지난 94년부터는 손양 초등생중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 현재는 손양초등학교의 또 다른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1월이면 어김없이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등록금 지원을 해오고 있는 청파장학회는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매년 2백만원씩 지급해 오던 장학금을 97년부터 2백50만원으로 올려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학회 변화는 농촌지역 청소년 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애착을 가지고 있던 함승희 회장의 열정과 교육열이 있어 가능했다.

또한 함승희 회장은 청파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4천만원이던 장학회 기금을 현재 5천만원으로 증자했고 수혜대상 범위도 차츰 늘려 영북지역 농촌 거주 청소년 교육에 매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지역사랑을 통해 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함승희 회장(49세)은 "선친의 뜻을 이어 순수한 마음으로 설립된 청파장학회를 지역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재단법인으로 확대 출범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지탱해 줄 장학사업 또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함승희 회장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 갑지구당으로 출사표를 던져 국회에 입성한 후 국무총리 인준 인사청문회 질의에 나서는 등 현역의원으로 왕성한 국회활동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실향의 한' 2세 장학사업으로 승화

81년부터 19년간 기금모아 지난해 첫 장학금 전달

본단의 상처로 인해 50년 실향의 아픔을 겪고 있는 영북지역 함경북도 도민회는 도민회 출신 실향민 자녀들의 교육적 토대마련을 위해 '함경북도 장학회(이사장 김성도)'를 발족하고 건강한 청소년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회 자녀들이 배움을 이어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의 밑거름 역할을 해내기 위해 지난 98년 설립된 함경북도 장학회는 김성도 이사장을 비롯한 도민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태가 됐다.

함경북도 장학회는 도민회 2,3세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81년 6월 도민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 장학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기금 마련에 들어갔다.

장학회 설립이 추진된 첫 해는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도씨(83세)가 1백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면서 함경북도 도민회원들의 정성이 장학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맨손으로 피난길에 올라 온갖 고생을 하며 정착한 함경북도 실향민 1세대들의 작은 소망이 현실로 이뤄지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어업, 행상, 자영업 등 다양한 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오던 도민회원들은 장학회 설립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며 기금마련에 동참해 97년에는 장학기금으로 1억2천만원이 조성됐다.

장학회 기금조성에 중심으로 참여한 43명의 함경북도 출신 도민회원이 출연한 5천4백만원과 이자소득 6천6백만원 등이 합쳐진 값진 결실로 함경북도 장학회 설립 기금조성이 추진된 16년만에 기본틀이 마련된 것이다.

짧지 않은 세월을 통해 장학회 설립을 이룬 이

때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기 위해 노력해 온 함경북도 도민들의 의지와 자녀교육에 대한 도민회원들의 열정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도민들의 애뜻한 정성으로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함경북도 장학회는 98년부터 본격적인 장학사업에 들어가 지난해 6월 역사적인 제1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첫해 중학생 7명, 고교생 5명, 대학생 1명 등 총 13명에게 5백1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함경북도 장학회는 도민회 자녀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생의 경우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회 설립과 동시에 실무를 맡고 있는 전태극 총무이사(47세)는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회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회 정기총회 시기에 맞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있는 함경북도 장학회는 새천년을 맞아 지난 6월 2000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지난해 보다 많은 6백50만원을 13명에게 지급했다.

김성도 이사장은 "실향의 아픔을 딛고 1세대들이 이룬 장학회인 만큼 2, 3세대가 그 뜻을 이어 지역사회 교육의 밑거름이 되는 장학회로 빛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요즘 함경북도 장학회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도민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함경북도 도민회 장학회는 요즘 김연진, 조동룡 부이사장과 박종삼, 이태형 이사 등 13명의 이사들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출범을 준비하는 등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지역민들 동참으로 시론 결실

1988년 김남호 이사장 등 6명이 추진

예향의 고장인 양양지역에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해 온 (재)현산장학회(이사장 김남호)는 '문화·교육의 해'를 맞아 양양지역 청소년 교육의 장을 넓혀가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현산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향토인재 양성에 두고 영북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현산장학회는 1988년 김남호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의 추진위원들이 장학사업에 뜻을 같이하고 본격적인 장학회 출범 작업에 들어갔다.

청소년 교육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이들은 이듬해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정식 발족하고 현산장학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을 시작했다.

특히 장학기금 조성에는 애항심이 돋보이는 양양지역민을 중심으로 출향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원들이 참여해 양양지역을 대표하는 장학회 만들기에 열정을 보였다.

지역민들의 적극적 호응에 힘입은 지역장학회는 지난 90년 그동안의 숙원사업이던 현산장학회를 자본금 6천6백만원으로 공식 출범시키고 지역 인재양성의 뜻을 올렸다.

장학회 설립 후 2년간 기금조성 및 장학회 운영에 관한 내실을 다진 현산장학회는 지난 92년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통해 양양지역 중·고·대학생 13명에게 5백30만원을 1차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추구해왔던 장학사업의

참 의미를 펼쳤다.

이후 현산장학회는 고등교육을 통한 대학진학에 중점을 두고 매년마다 장학금 지급액수를 늘려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대학생 26명, 고교생 52명 등 총 86명에게 5천5백만원의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특히 93년 2차 장학금 전달식부터는 대학진학을 위해 매진하는 양양지역 고교생과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디딤들을 마련했다.

지난 97년 현산장학회 제6차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9명과 고교생 11명에게 1천7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올해 3월 9차 장학금 전달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7천6백만원을 86명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지난 88년 재단법인 현산장학회 추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이끌어 온 김남호이사장(73세)은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전통이 살아있는 양양지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이 폭넓은 장학금 혜택을 받아 배움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교육토대를 만들어 오고 있는 현산장학회는 김남호 이사장을 중심으로 정명시, 함상순, 김호열, 박용길 이사 등 17명의 이사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장학기금 확충,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2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운영하고 있는 현산장학회는 더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학기금 5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펴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순수민간 주도 고성인재양성 메카

95년 재단법인 출발 지난해 장학회 설립... 출향인사도 기금모금 참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고성지역의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 폭넓은 향토인재 양성을 추구해 온 (재)고성향토장학회(이사장 황연인)가 새천년을 맞아 질적 향상을 목표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유지하며 높은 향학열을 보이는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교육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고성향토장학회는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열악한 고성지역의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활성화를 목표로 1995년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재)고성군장학회를 모태로 출발한 고성향토장학회는 지난해 11월 향토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에 들어갔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던 장학회 이사진 18명이 참가해 명칭변경과 정관개정을 통해 고성지역의 순수민간 주도 장학회로 뜻을 올린 고성향토장학회는 올해 2월 알프스리조트에서 장학기금 모금행사를 갖고 질적으로 향상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경 미수복 고성군민회장을 맡고 있는 김근익씨, (주)삼화양행 정춘식회장 등 각계각층의 출향인사들이 장학기금 모금에 참가해 고성향토장학회는 짧은 기간동안 2억5천만원을 추가 장학기금으로 마련, 현재 5억2천만원을 자본금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고향을 아끼는 출향인사들의 적극적 지원과 활동으로 고성향토장학회는 총 1백42명의 따뜻한 손길들이 3억3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

고성지역 주민들의 교육열과 애향심이 합쳐져 결실을 보게 된 고성향토장학회는 이전의 고성군장학회를 통해 다져온 장학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출신 고

교생, 전문대생, 대학생에게 각각 30만원, 60만원, 1백만원을 연 1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전국단위 대회 입상자등 체육특기생에게 50~70만원의 장학금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 장학사업의 참 의미를 실천하며 장학금 수혜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96년 제1차 장학금 전달식에서 지역 청소년 14명에게 8백3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한 고성향토장학회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매년 장학금 수혜인원을 확대해갔다.

특히 지난 99년 제4차 고성 향토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역출신 학생 31명에게 2천1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돼 설립 이래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향토장학금이 주어져 장학사업 본래의 의미를 새기며 활성화에 기여했다.

고성지역 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잡은 고성향토장학회는 지난 96년부터 올해 4월 제5차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모두 1백23명의 지역인재들에게 8천3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고성향토장학회 출범을 이끌어 온 황연인 이사장(63세)은 "많은 지역인재들이 향토장학회를 통해 어려운 교육환경을 극복하며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매진하기 바라고,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의 디딤돌로써 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지역 향토인재 양성을 장학사업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고성향토장학회는 문창하, 김종기, 이진영씨 등이 이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장학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7월 고성문화관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현판을 내건 고성향토장학회는 고성지역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새천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지역교육의 발판이 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돌 위에 피운 감자꽃

가난한 자 돕는 전국단위 '가족적' 장학재단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가려진 소년소녀가장,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돌감자 장학회(회장 박무웅, 속초출신)'가 새천년을 맞아 폭넓은 장학사업을 확대해 가며 배움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진실·최선·봉사를 회훈으로 삼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돌감자 장학회는 지난 75년 10월 당시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박회장이 강화도 마니산에 올라가 장학사업을 결심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당시 장학회 자본금은 박회장이 너적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낸 6만원이 전부였다.

1961년 서울시립대를 입학해 다니면서 줄곧 생각해왔던 그의 꿈이 현실로 이뤄지는 소중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청년시절 그리 너적저 못하게 보낸 박회장은 속초가 고향으로 속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문배달을 통해 기숙사비를 보태는 등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왔다.

또한 그는 방학때면 농촌봉사활동을 참가해 농민들의 일손을 거들며 농촌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때 가난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의 강연을 듣고 감동한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결심하게 된다.

이런 인연으로 세워진 돌감자 장학회는 설립 첫째인 지난 75년 2명의 학생에게 2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벌였다.

돌감자 장학회가 출발한지 14년째인 1988년, 매년 박회장 자신이 내놓은 장학기금이 1천만원에 육박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 11명을 선발하고 총 3백4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같은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모색하고 장학회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돌감자 장학지' 창간호가 발간돼 그 의미를 더해가며 청소년 배움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

게 된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서의 한 구절을 연상시키듯 돌감자 장학회는 박무웅 회장의 헌신적 봉사로 지난 90년에는 외부후원을 받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회원들의 친목과 소식을 담은 순회 편지 '고추잠자리' 편찬에 들어가 지난 95년 장학지 3호와 함께 창간호를 펴냈다.

학생들을 향한 그의 봉사는 1994년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 조선족 중학교 재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중국 돌감자 장학회가 설립돼 '도서보내기' 운동을 함께 펼치며 장학사업은 절정에 이른다.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와 동포를 아끼는 박회장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선행이 알려져 같은해 10월 박무웅 회장은 '서울시민 대상'을 수상하며 '자랑스런 서울시민 6백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그동안의 돌감자 장학회 자료는 남산 타임캡슐에 봉해져 후대에 전해지게 됐다.

지난 98년까지 24년간 소년소녀가장, 가정이 어려운 농어촌 자녀 등 총 3백34명의 학생들에게 1억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온 돌감자 장학회는 장학금 혜택을 받고 사회인으로 성장한 이들이 다시 장학회 가족 회원이 돼 후배들을 돕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돌감자 가족들은 매년 박무웅회장 자택에서 신년 가족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하고 연중 편지쓰기, 전화걸기로 서로를 돌리려하며 환경캠페인도 전개해 실천적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돌 위에 감자꽃을 피우자'는 장학회 슬로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박무웅회장(59세)은 "돌감자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 자세로 생활을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보은과 사랑 실천

대입부터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 지급

속초·양양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성실한 학교 생활과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대학 진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보은'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충정장학회(이사장 김충호)가 전통을 쌓아가며 본래의 순수한 설립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보은과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정이 어려운 고교 졸업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대학진학은 물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충정장학회는 지난 82년 가난한 농촌 출신의 약사 김충호 이사장의 순수한 열정으로 뜻을 올렸다.

'눈물의 보은'을 계기로 첫발을 내디딘 충정장학회의 시작은 김충호 이사장과 지금은 고인이 된 박태송 선생의 운명적 만남이 그 모태가 된다.

한국전쟁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5년 양양중학교 졸업생이던 김 이사장은 전학년 우등생으로 3년 개근을 할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가정형편상 고교 진학이 어려운 그에게 이날 졸업식은 무겁기만 했다.

그 당시 양양지역에서 복진양조장을 운영하던 박태송 선생은 지역유치로 졸업식에 참석해 단상에서 물끄러미 우등생 명단을 훑던 중 성실과 우수한 성적에도 고교진학이 좌절된 김 이사장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고교진학은 물론 대학까지 책임지겠다고 방송으로 약속했다. 그 순간 졸업식장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가득 메워지며 진한 감동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드리워지는 눈물의 졸업식이 된다.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양양고에 입학한 그는 박태송 선생이 운영하는 양조장으로 거처를 옮겨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조장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주경야독'에 전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새기고 모든 면에서 성실한 생활을 이끄는 경희대 약대(당시 동양대의)에 입학한 김 이사장은 1963년 약사 자격증을 획득하며 졸업을 하게 된다. 지금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며 깊은 감회에 젖곤 하는 김충호 이사장.

이렇듯 자신이 사회의 전문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푼 고 박태송 선생의 참뜻을 기리는 '보

은의 장학재단' 설립을 결심하고 그동안 약국개업으로 모은 전재산 3천만원을 털어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지난 82년 5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당시 5천만원이던 장학재단 설립 기준에서 2천만원 모자란 3천만원을 들고 교육부(당시 교부)를 찾은 김 이사장은 담당 공무원의 난색에도 추진을 강행해 나머지 2천만원은 속초지청에서 공증을 받아 이듬해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1982년 11월 '충정장학회'를 설립한다. 작은 시골에서 시작된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당시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됐고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1백만원을 금일봉으로 전달하고 우리사회의 참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1억5천만원의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며 재학생 5명 등 모두 35명을 장학생으로 배출한 충정장학회는 김 이사장 자신이 입었던 은혜를 지역인재들에게 대학입학에서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단 한명이라도 충실하게 키워내는 설립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6년에는 장학생이 10명에 이르러 김 이사장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장학재단에 또 한번 출연하는 '참봉사'를 실천에 옮기는 등 18년동안 2억원을 충정장학회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김충호 이사장의 가운데 이름과 장학회 설립과 운영의 숨은 내조자 부인 박정은씨의 이름을 빌어 명명한 충정장학회는 박창서, 김덕희, 김남호, 윤익진, 장창영씨 등이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입은 보은을 지역인재들에게 다시 환원하고 있는 '말없는 교육자' 김충호 이사장(62세)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전문 사회인으로 충실하게 자리잡은 충정장학회 가족들을 볼 때면 고맙고 보람을 느낀다"며 "이들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작은 봉사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20명의 장학회원들이 양양 구룡령에서 친목을 다진 충정장학회는 오는 2002년 20주년을 기점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며 지역사회에 이정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CHINA

中國

전국 문화원 강원도 지회

후베이성湖北省 - 초청 방중 기행

崔龍文/속초문화원장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중국 호북성 인민우호협회와 우호교류 및 합작의향서를 교환하였다.

호북성湖北省의 초청으로 고경재(高慶在·양양), 정호돈(鄭鎬敦·강릉), 김관원(金寬元·홍천), 이병찬(李炳燦·고성), 정석진(鄭錫鎭·평창), 최용문(崔龍文·속초)원장 등 일행 6명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간 중국을 방

문하여 합의한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12일 12시 55분 서울발 중국 동방향공편으로 상해上海를 경유하여 이날 오후 6시 40분에 호북성의 성도省都인 무한武漢에 도착하였다.(호북성 인구 5천6백만명, 무한시 7백만명) 이어서 왕옥王旭 비서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후 호텔朋江飯店에 유숙하였다.

13일 오전, 오건민吳建民 부서기관의 안내로



▲후베이성과의 교류를 위한 회담(2000년 10월 15일·호북성청)

한국 강원도 문화원 연합회와 중국 호북성 인민대회 우호협회간 우호교류 및 합작의 향서

호북성 인민대회우호협회의 초대에 따라 회장 이하 한국 강원도 문화원 연합회 일행 6명이 2000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호북성에 우호차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기간동안 서로간의 우호와 진실된 마음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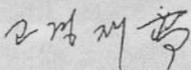
1. 한국과 중국의 더 나은 우호를 위해서는 특히 호북성과 강원도간의 교류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호북성 인민대회우호협회와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사이의 관계 또한 긴시간동안 밀접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간의 의견도 자주 교환되어야 합니다. 쌍방간의 교류와 더 많은 합작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작은 왕래가 있어야 합니다.
2. 다양한 유형의 대표단들이 우호교류와 합작을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이러한 대표단들의 방문일정은 반드시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3. 앞으로 쌍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화된 각종 문화교류 부문, 예를 들면 예술공연, 운동시범단, 전람회 등의 실질적인 시범이 있어야 합니다.
4. 교육면에서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간 결연을 맺어, 청소년들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5. 상황이 가능하다면 관계가 있는 도시민들간에도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며, 그래서 서로간 제의한 조건들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도시간 우호관계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6.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부문에도 합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협력과 좋은 상황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2000년 10월 15일

중국 무한에서 쌍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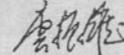
한국 강원도문화원연합회

회장



호북성인민대회우호협회

회장



호북성 박물관을 관람, 이어 황학루黃鶴樓에 올라 양자강 양안兩岸의 끝없이 펼쳐진 무한 시가지를 조망하고, 내려오면서 고동궁古東宮의 편종연주청編鐘演奏廳에서 편종연주를 감상하였다.

다음 성청省廳에 도착하여 왕비서관의 주재로 회의를 갖고 양도·성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서는 “호북성 대외우호협회가 창립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오늘처럼 한국의 문화사절단 방문은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대환영과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표단은 회의를 끝마치고 초楚나라의 고도古都인 형주시荊州市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려 오후 6시에 도착하였다. 시 영빈관에서 동수청董水淸 시위원회 부서기, 왕선방汪先芳 시인민정부 부서기관, 고시림高時林 시 문화국 부국장과 회동, 만찬을 곁들인 문화교류에 따른 논의를 가졌다.

14일 오전에는 유숙한 호텔(홍비대주점) 회의실에서 우리 강릉시와 자매시인 양양현襄陽縣의 양군과 자매인 양양현襄陽縣의

登延翔 시인민 정부외사 판공실 부주임, 왕옥국王玉國 양양현 외사판공실 주임, 그리고 시·현의 민속학자 수명과 자리를 같이하고, 자매결연의 의의와 효과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도도와 성省간의 문화교류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오후에는 초楚나라의 성곽인 형주성荊州城 망루에 올라 삼국지三國志를 되읽게 하였고, 강한평원계시 문화전江漢平原系始文化展에 들려 형주 근교에서 토출한 5만년 전의 구석기 유물을 관람하면서 유구한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었다.

15일 10시에 형주를 출발, 무한시로 향하였는데 8차선 고속도로를 약 3시간 반 동안 버스(관용)로 달리면서도 그곳을 오가는 차량은 20여대에 불과하였으며, 산이라곤 보이지 않는 끝없는 들판에 목화, 연, 논, 밭, 양어장, 방풍림, 소밭같이 그리고 십리에 하나씩 있는 퇴색한 오막집, 오일시추 등을 구경하면서 잠강시潛江市를 경유, 오후 1시30분에 무한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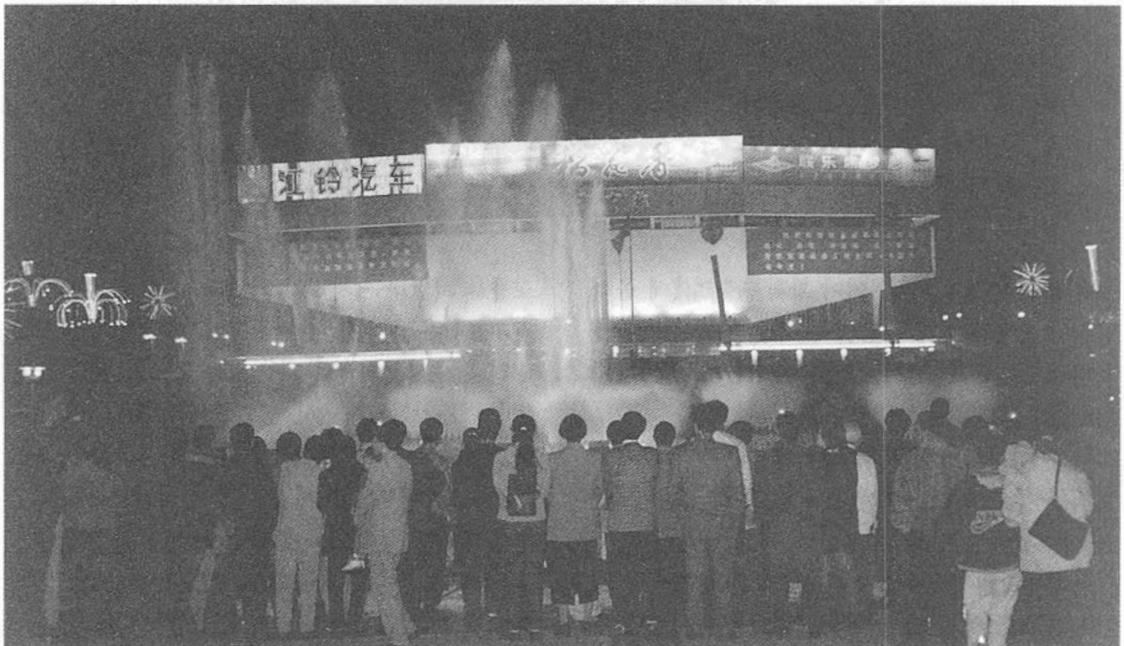
시간이 있어 바다와 다를 바 없는 동호(東湖·

호수면적 32km²)를 돌아보고 오후7시 성청에 도착하여 회의를 갖고, 고경재高慶在회장, 당진웅唐振雄회장 양 대표가 다음과 같은 우호교류 및 합작의향서에 서명, 교환하였다.

공식일정을 마친 일행은 16일 오전 8시 2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9시 10분 공항에 도착, 10시 발비행기를 타고 11시 5분에 상해 비행장에 내렸다. 일행은 상해에서 의사 윤봉길 공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금일봉을 헌금하고, 저녁에는 상해의 전형적인 얼굴로 상징된다는 황포黃浦공원의 분수대의 야경을 가득 메운 상해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구경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하다는 상해 서커스를 관람하였는데 그들의 기예는 신기神技에 가까운 북한 곡예단과 흡사하여 우리를 아찔하게 하였다.

우리는 며칠 간의 일정이었지만 인류문화의 발상지 양자강 안주의 유구한 문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의 보고寶庫 위에 개방화의 조류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물결은 중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기행이기도 하였다.



▲황포 공원의 밤 - 분수대 야경을 즐기는 상해 시민들

요나고_{米子}시 가이나나 축제 참관기

속초문화원 부설 '풍물패 갯마당' 요나고시 공연에 따라



정종천

속초시 문화재 전문위원



일본 가이안 축제 참가 모습

되었다.

8월 4일 요나고시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 방문단은 다음날 아침(방문2일째) 요나고성터와 중해_{中海}를 답사하고, 가이나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초청공연을 가졌다. 이날 갯마당은 사물놀이와 설장구를 공연하였는데 공연을 지켜보던 요나고시 시장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우리 고유 민속음악을 일

새 천년을 맞이하여 속초시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여 국제 자매도시간 문화예술교류를 추진하고자 그 첫 대상으로 자매도시인 돗토리_{飛鳥}현 요나고_{米子}시에 우리시의 대표적 공연단인 갯마당을 파견하여 공연하였다.

2000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요나고시 가이나축계에 공식 축하사절 및 공연단으로 초청된 이번 방문단은 채용생 부시장을 단장으로, 노광복 문화원부원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갯마당 공연단 6명과 시 공무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본에 전파하는 의미있는 공연이 되었다.

공연 후 가이나축제의 대표적인 행사인 가장행렬을 관람하였는데, 같은 음악과 발동작으로 구성된 무용으로 기관과 단체별로 복장과 사용도구(주걱, 봉, 우산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지만 저마다 자신이 속한 기관과 단체를 홍보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이날 밤에는 가이나 만도_{万燈}도 관람하였는데, 60여개의 등불로 약 10m정도의 돛대를 만들어



가이나 축제 공연 모습

거리를 행진하고 튼튼이 묘기를 펼치는 행사로, 가장행렬과 마찬가지로 요나고시 소재 각 기관과 단체에서 행렬단을 만들어 축제에 참가하였다.

8월 6일(방문 3일째)에는 아다치足立 미술관과 요나고 수조水鳥공원을 관람하고, 요나고 인근도시인 사카미미나도境港市를 방문하여, 해양문화사료관과 미즈기시계루의 만화캐릭터거리와 『꿈의 박람회』가 개최되었던 미나토타워를 관람하였다. 또한 요나고시의 가장 대표적인 온천이자 해변인 가이케階生온천을 두루 살펴보고, 미나토타마 공원에서 요나고 시민중 동호인으로 구성된 타이코太鼓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갯마당의 상모판국의 공연이 펼쳐졌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진 갯마당의 상모판국은 우리 전통민속의 백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상모 돌리는 모습을 본 일본사람들은 호기심에 어린 눈으로 공연단의 묘기에 연신 박수를 보내주었으며, 공연을 마친 우리 방문단은 중해에서 펼쳐지는 가이나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불꽃놀이를 관람하고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관람한 가이나축제는 매년 8월 첫째 토·일요일에 개최되는 행사로 순수 민

간인으로 구성된 가이나제祭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이 축제의 주된 행사는 타이코, 만도, 가장행렬, 불꽃놀이 4가지 뿐이지만 27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완벽히 보존되고, 정형화된 축제의 느낌을 받았다.

특히 행사장소가 거리를 중심으로 개최됨에 따라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람이 이루어지고 행사분위기 또한 고조될 수 있었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행렬단의 일원이 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로 승화시키는 모습과 행사장의 조성과 질서의식, 문화적 전통의 보존 등 우리시의 축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시사해 주는 점이 많았다.

갯마당의 공연은 요나고 시민들에게 뛰어난 연주와 더불어 속초시를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간 문화예술교류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공연이 되었으며, 우리의 전통민속과 음악을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 양 도시의 문화예술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가이나 축제의 거리 퍼레이드에 우리 전통농악인 도리원농악의 공연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12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4인의 PROFILE

2000년 10월 1일 제35회 설악문화제 개막식전

문화예술 부문 양숙희씨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윤종구씨
효행 부문 김선지씨	체육 부문 장석훈씨

자료제공/ 속초시 문화공보실

물질을 사랑하면서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물건에 아름다움을 입히는 것은 위대한 봉사
적 행위이다. 모든 물건에 사랑의 옷을 입힐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 물건이 가진 아름다움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진실한 생활이며, 이 세상을 우리
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다. 아름다움과 사랑을 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 Tagore, Rabindranath



문화예술

양숙희 梁淑喜
속초무용학원 원장

클라우드 컴퓨팅 | 가상현실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 가상현실 | 인공지능 | 빅데이터

1. 주요공적내용

- 양숙희氏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스승으로부터 한국무용의 각 분야를 사사받고 무용의 불모지인 속초에서 평생을 무용을 위해 헌신한 자로서
- 그간 200여명의 제자를 배출하고, 무용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
- '81~2000년 정기발표회 16회 개최
- '86~현재 매년 설악문화제 공연
- '92년 춤의 해 기념 강원·경기 출판공연, '97년 사이판 교민회 초청 해외공연
- '99~2000년 강원무용제 특별공연 그와 다수 특별공연 실시
- '91~'98년 불우 청소년 무용 무료지도(5명)
- '98~현재까지 속초시 노인교양대학 수강생 무료지도
- '98~현재까지 속초시 노인교양대학 국악교실 수강생 무료지도
- 그외 노인 경로잔치, 소외계층 학생 교복맞춰주기 및 결식아동돕기운동 전개

2. 주요경력

- '81~2000년 : 정기발표회(16회)
- '86~2000년 : 설악문화제 공연
- '92년 : 춤의 해 기념 강원·경기 출판공연
- '99~2000년 : 강원무용제 특별공연
- ※ 노인 경로잔치(50여회), 결식아동(4명) 급식비 지원, 군부대 모범사병 초청위로회(3회 120명), 소외계층학생(4명) 교복 맞춰주기

3. 수상경력

- '85년 : 강원도지사 표창(제3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 '99~2000년 : 강원무용제 우수상 그외 다수



윤종구尹種九
현대약국 대표

및 사회봉사



1. 주요공적내용

- 윤종구氏는 '69년도 (사)한국JC 속초청년회의소 초대회장 및 '71년도 강원지구 JC회장을 역임
- '71~'91년 속초시 시(행)정 자문위원, '73~'78년 (사)대한약사회 이사
- '74~'82년 속초시 문화원 이사, '77~'79년 속초시 약사회장
- '75~'97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속초시지회장
- '78~'81년 총무처 행정 상담위원, 83~98년 강원도정 상담위원
- '81~'91년 민주평통 정책자문위원(속초시 협의회 간사)
- '91~'95년 속초시의회 의원, 91~현재 속초시 국제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
- '99~현재 속초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그레삼시 위원장

2. 주요경력

- '69년 : (사)한국 JC 속초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71~'91년 : 속초시 시(행)정 자문위원
- '75~'97년 :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속초시지회장
- '81~'91년 : 민주평통 정책자문위원(속초시협의회 간사)
- '91~'95년 : 속초시의회 의원
- '99~현재 : 속초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그레삼시 위원장

3. 수상경력

- '82년 : 새마을훈장 노력상 수상
- '88년 : 평화통일 유공 대통령 표창상 수상
- '95년 : 우수 국민제안 유공 국무총리 표창상 수상 그외 다수

윤종구氏의 주요 공적

주요 경력

수상 경력



호행 김 선 지 金善枝
낙산관광호텔 조리부 찬모대리



1. 주요공적내용

- 김선지씨는 '68년도 지금은 故人이 된 김영근氏와 결혼한 후 지금까지 시부모를 봉양하여 왔으며, 지난 '84년도 남편 회사의 부도로 속초로 이사온 후, 남편을 대신하여 낙산관광호텔 조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야 했다.
- 그러나, 김선지씨는 어려운 생활 속에도 하나뿐인 딸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교육열로 딸이 대구 계명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현재 속초KBS에서 리포터로서 건실한 사회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식교육에도 깊은 열의를 보였다.
- 그런 와중에 10년전부터 시아버지는 치매로, 3년전부터 시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지난 2000년 1월에는 시부모를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시켜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여 다른 환자와 가족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함.
- 더욱이, 회사 부도로 인해 직장을 잃은 남편은 당뇨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굵은 일을 도맡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든든한 가정의 자리를 지켜왔으나, 3년전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중, 지난 '99년 12월 25일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 그러나 김선지씨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퍼할 틈없이 몸이 불편한 시부모의 간병은 물론 하나뿐인 자식의 교육과 이웃의 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효부이자 참어머니로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자임.

2. 주요경력

- '68년 : 故 김영근氏와 결혼 ⇒ 시부모 봉양
- '84년 : 남편 실직 ⇒ 낙산관광호텔 조리부 근무
⇒ 가족 생계부양
- '90년 : 시아버지 치매로 투병
- '97년 : 시어머니 관절염으로 투병
- '99년 : 당뇨 합병증으로 남편 사망
- 현재 : 직장생활을 하며 투병중인 시부모 병간호 병행

3. 수상경력

- '91, '93년 : 낙산관광호텔 대표이사 표창
- '96년 : 한국관광협회장 표창



장석훈 張錫勳
속초시 축구협회 회장

1. 주요공적내용

- 장석훈氏는 '67년도 속초시 축구협회 창립후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78년도 부회장을 거쳐 '92년도 회장직에 이르기까지 속초시 축구향상과 市 체육회 활성화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며
- '81~'93년도 속초시 탁구협회장, '87년도 속초시 테니스협회장 등 시 체육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
- 또한, '78년도 속초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80년도 속초여고 육성회 부회장, '83년도 속초여고 육성회 이사, '84년도 속초중 부회장, '85년도 속초여고 부회장, '90년도 속초상고 육성회장으로 학교 체육 발전에도 기여한 바 크며
- '92~현재까지 속초시 축구협회장 역임하고, '97년도부터는 강원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축구인구 저변확대에 주력

2. 주요경력

- '67년 : 속초시 축구협회 창립(전무이사)
- '81~'93 : 속초시 탁구협회장
- '87년 : 속초시 테니스협회장
- '92~현재 : 속초시 축구협회 회장
- '97~현재 : 강원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수석부회장

3. 수상경력

- '84년 : 제9회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 준우승
- '85년 : 제1회 슈퍼카미트배 쟁탈 테니스대회 우승
- '99년 : 국민생활체육 전국 축구연합회 감사패 그의 다수

무향/ 서예 작품1

속초문화원 서예교실



然而真教難仰莫能一其旨歸曲
學易遵耶正於焉紛紜所以空有
之論習俗而是非大小之乘乍法時
而隆替有玄奘法師者

格原李永周

무향/ 서예 작품2

속초문화원 서예교실

繼車乘經弓子頤彤尖四易其
廟介繼迭駁仄廟圖博者車輶
兆迭中章灑灑陰陽超易及止
中秀獸靈中尹賢退禽兒

行心李系男



묵향/ 서예 작품3

속초문화원 서예교실

仰觀壯麗可作鑒於既往俯察
卑儉足垂訓於後昆此所謂至
人無為大聖不作彼竭其力我
享其功者也然昔之池沼

曉雲 劉壽子



무향/ 서예 작품4

속초문화원 서예교실

雖休弗休居崇茅宇樂不般
遊黃屋非貴天下為憂人玩
其華我取其實還淳反本代
文以質居高思墜

平山 崔東洙



2000년 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박종성 / 예총 사무국장

◆ 눈꽃축제 사진전 및 최이권 개인 사진전

제5회 설악눈꽃 축제를 기념하여 제14회 속초 사진전이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속초종합운동장 2층 로비에서 개최되었으며 최홍영 회장을 비롯 회원 15명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 속초시민 위안의 밤

제5회 설악눈꽃 축제를 기념하여 속초시민 위안의 밤 행사가 연예협회 주관으로 1월 28일 속초시 공설운동장 눈꽃축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 각설이 마당극 공연

연극협회에서는 눈꽃축제를 기념하여 1월 29일 19시에 눈꽃축제 특설무대에서 각설이 마당극 공연(출연자 : 김귀선)을 개최하였다.

◆ 속초 시민노래자랑

연예협회 주관으로 1월 30일 14시에 눈꽃축제 기념 속초시민 노래자랑이 개최되었다.
대상/ 한경심 금상/ 김종환 은상/ 김희령 동상/ 최은미

◆ 제10회 학생예술상

2월 15일부터 19일에 걸쳐 지난 한해동안 예술 문화 부문에 뛰어난 기량으로 학교와 지역을 빛낸 지역 중·고교 졸업생들을 선발해 졸업식장에서 학교별로 학생 예술상을 시상, 속초예총 회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 ▷ 속초중학교.....송영윤
- ▷ 설악중학교.....양지운
- ▷ 속초여자중학교.....이향하
- ▷ 설악여자중학교.....서주연라
- ▷ 속초고등학교.....김남현
- ▷ 속초여자고등학교.....이현아

▷ 속초상업고등학교 ……황미희

▷ 양양여자중학교 ……임자영

◆ 김은경 플룻 독주회

음악협회 주관으로 4월 6일 19시 30분에 김은경 플룻 독주회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제11회 속초종합예술제

제11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총속초지부(회장 : 장규호)가 주최하고 예총소속 단일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6개협회 지부는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 연극협회(지부장 : 박영미)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 음악협회(지부장 : 심연흠) 사진협회(회장 : 최홍영)로, 음악콩쿠르 본선을 시작으로 총 18개 단일사업들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 제8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13일 13시에 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강원도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8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연극협회 정기공연

제11회 속초종합예술제를 기념하여 연극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이 5월 14일 16시, 19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개최되었다. 제17회 강원연극제 대상, 연기상 수상자인 오태영 작 김귀선 연출의 '돼지비계'로, '돼지비계'는 권력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비열한 인간세대와 이로 인해 희생물이 되어가는 한 인간을 돼지비계로 표현한 작품이다. 김태영, 문일완, 김귀선, 정경숙, 최문경, 이해경 등이 열연하였다.

◆ 제4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4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5월 20일 19시 30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대상/ 이서현(교동초등2·피아노) 정한솔(교동초등5·플룻)

◆ 제6회 주부 백일장

제6회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20일 11시에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대회는 35회 강원도민체전 봄 조성 문예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금번 대회에 시, 산문 부문에 지역자모 및 주부 100여명 참가하였다.

◆ 제11회 학생 백일장



제11회 학생 백일장이 주부백일장과 같이 5월 20일 수복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백일장으로는 영북 최고의 대회로 자리잡은 본 대회에 영북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 제11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속초종합예술제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청소년 가요제가 5월 21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16일 예심을 거쳐 14개 팀이 출전,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대상/ 김유미·윤소희(속초상고2)

◆ 제11회 전국 학생미술 실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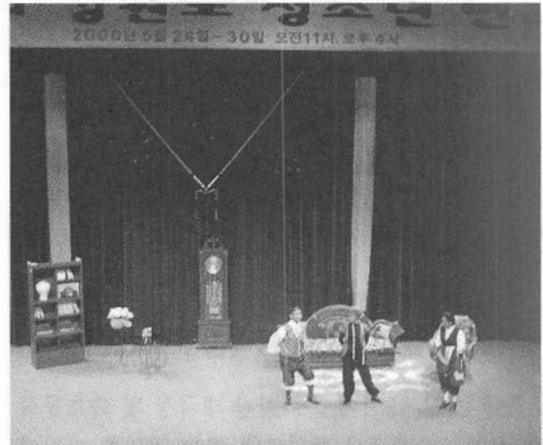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마음과 순수성을 길러주고, 창의성 계발로 보다 밝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미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미술인구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개최한 제11회 전국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5월 23일 설악한화 프라자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 제1회 주부미술 한마당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향토미술 발전에 일조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데 힘입어, 성인 미술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제1회 주부미술 한마당 사업이 학생대회와 같이 추진되었다. 수채화, 사군자 부문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최우수상/ 이숙희

◆ 제9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9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한국회극분과위원인 극작가 오태영,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이며 극단비파 대표인 연출가 김철리, 장규호 속초예총 회장이 맡았다. 도내 13개 고교가 참가한 금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교는 10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4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출전권 및 한국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대회참가비 200만원도 함께 주어졌다.



◆ 제5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

제5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되었다. 학생미술 실기대회 시상을 마치고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제11회 전국학생 미술실기대회 우수작 40점, 일본 요나고시 48점, 일본 사카이 미나도시 70점, 미국 그레삼시 9점, 중국 훈춘시 36점이 전시되었다.

외국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역아동미술발전에 이바지코자 마련한 본 전시회에 지역학생 및 미술 학원생들이 대거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 북청사자놀이 초청공연

남북화해 통일을 기원하는 중요무형문화제 제 15호인 북청사자놀음 2000년 마당발표 공연이 도민체전 전야제인 6월 8일 18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문화연구회 풀뭉음이 주관하고 속초예총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100여명의 출연자와 50여개의 햇불, 다수의 사자탈들이 등장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무대였다.

◆ 제15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주관으로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체전이 전개되는 속초시 종합운동장의 2층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협회 회원 15명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최구현, 동문성, 장창영, 최춘영, 최홍영, 김성호, 황동석, 황병진, 김호성, 원춘택, 김성학, 강영진,

김형관, 황광희, 홍창해 등이 출품명단이다.

◆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6월 9일 10시와 19시에 국립극장의 창극단 공연이 체전 개막식장인 종합운동장 및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청공연을 개최하였다. 총 출연인원 60여명이 출연하여 시나위, 남도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사물놀이의 1부와, 2부에서는 창극 흥보전을 공연하였다.

◆ 중국 훈천시 가무단 초청공연

6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 훈천시 가무단 초청공연이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설악 청소년 음악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양코르 공연이 6월 11일 19시 30분 한화프라자 에머랄드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공연은 제4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출연진들이 주축이 되어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체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문예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제25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제25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30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 제18회 전국연극제

제18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극단 굴렁쇠가 출전하였다. 오태영 작 “돼지비계”로 6월 16일 울산시 문예회관 소공연장에 대회 마지막으로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 엔젤스 합창단 및 설악청소년 기타합주단 창단 연주회

6월 27일 19시 30분 음악협회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설악엔젤스 합창단 및 설악 청소년 기타합주단 창단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 제8회 청소년 문학교실

7월 22일부터 23일 양양면 옥치학생수련관에서 제8회 청소년 문학교실이 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 2000년 문화관광부 무대예술 지원 연극 공연

2000년 문화관광부 무대예술 지원사업인 연극 공연이 8월 9일~10일(고성군 화진포해수욕장) 12일~13일(고성군 삼포해수욕장)에서 연극협회 주관으로 오후 8시에 각기 공연되었다.

◆ 그레삼 합창공연

8월 13일(속초중앙교회) 14일(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미교류 합창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그레삼의 어린이 합창단과 설악엔젤스 합창단이 출연하였으며 그레삼시의 마운티 후드

합창단 20명 설악엔젤스 합창단 36명 등 50여명이 출연하였다.

◆ EXPO 1주년기념 미술사생대회

EXPO 1주년 기념 미술사생 대회가 미협 주관으로 EXPO 대회장에서 지난 9월 25일 개최되었으며 지역학생 총 1,5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 극단 청봉 부활공연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극단 청봉에서는 극단 대표인 신원하씨의 모노드라마 “불효자는 옳다”를 속초신협 4층에서 무대에 올렸다. 극단 청봉은 속초에서 60년대부터 80년대초까지 활동해 왔으며 속초연극협회의 모태이며 신원하씨는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연극인이다.

◆ 제21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9월 30일~10월 8일까지 제21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 거리시화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문협 주관으로 “2000 거리시화전”이 개최되었다. 문협에서 협회소속 작가의 시작 50점을 올해 처음으로 전신주에 베너 형태로 작품을 제작게첨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제5회 전국서에 백일장

10월 1일 오후2시 제5회 전국서에 백일장이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총 1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 가을 콘서트

10월 1일 오후3시(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 저녁 8시(엑스포 행사장)에 가을 콘서트가 “합창과 솔로의 밤”이란 주제로 음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관동대 합창단 등 총 출연인원이 120여명 출연하는 대규모 음악회로 테너 성기득, 장근정, 최윤성, 이상조, 우영훈, 소프라노 김복순, 김우순, 바리톤 이숙형 등이 출연하였으며 합창단 지휘는 이무웅 관동대 성악가 교수가 맡았다.



◆ 제8회 강원도 주부가요제

10월 2일 오후2시에 설악문화제 대회장에서 제8회 강원도 주부가요제가 개최되었다. 강원도내

시·군에서 선발된 대표 17명이 참가하였으며 대상은 속초시 대표 김현미씨가 수상하였다.

◆ 제10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영북지역 음악인 연중 최대의 축제인 정기발표회가 12월 16일 오후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출연에는 성악중창, 피아노, 독주, 중창 엔젤스 합창단 35명, 기타합주 14명, 리코더 합주단 15명 설악콩쿨 대상 수상자 등 총 70여명의 출연자가 무대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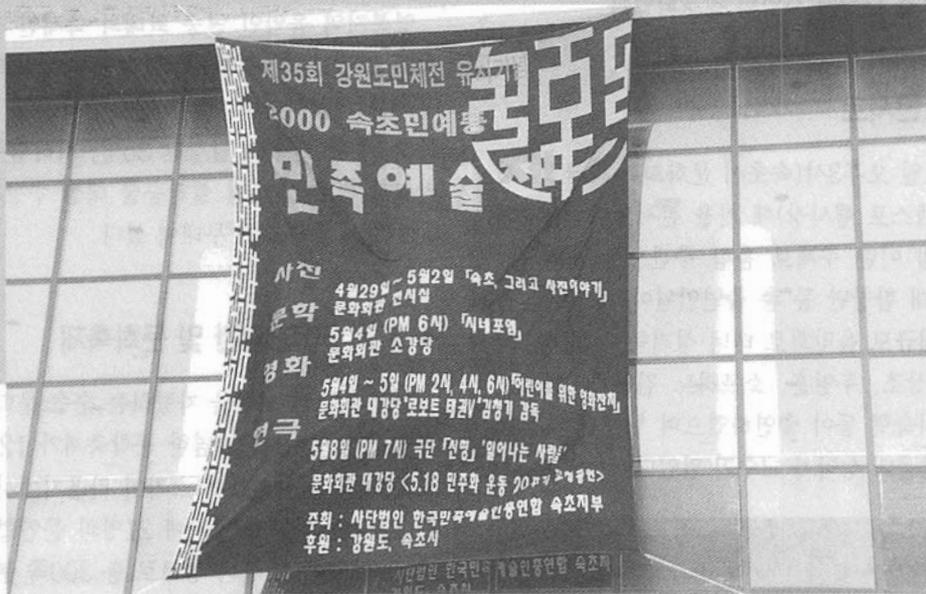
◆ 갈외 30집 발간 및 문학축제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순수 문학지인 갈외집 30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16일 오후6시에 동진리조트 스카이 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갈외 문학지에 21명의 문인협회 회원이 소설 수필 시 등의 장르로 총 300쪽 분량을 출판하였으며 대한민국 중견문인인 원영갑, 윤대근 씨의 문학강좌도 개최되었다.

◆ 극단 굴렁쇠 정기공연

밀레니엄 송년을 기념하여 연극협회 극단 굴렁쇠에서는 12월 22일~23일 오후4시, 7시 공연(총 4회공연)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만희작 “용띠 개미”를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는 최문경 김태영씨가 출연하였고 연출은 극단 대표인 김귀선씨가 맡았다.

2000년 속초 민예총의 활동상



2000년 민족예술제

매년 봄철에 실시하는 민족예술제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5·18민주화운동 20주기를 기념하여 '2000년을 위한 행진곡' 행사를 가졌다.

- 사진전시회 4. 29~5. 2(문화회관 전시실)
'2000 속초, 그리고 사진이야기 - 다큐사진 및 실험사진 30여점
- 시네포엠 5. 4 오후7시(문화회관 전시실)
시와 영상의 만남
- 어린이를 위한 영화잔치 5.4~5.5 오후2시, 4시, 6시(문화회관 공연장)

- 로봇 태권브이 감독 김청기 1984년 작
- '2000년을 위한 행진곡' 5. 8 오후7시(문화회관 대강당)
5·18 민주화운동 20주기를 맞이하여 민중가수 및 5·18 민주화 운동의 슬픈 역사를 담은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극단 신명)을 선보였다.
- 2000 어린이 큰잔치 한마당 행사 5. 5(공설운동장)

제2회 청소년문학기행 7.29~30 (갈천수련원)

1박2일간 양양군 서면 갈천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문학강좌, 백일장, 레크레이션 등의 내용으

로 개최되어 청소년을 자연스럽게 문학과 가까이
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5회 통일문학제 8. 15 오후6시~10시 (청호동 백사장 체육공원)

8월 15일 청호동 실향민들의 아픔과 한을 달래
고, 통일의 날을 염원하기 위해 제5회 통일문학
제를 개최하였다.

제35회 설악문화제 경축 종합예술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된 설악문화
제를 경축하는 행사로 일정한 전시장과 공연장을
탈피하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좀 더 가
깝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 문학 청소년 시낭송대회 9. 30 오후6시(속초
문화원 문화사랑방)
- 사진전시 9. 30~10. 2 엑스포장 특설전시장
- 2000년 여섯 사람의 사진이야기 - 작품 34점
전시
- 단편영화제 상영회
10. 2(엑스포 공원)

제1회 설악단편영
화제에 이어 제2회 행
사는 설악문화제 기간
에 엑스포 공원에서
야외상영으로 개최하
여 전년보다 많은 관
객들의 호응을 거둔
행사로 치러졌다.

연극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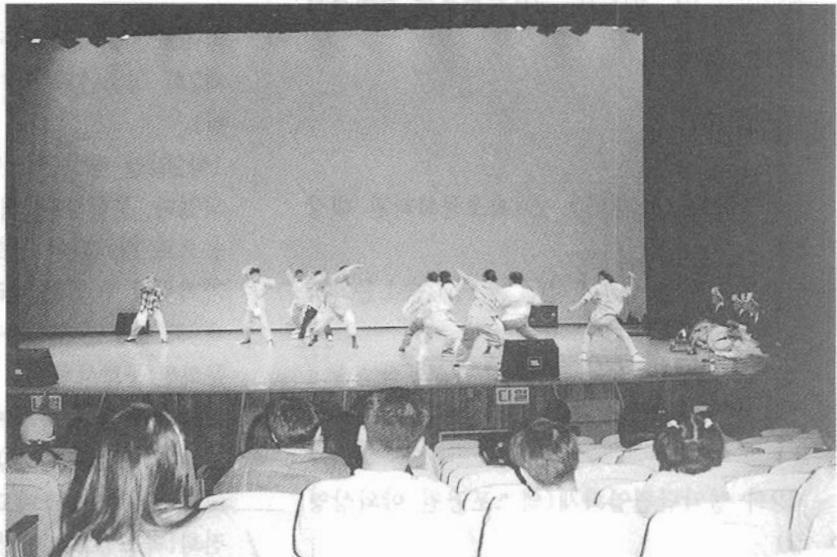
- 문화 소외 지역 연
극 순회공연(10.
7) 위기의 여자 시

문 보바르/작. 조수현/연출(인제문화회관)

- 2000년 무대지원사업(10. 11~12) 허탕 장진
/작. 황헌중/연출(속초문화회관 대강당)
- 극단 「예당」 창단 대표 황헌중. 정회원 5명과
청소년단위 19명으로 구성. 창단공연으로 “허
탕”(장진 작/황헌중 연출)을 선보임.
- 극단 파람볼 전용소극장 개관 10. 14~23
소극장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에서 처음으
로 극단 파람볼 조수현 대표가 사비로 객석 30
석 정도의 전용 소극장을 개관하였다. 개관공
연으로 “위기의 여자”(시몬 보바르 작/ 조수현
연출)를 무대에 올렸다.

사진위원회

- 2000년 속초밀레니엄 평화축제 “설악일출팔
경” 사진전(1. 1) 설악해맞이공원
- 속초시청 관광과 주최, KBS 속초방송국 후원
으로 설악해맞이공원에서 개최되었다.
- 2000년 민족예술제 사진전 “2000속초, 그리
고 사진이야기”(4. 29~5. 2)(속초문화회관



극단 -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 마당극



제35회 설악문화제 및 청소년 시낭송 대회

전시장)

- 2000년 어린이 큰잔치 한마당(5. 5)(공설운동장)
- 저소득층 노인초상사진 무료제작(7월~11월 말)
- 민예총예술제 사진전 "2000년 여섯 사람의 사진이야기"(9. 30~10. 2)(엑스포장 특설전시장)

영화위원회

- 한국영화회고전(2000. 2)(속초문화회관 대강당)
- 어린이를 위한 영화잔치(5. 4~5)(속초문화회관 대강당)
- "로버트 태권V" 감독 김청기 1984년 작
- 갯배 시사회(2000. 10. 3)(KBS방송국 공개홀)
- 제2회 설악단편영화제(엑스포공원 야외상영장)
- 춘천상영회(11. 4)(강원국악예술회관 대강당)

- 가칭 "어린 전사" 크랭크인 속초권투체육관에 훈련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 예정인 휴먼 다큐멘터리
- 2001년 2월 "명대" 촬영 예정

문학위원회

- 시네포엠 5. 4 오후7시(문화회관 전시실)
- 제2회 청소년 문학기행 7. 29~30(갈천수련원)
 - 1박2일간 양양군 서면 갈천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문학강좌, 백일장, 레크레이션 등의 내용으로 개최되어 청소년을 자연스럽게 문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3회 청소년 시낭송대회 9. 30 오후6시(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으뜸상 탁승희(속초여고), 버금상 김대광(속초고), 박창민(속초고), 딸림상 최영경(속초여고), 김은정(속초여고), 김하나(속초여고), 김진희(속초상고), 이경년(속초여고)

2000년 속초문화원 '에필로그'

문화원 끝마당 소식



- 생산적 선진 생활 문화 강연회
11월 29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전국 문화원 연합회
-주관/ 속초문화원
속초시 관내 고교 졸업생 8백 여명을 대상으로 '체험 21세기 꽃 피는 우리문화' 라는 주제로 이종욱(성균관 일급 예절 지도자)·송실대 이반 교수 등을 초청, 특강을 가졌다.
- 12월 1일, 속초시청 회의실.
관내 공무원, 문화원 회원 등 2백 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문화 이대로 좋은가' 라는 연제로 송실대 이반 교수의 특강을 가졌다.
- 공연 문화의 만남
12월 2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속초시 관내 고교 졸업생 8백 여명을 대상으로

- 속초문화원 부설 '풍물패 갯마당'의 사물놀이·힙합댄스·통기타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하여 주었다.
- 속초문화원 종합예술 행사
12월 2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전시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학생들의 장구·노래·요리교실의 발표회와 서예·꽃꽂이 전시회가 문화학교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람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었다.
-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콘서트
12월 8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속초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8백 여명을 대상으로 락그룹 'Black Hole 블랙홀'을 초청하여 새로운 대중음악을 접하는 자리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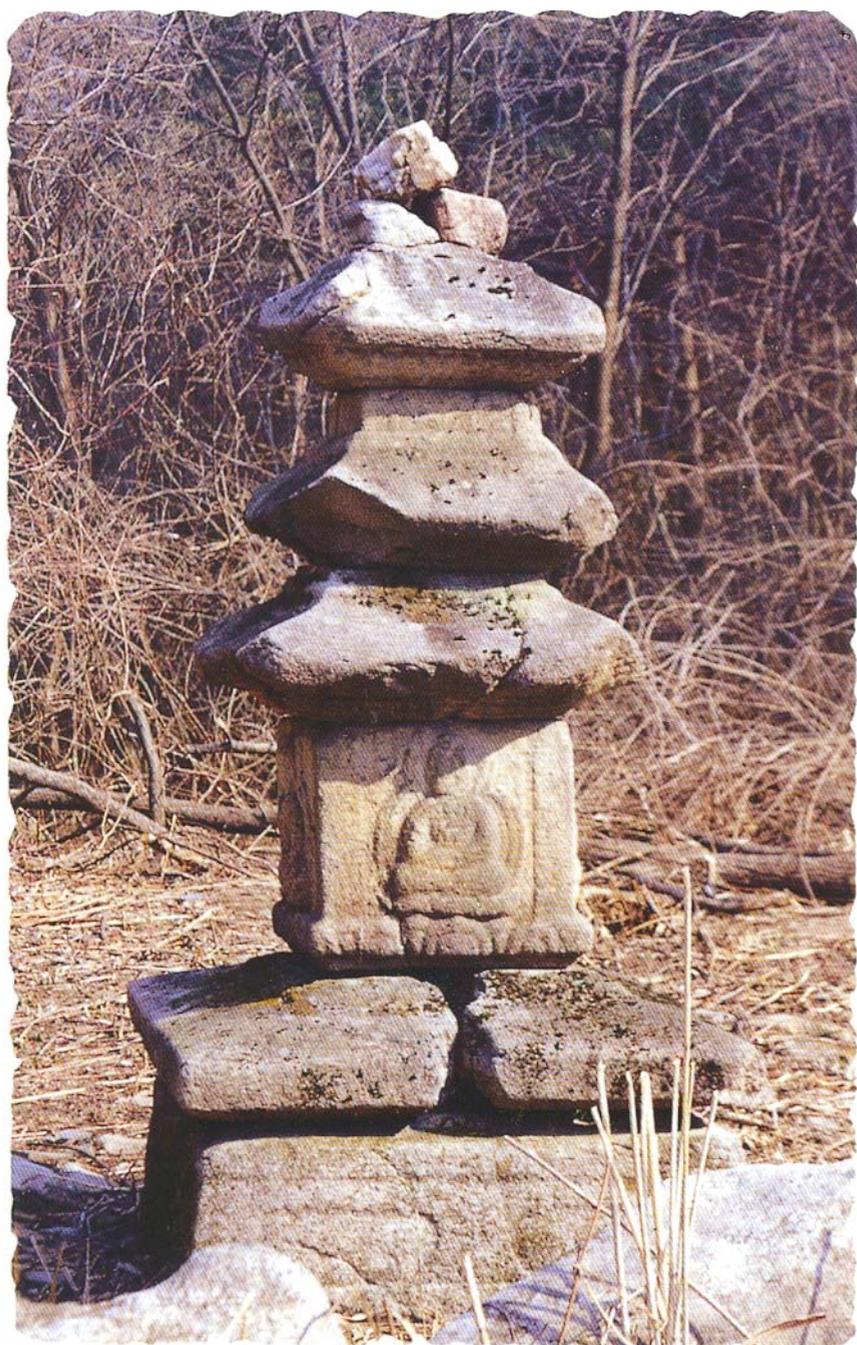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근무처	자 택	
원 장	최용문崔龍文	속초시 동명동 250-5 5/4	633-3969	633-3233	
부원장	이인철李仁鐵	교동 동부APT 102-1306		633-2177	영북지구합복도민회 회장
	노광복盧光福	중앙동 468-142	632-8907	632-9014	장안수퍼대표
이 사	강철훈姜哲勳	영랑동 163 5/6	633-5080	632-0188	삼도건축사
	고재양高在陽	교동 780-60 15/3		633-4931	교사(전)
	김광수金光洙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원장
	김길정金吉貞	조양동 721-2 13/2	635-1878	633-4756	강원도의회의원
	김병학金炳學	중앙동 503-44	632-6400	631-7425	속초요리학원원장
	김봉해金鵬海	동명동 450-39 4/2	633-2021	633-3411	합동문화인쇄사사장
	김창구金昌九	교동 럭키설악타운2차101-1106	642-2114	632-8275	LG화재
	김철섭金喆燮	조양동 부영APT 302-1304	636-6339	631-2292	속초지구합남도민회 고문
	동문성董文星	동명동 450-22 4/4	(교)633-3171	633-3721	속초시장
	박상복朴相福	교동 627-130 20/2		632-3888	의료보험대표이사(전)
	박정기朴政基	도문동 177-1 4/5	636-7667	636-8738	기자유통상사대표
	안동섭安東燮	노학동 619-5 2/3		632-0909	속초시기획실장(전)
	어재석魚在奭	중앙동 468-67		633-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오윤근吳允根	교동 656-5 13/2	632-5357	633-8817	청운독서실대표
	윤숙자尹淑子	교동 627-42 19/5	633-4014	633-4014	설악유치원원장
	이영호李永鎬	청학동 483-20	632-9244	632-9244	유성여관 대표
	이태형李泰亨	동명동 261-40 10/3		633-3618	동우대교수(전)
	임호성林鎬成	노학동 159 1/2		633-2178	속초시의회의과장(전)
	전복식全福植	교동 삼환APT 108-100		631-7130	대우장회장
	정래섭鄭來燮	조양동 부영APT 302-501		633-3149	(주)설악관광장학재단이사
최경순崔敬順	중앙동 496-55 1/4	633-3668	632-6590	화신상회대표	
최현식崔顯植	조양동 부영APT 303-604	672-2448	633-2632	낙산사기획실장	
감 사	정연태鄭然泰	동명동 104-2 3/1		633-2364	교육행정자문위원
	김종규金鍾圭	동명동 72 2/4		633-4472	속초시의회과장(전)
사무국장	한정규韓鼎圭	교동 966-12	632-1231	635-5933	
간 사	장은선張銀善	교동 나하나2차APT 1109호	632-1231	636-4344	
사료관기사	최봉하崔捧河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635-8827	631-5298	



塔

탑으로 가는 마음



탑에 대한 예우

노학동 삼층석탑

지정고시/ 도 문화재 자료 127호.

소재/ 탑상골(속칭 무당골).

지정일자/ 1999년 12월 28일.

높이/ 127cm.

조성시기/ 고려 중기로 추정.

재료/ 화강암.

《속초문화》 14호(1998) 56쪽, 15호(1999) 88쪽 참고.

雪嶽山新興寺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돌계단의 용머리

〈아미타삼존阿彌陀三尊〉을 모신 설악산 신흥사의 중심 법당인 〈극락보전極樂寶殿〉은 극락을 향해 가는 *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상징하고 있는 신성한 장소이다.

법당 건물 좌우 공포貢包의 용머리는 바로 '반야용선'의 선수船首가 되며, 앞쪽 좌우 돌계단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를 목격할 수 있는데, 선수船首를 상징하는 법당 및 돌계단 소맷돌 용머리 부분은 무지개다리처럼 구부러진 ¼원의 쇠사리 모양에 고개를 꼭 숙이고 있는 형상으로 해인사 '대적광전' 앞의 용머리와는 대조적이다.

해인사의 용머리가 남성적이라면 신흥사의 그것은 우아하면서 약간은 나약한 분위기도 풍기는 다소곳한 여인 같은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반야'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자태를 품고 있는 지혜의 상징 용머리이다.

* 사바 세계에서 피안의 〈극락정토〉로 건너 갈 때 타고 가는 배.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앞 돌계단 소맷돌 용머리.